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총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문제지 맨 뒷장의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빌 게이츠는 ㉠ ‘**마찰 없음(friction-free)**’이라는 용어로 사용자 친화적 기술을 설명했다. 이 용어는 특히 사용하기는 쉽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는, 예를 들면 컴퓨터 주도형 자동차 개발 기술을 설명할 때 쓰인다. 프로그래밍 전문가인 피터 머홀츠는, 설계자는 기술의 복잡성을 사용자에게 감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페이스북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이 권고를 ‘마찰 없는 공유(frictionless sharing)’라는 슬로건으로 구체화해 사회적 공식으로 전환한다. 그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친구를 얻거나 데이트를 하기 위한, 어렵고 좌절감을 주는 노력을 줄이는 데 있다. 대체로 사용자가 ‘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마찰 없음이 사용자 친화적인 것이 된다. 하지만 기술 영역에서 사용자가 그런 판매 기술에 굴복하면 ㉡ **비싼 정신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 …(중략)… 예컨대 찾아가기 힘든 곳에 있는 어떤 지역 카페에 굳이 가지 않고 그냥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식이다. 더 심각한 예를 들자면, 마찰 없음은 흑인이나 무슬림 같은 타자의 전형성만 알아본다. 그 전형성에 맞지 않는 흑인 남자나 무슬림 여성의 특수성을 식별하려면 감정적 노동뿐 아니라 정신적 노동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민주주의가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숙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과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 집단을 확인하고 조직화하고, 강령과 논변을 정식화하고, 집단 의사를 형성하며, 최종적으로 으뜸가는 논변을 집단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탈관습적 다원주의와 전 지구적 복잡성이라는 후기 근대의 조건 하에서 이러한 과정에는 실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과 집단이 관련되어 있고, 그저 당연히 받아들이는 일은 줄어들며, 더 다양한 견해와 욕구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결정의 결과와 배경 조건도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사회적 가속 때문에 정치인이 쓸 수 있는 시간 자원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기술적 혁신, 경제적 거래와 문화적 삶이 빨라지므로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의사 결정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다. …(중략)…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가 맺는 관계의 수와 종류, 접촉의 빈도와 강도 등은 모두 점점 늘어난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는 사회적 포화 상태에 이른다. 그 결과 진실로 서로 ‘관계함’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당신은 비록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고 도구적 관점에서 서로 협력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은 피하자. 깊은 관계를 맺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런 관계를 푸는 것도 고통스럽다. 이런 일은 모두 빠르게 변하는 만남의 세계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뒷면에 계속)

(다) 근대의 정신은 ‘행복의 추구’ 라는 깃발 아래 태어났다.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그리고 더욱더 큰 행복을! 유동적 근대의 소비사회에서는 모든 개인들에게 제각기 개인적 수단과 개인적 노력을 통해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라는 교육, 훈련, 준비가 주어진다. 행복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불편함에서의 자유’ 다. 그리고 ‘불편함’ 에 대한 현대적 정의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적당한, 부적절한, 경우에 맞지 않는, 편안해지기에 도움이 안 되는, 답답한, 신경이 쓰이는, 유익하지 않은, 어색한” 등등을 꼽고 있다. 누구나 그런 정의에 모조리 해당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여럿 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의 개인적 행복 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라)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의 이동이 이제껏 지금까지 수월했던 적이 없다. 우리가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 다른 문화 속으로 진입할 때면 겪는, 예전에 ‘인지 장애’ 라고 부르던 충돌이라고는 전혀 없이 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각종 상점이며 백화점, 어딜 가도 동일하게 운영되는 레스토랑 체인,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 검색, 숙소 예약, 교통수단 예매 플랫폼과 인터페이스만큼 세계화의 효과는 분명하다. 언어의 장벽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다른 이의 도움 없이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도구이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어른, 아이, 젊은이, 노인, 교육을 많이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 없이 모두의 손을 떠나지 않는다. 세계는 이렇게 모두의 손안에 들어왔다. 또 클릭 한 번이면 우리는 벌써 다른 곳에 있다. 하지만 같은 지구상에 있으면서도 이 도시 세계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 이방인에 대한 배척 등 자기 정체성에 관한 한 일종의 자폐 증세를 보인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장벽이 세워지거나 세워지려고 한다.

(마) 세계의 시민이 되는 과제는 종종 외롭게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일종의 망명이다. 보증된 진실들의 편안함으로부터, 자신의 신념과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등지 속 따뜻한 느낌으로부터 망명하는 것이다. 습관과 관습이라는 버팀대의 제거, 그리고 도덕적 추론 외에는 어떤 권위도 믿지 않겠다는 결심은 삶에서 어떤 온기와 안정을 앗아간 듯하리라.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성을 재구성하고, 이상화된 나라나 지도자의 이미지에서 우리 대신 생각을 해줄 대리 부모를 찾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성에 사실 더 많은 기쁨이 있고, 피상적인 고정관념을 열심히 답습하는 것보다 인간의 모든 진정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매혹적이고, 권위에 굴복하는 것보다 질문하고 탐사하고 탐구하는 삶이 더 가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1. 제시문 (가)의 ㉠ 마찰 없음(friction-free)의 의미를 제시문 (가)와 (다)를 통해 설명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제시문 (라)에서 찾아 쓰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가)의 ㉡ 비싼 정신적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문 (나)와 (라)에서 찾아 쓰고,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역사적 변동과 제도적 모순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누리는 안락 역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흥망성쇠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 문제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변모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다룰 줄 모르는 것이다. 가령 인구 10만의 어떤 도시에서 한 사람만 실업자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 문제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성격과 기술, 직접적인 여러 기회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취업자가 5,000만인 나라에서 1,500만 명이 실업자라면 그것은 공공 문제이며, 어떤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기회의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개인의 상황과 성격에 대한 고려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거대한 역사적 국면이 개인들의 내면생활과 외적 생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특수한 환경적 경험과 사회 구조의 관념 사이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다.

(나)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형적(patterned) 원리들은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이게 한다. 그러나 자유롭게 성립된 소유물의 어느 실제적 집합도 일정한 정형에 맞아들어갈 가능성은 적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실제 개인들의 권리의 침해를 포함하므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다른 이론의 관점에서 보아도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장이 명백한 진리라 생각한다. n시간 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시간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슈퍼볼을 맞아 거리의 노숙인들을 썩 치우기로 결정했다. 경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64킬로미터나 떨어진 실리콘밸리의 새 포티나이너스 구장에서 열리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집 없는 사람들을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존재로 볼 때가 너무 많다. 그러니 우리가 노숙인 문제를 논할 때 흔히 쓰는 단어가 쓰레기, 때, 오염에 쓰는 말인 ‘제거’ 라는 사실도 그다지 놀랍지 않다. ㉠ 어느 한 시민은 온라인에 시장에게 띄우는 공개편지를 올렸다.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좌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시장 사회입니다. 부유한 근로자들은 일해서 이 도시에 살 권리를 번 것입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노숙인이 된 사람들과 달리 성실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권리를 얻은 거죠. 그런데 왜 내가 길을 걸을 때 구걸하는 사람이 들러붙을까봐 신경 써야 합니까? 왜 내가 매일 출퇴근길에서 노숙자들의 고통, 고난, 절망을 봐야 합니까? 왜 내가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근처의 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는 현상

(라) 미국의 생태학자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닥칠 ㉡ 지구 환경의 위협을 경고한 바 있다.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목초지는 정성스럽게 가꾸지만,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목초지는 함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개인이 소유한 목초지에는 풀들이 무성한데 공유지에는 풀이 금세 사라진다. 소비에 제한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풀을 먹이려고 경쟁적으로 양을 풀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이득 추구 행위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소비를 조절할 경제적 유인이 없으므로 공유지가 황폐화되는 것이다. 그는 지구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로 보고, 아무도 그것을 아껴 쓰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뒷면에 계속)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의 환경이 감당해야 할 비극적인 운명을 대변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하던은 공유 자원의 과도한 이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세금·분담금 등의 정부 규제나 사유화 혹은 소유권의 확립을 통해 자원의 과다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정부 규제와 사유화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최근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제3의 자본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우리가 서로를 알고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정부 규제나 사유화에 기대지 않고 자발적인 협력 관리를 통해 공유 자원을 잘 관리해 온 공동체들을 연구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는 공유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 이분법적 논리, 즉 정부냐 시장이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유는 전통적인 견해, 즉 사유화나 정부의 직접 관리에 대한 주장에 도전하면서 자율적 지역공동체들에 의해 잘 관리된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제시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지역의 오래된 관습과 규칙이 공유 자원 관리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인구 600여 명의 스위스 퇴르벨은 마을 공동체가 800여 년 넘게 초지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 1517년 작성된 퇴르벨 마을 조례에는 “여름철 초지에 내보낼 수 있는 소의 수는 겨울철에 자신이 사육할 수 있는 소의 수만큼만 허용된다.”고 적혀있다. 이 자치 제도는 외부의 간섭이 아닌 공동체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바) 기후 위기는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비상사태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느긋하기만 하다. 파리 협정에서 결의한 기온 2℃ 상승 저지라는 목표는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코펜하겐 협정에서 이와 같은 목표가 발표되자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자들은 이를 ‘사형 선고’라고 표현했고, 저지대에 위치한 도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목표를 1.5℃로 낮춰야 한다.’는 표어를 내걸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각국은 ‘기온이 1.5℃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조항을 파리 협정에 추가하기는 했지만, 이 조항은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거짓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약속을 내걸고도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발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기에 기온이 1.5℃는커녕 2℃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생활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기후 위기가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자신들 대신 누군가가 짊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혹시 기후 위기의 영향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치더라도 누군가 자신들의 신상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1.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제시문 (다)의 ㉠ 어느 한 시민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에서 ㉡ 지구 환경의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찾고, (바)에 나타난 문제를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억을 향한 요청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죽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죽은 자들의 의지를 찬탈해 버리고 마는 다른 기억, 다른 해석,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레비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운명이 역사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운명에 앞선다. 운명이란 역사를 편찬하는 자들의 역사,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이며, 그들은 죽은 자들의 작품을 해석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죽은 자들의 작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략)… 역사편찬은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들의 의지와 작품을 내 것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역사편찬은 정복자, 즉 살아남은 자에 의해 성취된 찬탈에 입각하고 있다. 노예화에 대항해 싸우는 생을 망각하면서 역사편찬은 노예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은 자들의 의지와 그들의 작품을 찬탈하는 다른 기억, 다른 해석, 다른 이야기의 폭력에 맞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억, 죽은 자들을 위한 해석, 죽은 자들을 위한 이야기가 ‘변호’ 로써 발생·기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 최호근은 동일한 집단 안에서도 실제로 동질적 집단기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민족이나 국민과 같은 거대 집단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상이한 기억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흔히 ㉠ **집단기억**이라 부르는 것은 주로 지배적인 기억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 **대항기억**들이 무수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중략)… 또 그는 집단기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며, 상호 경쟁적인 여러 기억이 공론장에서 서로 투쟁하면서 지배적인 집단기억을 만들어간다고 본다. 아울러 집단기억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20세기 후반 이후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집단기억이 자기주장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본다. 즉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모든 이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한 집단기억은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는 말이다.

(다) 나치스 독일에서는 이른바 ‘밤과 안개’ 작전이나 강제 이송을 통해 끌려간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었다. 어떤 SS(나치스 친위대)의 수용소장이 프랑스의 한 여성에게 남편이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린 직후 “모든 수용소장들에게 명령이나 훈령이 실로 빗발치는 총알처럼 쏟아졌다.”는 일례를 아렌트는 언급하고 있다. 이 수용소장이 저지른 잘못이란, “수용소 내에서 소멸한 인간이 그 수용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유족이 그 육친의 생사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얻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거역했다는 것이었다. 수용소적 세계의 중요한 특징은 그 세계가 다른 모든 인간사회로부터, 즉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 일반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이 완전한 격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무언가 군사적인 혹은 다른 어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철의 장막이 내려졌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배의 진짜 비밀, 즉 전체주의의 실험이 행해지는 실험실인 강제수용소의 비밀은 외국에 대해서와 똑같이, 아니 이따금 외국에 대해서보다도 더욱 엄중하게 자국민에 대해서도 지켜졌기 때문이다.

(라) 홀로코스트* 부정론은 상상 이상으로 스펙트럼이 넓다. 지구화의 흐름을 타고 지구적 기억 공간이 대두하면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은 식민주의 제노사이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일본군 ‘위안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오스트레일리아의 ‘잃어버린 아이들’,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 제노사이드 부정론 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질량이 더 불안한 느낌도 있다. 실제로 부정론자들은 국경을 초월해 연대한다. 나는 이것을 ‘부정론자 인터내셔널’이라고 잠정적으로 부르려고 한다.

(뒷면에 계속)

부정론자 인터내셔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2006년 12월 이란의 테헤란에서 ‘홀로코스트 검토: 지구적 전망’ 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를 들 수 있다. 이란 외무부가 공식 후원한 이 행사에는 이란 대통령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와 외무장관 등 이란의 고위 각료가 거의 전부 모습을 드러냈고, 30개국에서 67명이 참가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아마디네자드의 개막연설이 끝나자, 미국의 데이비드 듀크가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홀로코스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서구의 분위기를 성토했다. 이슬람의 반유대주의 정서를 자극했다. 루이지애나주 출신으로 상원에도 출마한 바 있는 듀크는 미국의 극우 비밀결사단체 KKK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백인우월주의자였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이 인종주의에 기초한 반유대주의의 표현임을 감안하면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21세기 들어 중동지역을 자주 방문했는데,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를 처벌하는 서구의 범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홀로코스트: 나치스의 유대인 대학살

**제노사이드: 계획적 대량학살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터키(현 튀르키예)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

(마) ㉔ **기억의 연대**는 격동의 순간이 지나고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가 희미해졌을 때 비로소 발걸음을 땀다. 그런 점에서 기억의 연대는 지금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적 힘의 연대보다 훨씬 유연하다. 독일의 이슬람계 이주민들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기억의 연대를 맺는 것도 그 때문이다. 머리에 히잡을 두른 ‘아우슈비츠의 터키 아주머니’ 나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억의 터 안에서 상념에 잠긴 나미비아 유골반환운동 활동가들의 모습이 낯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1961년 이민이 시작된 이래 터키계 이주민들은 독일의 과거, 특히 홀로코스트의 기억에 개입하고 관계를 맺는 문제로 고민해왔다. 독일 사회가 그들에게 홀로코스트는 당신들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홀로코스트에 무관심한 반유대주의자들과 있다고 힐난했기 때문이다. 이 어이없는 이중 잣대에 이주민들은 분노했다. 독일의 이슬람계 이주민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기념 의례를 소비하는 수동적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기억을 만들고 퍼뜨리는 적극적 행위자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㉔ **이들의 목소리가 독일의 기억 경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터키계 독일 작가인 자페르 세노차크의 소설 『위험한 연대』(1998)는 주인공이자 화자인 터키계 독일인 무슬림의 개인적 기억 속에서 홀로코스트와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만나게 함으로써 기억의 민족적 경계를 흔들어버렸다. 카바레의 만담꾼 세르다르 소문주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수기를 독일의 쿠르드족 이주민의 수기로 각색하여 카바레 무대에 올림으로써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에 대한 기억을 일깨웠다. 독일로 망명한 터키 역사학자 타네르 악참은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에 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들을 출간했다.

3-1. 제시문 (가)의 논지와 제시문 (나)의 ㉔ **보편타당성을 활용하여** 제시문 (다)와 (라)를 비판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나)의 ㉑ **집단기억**, ㉒ **대항기억**과 제시문 (마)의 ㉔ **기억의 연대**를 통해 ㉔ **‘이들의 목소리가 독일의 기억 경관을 바꾸기 시작했다.’**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350자±20자) [25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 인문·사회계 -



• 출제 의도

문제 1은 최근 기술 영역에서 사용되는 ‘마찰 없음’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고 기술의 발전, 개인의 행복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다루지는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세계지리』, 『사회·문화』 교과목의 내용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타인과의 관계 맺음, 세계시민의 의미와 역할, 기술의 편리함이 갖는 양면성 등에 관하여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문제 1-1은 마찰 없음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기술 영역에서 사용되는 이 개념의 의미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이 자신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도록 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문 (라)의 타문화에 진입했을 때 겪는 인지 장애라는 충돌을 거부하는 상태를 찾아내도록 했다.

문제 1-2는 기술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편리함과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워져서 속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이방인에 대한 배척,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폐 증세 등과 같은 정신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문 (마)에서 제시된 고정관념이나 관습, 권위에서 벗어나 질문하고 탐사하며 탐구하는 삶을 찾아내도록 했다.

• 문항 해설

문제 1은 최근 기술 영역에서 사용되는 ‘마찰 없음’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기술의 발전, 개인의 행복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 1-1은 ‘마찰 없음’이라는 기술발전의 개념을 제시문 (다)를 통해 설명하고, 이 개념과 유사한 내용을 제시문 (라)에서 찾아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시문 (가)에서 ‘마찰 없음’이 기술의 복잡성이 완전히 감추어져 어떻게 작동되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임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근대의 정신인 개인의 행복 추구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신경이 쓰이는 상황 혹은 사람으로부터 도피’하는 부작용을 야기했음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제시문 (라)에서 다른 문화, 장소, 시간, 언어에 진입하고 타인과 만났을 때 겪는 마찰과 충돌, 장애, 장벽에서 벗어나 ‘인지 장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찾아내도록 했다.

문제 1-2는 마찰 없는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문제점을 '비싼 정신적 대가'로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은 후 해결방안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제시문 (나)에서 기술 발전, 다원주의, 복합성, 관계의 증가에 따라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워져 민주주의에서 '숙의의 과정이 줄어든다'는 점을 찾아내도록 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관계의 수와 빈도 등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찾게 했다. 제시문 (라)에서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이방인에 대한 배척,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폐 증세 등이 정신적 대가로 나타남을 찾게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위에 대해 굴복하거나 고정관념을 따르는 대신, 제시문 (마)에 나타난 인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탐사하고, 탐구하는 삶의 태도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서술하도록 했다.

제시문 (가)는 리처드 세넷의 『짓기와 거주하기』를 발췌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사용자 친화적 기술의 특징인 "마찰 없음"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 보여준다. 저자는 기술 발전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데, 여기에 점차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됨을 비판한다.

제시문 (나)는 하르트무트 로자의 『소외와 가속』를 발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사회의 빠른 발전과 변화 속도가 숙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과 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숙의의 과정은 다양한 상황과 의견을 검토하는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지만, 빠른 속도는 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의 일부이다. 제시문은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근대인들의 행복을 향한 추구가 불편함으로부터 도피, 불편함을 초래하는 타인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카를로스 모레노의 『도시에 살 권리』의 일부이다. 인간이 낯선 환경, 시간, 문화로 진입하게 되면 '인지 장애'의 충동을 겪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전 지구화,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충동을 겪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었다. 제시문은 이런 환경이 타인에 대한 두려움, 자기 정체성의 자폐 증세의 강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한다.

제시문 (마)는 마사 누스바움의 『인간성 수업』의 일부이다. 저자는 세계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편안함에서 망명하기, 인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가)의 ㉠ <u>마찰 없음(friction-free)</u>의 정확한 의미를 제시문 (가)와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제시문 (라)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의 ㉠ <u>마찰 없음(friction-free)</u>의 의미를 제시문 (가)를 통해 정확히 설명하였는가? • 제시문 (가)의 ㉠ <u>마찰 없음(friction-free)</u>의 의미를 제시문 (다)를 통해 정확히 설명하였는가? • 제시문 (라)에서 유사한 내용을 정확히 찾아 서술하였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개념: 마찰 없음,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 감정적 · 정신적 노동이 불필요, 행복, 불편함에서의 자유, 인지 장애라는 충돌이 사라짐</p> <p>- 예시 답안 참조</p>	15
1-2	<p>【제시문 (가)의 ㉡ <u>비싼 정신적 대가</u>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문 (나), (라)에서 찾고 (마)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의 ㉡ <u>비싼 정신적 대가</u>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에서 정확히 찾았는가? • 제시문 (가)의 ㉡ <u>비싼 정신적 대가</u>의 구체적인 내용을 (라)에서 정확히 찾았는가? •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개념: 기술 발전, 다원주의, 복합성, 관계의 증가, 비싼 정신적 대가, 타자의 전형성, 속의 민주주의, 사회적 포화 상태, 타자에 대한 두려움, 이방인 배척, 자폐 증세, 편안함에서의 망명, 다양성과 복잡성, 질문과 탐사, 탐구하는 태도</p> <p>- 예시 답안 참조</p>	15

• 예시 답안

1-1. ㉠은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을 설명하는 용어로, (가)에서는 왜?라는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감정적, 정신적 노동이 불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다)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불편함에서의 자유’, 답답하고 신경 쓰이는 것이 없는 상태로 설명된다. 또한 ㉠은 (라)의 다른 문화, 장소, 시간, 언어, 타인과 만났을 때 생기는 마찰, 장애, 장벽, 즉 ‘인지 장애’라는 충돌이 사라진 것과 유사하다. (237자)

1-2. ㉡은 (나)에서 기술 발전, 다원주의, 복합성, 관계의 증가 등에 따라 속의 과정이 줄어들고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로 표현된다. (라)에서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 이방인 배척,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폐 증세가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의 주장처럼 편안함에서 망명하기, 습관과 관습에서 벗어나기, 권위에 대한 불신, 고정관념을 넘어 인간의 다양성과 복잡성 들여다보기, 질문과 탐사, 탐구하는 태도 등을 가져야 한다. (258자)

• 출제 의도

문제 2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다각도로 성찰해 보도록 한 문제이다. 제시문 (다)의 노숙인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 문제, (라), (바)의 공유지의 비극, 기후 위기의 환경 문제 등 개인이 속한 사회공동체, 지구공동체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사회구조적 접근', '개인의 소유 권리 보장',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하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

문제 2-1은 C.W.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에 관한 제시문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노직의 소유 권리론에 관한 제시문을 통해 재분배를 위한 과세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관점을 대비하고, 노숙인 문제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의무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고자 출제하였다.

문제 2-2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와 사유화가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상호신뢰와 협력, 공동체의 필요와 합의, 관습과 규칙의 중요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기후 위기 문제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 문항 해설

문제 2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다각도로 성찰해 보도록 한 문제이다. 제시문 (다)의 노숙인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 문제, (라), (바)의 공유지의 비극, 기후 위기의 환경 문제 등 개인이 속한 사회공동체, 지구공동체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사회구조적 접근', '개인의 소유 권리 보장',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했다.

문제 2-1은 C.W.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에 관한 제시문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노직의 소유 권리론에 관한 제시문을 통해 재분배를 위한 과세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관점을 대비하고, 노숙인 문제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의무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는 문제이다.

문제 2-2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와 사유화가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공동체를 지켜내는 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상호신뢰와 협력, 공동체의 필요와 합의, 관습과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기후 위기 문제에 적용해보도록 한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개인의 문제를 역사적 변동, 경제적·정치적 제도와 연관하여 고찰하는 사회구조적 접근, 즉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밀즈의 저서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나)는 국가와 사회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강조한 노직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다)는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할을 성찰해 보기 위해 리베카 솔닛의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라)는 시장 실패의 사례인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딘의 논문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준구의 『경제학 원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마)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제3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관련된 내용으로 KBS 제작팀의 『사회적 자본』, 한겨레 뉴스 「미래&과학의 공유지 비극을 해결하는 '제3의길」, 오스트롬의 저서 『공유의 미래를 넘어』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바)는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과 국가의 행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자이 프라샤드가 엮은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난 꽃 자본주의 시대 기후 변화에 대한 단상』에서 발췌하였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논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제시문 (다)의 ㉠ 어느 한 시민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있는가? •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 어느 한 시민의 주장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역사적 변동, 경제적·정치적 제도, 사회구조적 접근, 사회학적 상상력, 재분배, 권리 침해, 사회적 의무</p> <p>- 예시 답안 참조</p>	15
2-2	<p>【제시문 (라)에서 ㉡ 지구 환경의 위험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찾고, (바)에 나타난 문제를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비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라)에서 ㉡ 지구 환경의 위험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찾았는가? • 제시문 (바)에 나타난 문제를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비판하였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경제적 유인, 부정적 외부효과, 정부규제, 소유권 확립, 상호신뢰, 협력, 공동체의 필요와 합의, 관습과 규칙, 사회적 자본, 기후 위기 문제</p> <p>- 예시 답안 참조</p>	15

• 예시 답안

2-1. (가)는 개인의 문제를 그 사회의 역사적 변동, 경제적·정치적 제도와 연관하여 고찰하는 사회구조적 접근, 즉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재분배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라 본다. ㉠은 노숙인의 처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의무에 반대한다. 따라서 ㉠의 주장에 대해 (가)는 노숙인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할 것이고, (나)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 동의할 것이다. (262자)

2-2. (라)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를 조절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 발생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정부 규제와 소유권 확립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마)는 상호신뢰와 협력, 공동체의 필요와 합의, 관습과 규칙 등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바)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 국가들이 파리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낮으며,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단일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60자)

• 출제 의도

문제 3은 역사 서술에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이다. 정복자가 찬탈한 집단기억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내고 기억의 보편타당성과 기억의 연대를 통해 역사적 진실과 마주하는 자세를 고민해보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 『통합사회』 교과목에서는 세계대전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고, 이러한 전쟁이 부과한 참상 못지않게 후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기억'의 문제는 민족주의적 경계를 넘어 보편성을 지닌 역사 인식과 서술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제 3-1은 죽은 자들의 의지와 작품을 찬탈하는 정복자의 역사편찬에 맞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편타당성이라는 의미에 기반하여 두 사례를 비판하도록 하였다.

문제 3-2는 집단기억과 대항기억의 개념을 통해 오늘날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기억의 연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였다. 독일에서 이슬람계 이주민들이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만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이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와 연계하여 기억경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었는지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 문항 해설

문제 3은 정복자가 전유한 역사서술에 맞서 죽은 자들의 기억과 기억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내용이다.

문제 3-1은 역사에서 기억하기의 필요성과 보편타당성에 관해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정복자가 왜곡한 역사와 이에 대항하기 위한 기억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지닌 기억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나치스 독일이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철저히 차단하여 강제수용소 비밀을 감춘 반인권적인 사례 (다)와 홀로코스트 부정론의 지구적 확산과 연대 속에서 인종차별적 행태를 보이는 부정론자 인터내셔널의 사례 (라)를 비판하도록 하였다.

문제 3-2는 제시문 (나)의 집단기억과 대항기억의 개념, (마)의 기억의 연대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억 경관을 바꾼 독일 사례 (마)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죽은 자들의 의지를 찬탈하는 역사편찬에 맞서 죽은 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카하시 데쓰야의 『기억의 에티카』에서 발췌하였으며, 저자의 논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어절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제시문 (나)는 거대 집단 내에서 기억의 형성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상이한 기억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한다. 집단기억은 주로 사건에 대한 지배적인 기억이며, 대항기억은 지배적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대항·투쟁하는 기억이다. 집단기억과 대항기억이 공론장에서 서로 투쟁하는 보편타당성을 상실한 기억이 사라져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찬승이 엮은 『제2차 세계대전과 집단기억』 가운데에서 발췌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제시문 (다)는 나치스 독일이 강제수용소의 정보를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철저히 차단하여 기억을 은폐하고자 한 반인권적 시도를 설명하고 있다. 다카하시 데쓰야의 『기억의 에티카』에서 발췌하였으며 부분 수정하였다.

제시문 (라)는 기억의 은폐·왜곡을 시도한 부정론자들의 확산과 연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까지도 홀로코스트 부정론자, 백인우월주의자 같은 집단이 인종차별적인 관점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준다. 임지현의 『기억전쟁』에서 발췌하였으며 부분 수정하였다.

제시문 (마)는 독일의 이슬람계 이주민들과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간 기억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연계하여 집단기억의 민족적 경계를 허물었다. 나아가 문화예술에서 특정 민족의 기억을 새롭게 일깨우거나 역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독일의 기억경관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임지현의 『기억전쟁』에서 발췌하였으며 부분 수정하였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가)의 논지와 (나)의 ㉠ 보편타당성을 활용하여 제시문 (다)와 (라)를 비판하고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의 논지를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나)의 ㉠ 보편타당성의 의미를 파악했는가? • 제시문 (가)의 논지와 제시문 (나)의 ㉠ 보편타당성을 활용하여, 제시문 (다)와 (라)의 현상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기억, 죽은 자들의 의지와 작품을 찬탈하는 다른 기억(해석, 이야기), 죽은 자들을 위한 기억(해석, 이야기), 보편타당성,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집단기억, 차단, 강제수용소의 비밀, 홀로코스트 부정론, 부정론자 인터내셔널, 인종주의</p> <p>- 예시 답안 참조</p>	15

3-2	<p>【제시문 (나)의 ㉠ 집단기억, ㉡ 대항기억과 제시문 (마)의 ㉢ 기억의 연대를 통해 ㉣ '이들의 목소리가 독일의 기억 경관을 바꾸기 시작했다.'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 ㉠ 집단기억, ㉡ 대항기억과 제시문 (마)의 ㉢ 기억의 연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 ㉠ 집단기억, ㉡ 대항기억, ㉢ 기억의 연대의 이해를 바탕으로 ㉣ '이들의 목소리가 독일의 기억 경관을 바꾸기 시작했다.'의 현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집단기억, 대항기억, 기억의 충돌(경쟁), 기억의 연대, 홀로코스트 기억,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기억의 민족적 경계, 기억 경관</p> <p>- 예시 답안 참조</p>	25
-----	--	----

• 예시 답안

3-1. (가)는 정복자의 역사편찬에 맞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억의 중요성을, ㉠은 국가와 민족을 넘어 존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말한다. (다)의 나치스 독일은 수용소의 정보를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그 존재를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반인권적이다. (라)의 홀로코스트 부정론의 지구적 확산과 연대는 인종차별적 정서를 자극한다. 따라서 죽은 자들의 의지와 기억을 찬탈한 (다)와 (라)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보편타당성을 결여했다. (249자)

3-2. 역사서술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상이한 기억들이 충돌하고 경쟁한다. ㉠은 대체로 지배적인 기억을, ㉡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기억을 말한다. 이 둘은 공론장에서 서로 투쟁한다. ㉢은 집단기억에 균열을 가하는 대항기억의 연대를 말한다. (마)는 기억의 연대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독일의 터키계 이주민들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적극적 행위자로서 대항기억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를 연계하여 집단기억의 민족적 경계를 허물었다. 나아가 문화예술에서 특정 민족의 기억을 새롭게 일깨우거나 역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 이처럼 ㉣은 독일의 지배적인 기억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357자)

**2023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촌 형제들은 공립학교를 다녔지만 나만이 유일하게 사립학교를 다녔다. 학교에서 나는 진리와 완벽함 그리고 빛의 세계 속에 있다. 다른 세계는 오류의 세계이며 그곳은 다른 아닌 공립학교이다(내게 ‘공립’이란 막연하게나마 ‘나쁜’이란 형용사와 동의어였다). 우리의 세계와 그들의 세계는 모든 점에서 구별된다. 우리는 공립의 냄새를 풍기는 ‘공동 식당’, ‘동무’, ‘선생님’ 대신 ‘기숙사 식당’, ‘나의 동료’, ‘마드무아젤’이라는 용어를 썼다. … (중략) … 나는 루앙의 기독교 학교 청년 축제에 참가했다. 우리는 늦은 밤 버스에서 내렸고 수녀님이 내가 사는 동네까지 학생을 데려다 주는 일을 맡았다. 나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구겨지고 얼룩덜룩한 속옷 바람으로 머리를 산발한 어머니가 나타났다. 수녀님과 학생들이 하던 이야기를 푹 멈췄다. 어머니가 어물어물 인사말을 건넸지만 아무도 답례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사립학교 세계의 시선으로 보았다. 우리의 진면목,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발각된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부끄러움의 표식으로 변했다. ㉠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내 부모의 직업, 궁핍한 그들의 생활, 노동자였던 그들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존재 양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다. 부끄러움은 내 삶의 방식이 되어 버렸다. 아니, 더는 인식조차 못했다. 부끄러움이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이다.

(나) 예술이 윤리적 의미를 갖는 순간, 미학적 취향은 사회적 주체들을 계급적으로 구분하며, 이것은 다시 고급 취향 대 대중 취향과 같은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든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자 대 피지배자의 권력 형식이다. 즉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사회적 구도 안에서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각 주체는 객관적 분류 체계 안에서 자신의 취향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높음 대 낮음의 형식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한편 문화 활동이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 **교육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는 누구나 감정적 융합, 인지행동, 해독 작업을 거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해독 능력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은 바로 교육의 산물이다. 교육 수준의 정도가 예술에 대한 고급 취향과 대중 취향을 구별하는 계기가 되며, 거꾸로 예술에 대한 취향이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예술에 대한 취향에는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전통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음식의 소비, 가구를 사들이는 취향, 패션 감각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감성의 형성 과정은 사회적 분류 체계로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강화시키고 사람들의 저항의식을 억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뒷면에 계속)

(다) 이미 수립된 질서가 지배 관계, 권리와 특권, 부당행위와 더불어 쉽사리 이어지고 있고,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주 빈번하게 용납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피해자에게도 감지되지 않는 부드러운 폭력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폭력'이라 부르는 것과 상통한다. 이 폭력은 대부분 소통과 지각,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몰지각, 인식,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정처럼 순수하게 상징적인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상징적 폭력은 물리력에 의존하지 않고 피지배자들이 사회적 위계를 정당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함으로써 복종하도록 이끄는 지배 기제다. 이를 통해 지배층은 자신의 문화를 피지배층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지만, 피지배층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복종하고 불평등을 사회적인 의미 관계로서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게 된다. 놀라울 정도로 일상적인 이 사회적 관계는 지배 논리를 파악하는 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지배 논리는 지배하는 자는 물론 지배되는 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원칙을 명목으로 행해진다.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 역시 상징적 폭력의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어를 너무 쉽게 당연히 여기고 사용하며 그 속의 폭력성을 간과한다.

(라) 남성 중심적인 원리는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이 원리에 근거를 부여하려는 억지스러운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성과 여성을 근본적으로 교차점이 없는 두 집단으로 보는 견해만 수용하고,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일치하는 정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된 차이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심리학자들도 있다. 한층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남성이 더 공격적이고 여성이 더 소심하다'와 같은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에 갖든 노모스(법, 관례, 제도)에 끌려 다닌다는 점이다.

(마) 능력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운동장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1990년대~2000년대 미국의 주류 정당들은 불평등, 임금 정제,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해답으로 교육을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을 중시하는 능력주의 이상(理想)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 이 약속은 건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자이자 시민으로서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능력주의 체제는 상류층이 그 지위를 대물림해 줄 힘만 키워주고 말았다.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세습귀족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

(바) 미국의 사회학자 미키 맥키는 자기계발서들이 현재의 희생을 통한 미래의 성공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마치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추한 'Before'를 벗어나 화려한 'After'로 변신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변신문화'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오늘의 한국 이십대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아직 무기력한 'Before' 상태일 뿐이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화려한 'After' 상태가 될 것이라 믿고,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기계발에 매진한다. 그 목표가 실제로 이뤄지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발인원의 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자기계발은 모두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러한 이면에는 이십대들이 변신문화에 매몰되어 자기계발을 하도록 유도한 우리 사회의 지배층에도 책임이 있다.

1-1. 제시문 (가)의 주인공이 ㉠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한 이유를 제시문 (나)의 ㉡ 교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0점]

1-2. 제시문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 (마), (바)를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자율성을 확장시켜줄 것이다. 작게는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개인의 일정을 관리해 주고, 크게는 인류가 환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간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막힘없이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이 높아질수록 인간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공받는다. 인공지능이라는 지적인 안내자는 불확실한 경제 및 정치 상황에서 인간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힘을 제공한다. 인간은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강력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갖게 된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세계 시민들은 더 나은 정보와 조언을 받게 되어, 정책은 더 현명해지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고갈되고 있는 환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물론 새로운 환경 자원을 창출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빈곤 상태에 있는 세계 시민의 고통을 덜어 주어 인류 전체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등 역사 발전의 동력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과 상상력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도록 ‘초지능 기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소유욕이 황량한 자연을 개척하게 만든 원동력이기 때문에 재산 축적의 욕구가 증진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는 선조들이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는 욕구였고, 인간 욕망의 증식이 지구 전체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거친 수풀을 ㉠ **비옥한 평원**으로 만들었고, 넘나들 수 없을 정도로 황량했던 바다를 인간의 생존에 유익한 새로운 재원으로 만들어 냈다고 보았다. 또한 대지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富)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스미스의 주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즉 개개인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더욱 나은 삶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역사를 이끈 주문(呪文)은 ‘지능은 뛰어날수록 좋다’는 것이었다. 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확신한다. 인류가 정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능 자체를 이해해온 방식 때문에 그렇다. 기계의 지능은 ‘기계의 행동이 기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기계는 지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과 달리 기계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성할 목적을 우리가 부여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최적화된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에 목적을 부여한 뒤, 기계를 작동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는 목적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목적이 되도록 확실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기계에 우리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되라는 잘못된 목적을 부여한다면 기계는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우리는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목적을 부여받은 ‘그리 지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더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 초인적 지능을 향한 행군을 멈출 수는 없어 보이지만, 그 성공은 인류의 파멸이 될 수도 있다.

(라) 우리는 방에 들어서면서 벤살렘 왕국의 관습에 따라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우리가 다가서자 그가 일어나더니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맨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축복하는 자세였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솔로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행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자연과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배양토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넓은 과수원과 공원도 다양하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경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나무와 약초의 성장에 적합한 토양을 연구할 목적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새들이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희귀한 동물을 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들을 해부하고 실험해서 인간의 육체의 비밀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더욱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원래보다 크게 만들거나 작게

(뒷면에 계속)

만들 뿐만 아니라 성장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요행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종의 동물을 교배시키면 어떠한 종이 나타나는지 알고서 실험한 결과이니까요. ... (중략) ... 이제 ㉠ **솔로몬 학술원 회원**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료들의 실험과 연구 결과로부터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며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용성을 찾아내려고 고심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참금 지급자’나 ‘은혜 수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 마르틴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이 단지 수단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을 인간과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탈은폐’라 칭한다. 탈은폐는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냄’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포이에시스적 탈은폐와 현대 기술적 탈은폐를 구분한다. 포이에시스적 탈은폐는 존재를 왜곡하지 않고 대상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대로 자연의 고유성을 파괴하지 않으며 오히려 존재의 진리를 드러낼 가능성을 열어준다. 반면 현대 기술적 탈은폐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의 고유한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다. 현대 기술에 의해 자연은 고정된 하나의 기능으로만 탈은폐된다. 지구는 채탄장으로, 대지는 채광장으로, 농토는 식량 공급원으로 탈은폐되는 것이다. 광석 채굴의 역사는 유구하다. 그러나 대지가 대지로 남아 있으면서 광석을 부여하는 경우와 대지가 광석 공급의 기능으로만 환원되는 경우는 엄격히 구분된다. 전자는 대지가 고유함을 보존하는 경우요, 후자는 대지가 현대 기술에 의해 파괴되어 광석 공급원으로만 탈은폐된 경우다. 전근대적 농부는 식물의 성장 비밀에 개입하지 않았다. 식물의 성장을 돌보고 보호할 뿐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농부는 농토를 다그쳐 더 많은 식량 생산을 요구한다. 농토는 더 이상 농토로서 남지 않고 식량 공급원으로 탈은폐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 또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며 현대 기술의 의지에 응답하는 부품으로 전락한다. 현대 기술적 탈은폐가 극도로 확장된 결과, 자연은 황무지로 변모하며 인간의 가장 내적인 본질도 상실된다.

(바) 상호주체적 서정성은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마찬가지로 주체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우리 시대 지구에 편재한 수많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체가 넘나들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호주체적 서정성을 무시하며 자연을 대해 왔다. 그 결과 자연은 주체가 아닌 인간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적 객체로 전락해 버렸다. 상호주체적 서정성은 관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발전되어야 하며, 실정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천성산 터널공사 금지가처분 신청 건에서 보듯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이유는 사건의 신청인인 ‘꼬리치레 도롱뇽’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판결은 현행법과 그 바탕에 깔린 법철학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 주었다.

2-1. 제시문 (나)와 (다)의 논지를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가)를 평가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마)와 (바)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 **비옥한 평원**과 제시문 (라)의 ㉡ **솔로몬 학술원 회원**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디어 기술이 우리를 점점 더 일차원적으로, 심지어 전체주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디어가 메시지가 되어 감에 따라, 미디어는 우리를 더욱 더 평범하게, 획일적으로, 그리고 생각없이 만든다. 히틀러의 나치스, 스탈린의 공산주의자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가 보여준 ‘절대악’의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기술 사회 속에서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타자에 대한 사유는 없고 기능에만 충실한 인간으로 어떻게 전락하게 될지 그 정도와 폭을 알 수 없다. 우리가 미디어상의 언어와 사용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어의 무능은 타자에 대한 사유의 무능을 낳는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시작될,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악(惡)’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숙고와 설득, 합의의 언어가 필요하다.

(나) 미국의 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구분한다. 원초적 혐오는 배설물, 콧물, 시체, 썩은 고기, 구더기, 바퀴벌레 등에 접촉하거나 감염 위험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거나 거리를 두려는 직관적 반응이다. 이런 반응을 특정 집단에 투사하는 것이 투사적 혐오다. 이를테면 유대인, 동성애자 등 특정 집단이 오염원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덮어씌우는 것이다. 19세기 유럽인들은 유대인이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를 뿜어낸다고 근거 없이 믿었다. 집 옆 도축장에서 악취가 나고 개울을 오염시킨다면 그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도축업자를 백정이라며 차별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원초적 혐오는 법이 어느 정도 보호해 주어야 할 감정이지만, 투사적 혐오는 그렇지 않다. 동성애자를 보며 구토감이 난다고 혐오 표현을 고취·선동하여 이들에 대한 배제, 차별, 폭력 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다) 기관총과 같은 신기술은 1차 세계 대전에서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다. 기관총은 군인들을 참호로 몰아넣어 영국군이나 독일군은 자신들의 참호 어딘가에 있어야 했다. 그 외 지역은 양 진영의 중간지대다. 그 중간지대에서는 총을 맞고, 죽는다. 반대쪽으로 참호를 뛰어나가면 같은 편의 총에 맞는다. 오늘날의 기관총은 특정 집단의 소셜 미디어다. 서로를 마구 쏘아댄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쏘아댄다. 총알은 게시글, 트윗, 사진, 댓글이다. 결국 두 진영이 생기고 이쪽 아니면 저쪽에 들어야 한다. 서로 간에 중간은 없다.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볼 곳이 없다. ㉠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매우 위협하다.

(라) 미얀마리즈 마웅마웅탄 씨는/ 아침에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어젯밤 마웅마웅탄 씨는 잠자리에 누워/ ... (중략) ... / 집을 그리워하다 곤히 잠들었는지/ 공장장이 내일도 주먹질할까/ 공장에서 언제 쫓겨날까/ 일손이 서툰 처지를 걱정하며 뒤적였는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알려고 않았다// 잠시 마웅마웅탄 씨를 알았던 동료들 중/ 한 베트남미즈는 봉급을 못 받아 빌려 쓰더라고 했고/ 한 스리랑간은 불법체류자 신고 위협을 받았더라고 했고/ 한 네팔리는 한 달 연이어 야근했다더라고 했다// 미얀마리즈 마웅마웅탄 씨에게/ 사인 불명이라는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마) 사람이라는 말은 사회 안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 **사회적 성원권**을 얻기 위한 투쟁은 사람이 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사회와 국민국가를 동일시하고, 사회적 성원권과 국민 자격을 혼동하는 이들에게는 이 명제가 지나친 비약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렇게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한국인인 내가 일본에 간다고 해서 곧바로 일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외국인으로서 잠시 그곳에 머무를 뿐이다. 일본인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으로 대접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나를 외국인으로서 환대하는 것이지, 나에게 사회적 성원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 (중략) ...

사회적 성원권은 소속감과 다르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별로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데도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외국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에게서 볼 수 있다), 그 반대로 자기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뒷면에 계속)

생각하지만, 남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유럽의 동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운명을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사회적 성원권은 또한 법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도 위태로워지기 쉽지만, 하나가 반드시 다른 하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법적으로 카스트가 폐지되었는데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불가촉천민들이 좋은 예이다). 한편 우리는 사회적 성원권의 부여가 문화적 자격을 요구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지식이나 상호작용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실제로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할 뿐이지, 그에게 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적 성원권을 요구하는 데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사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바) 악셀 호네프트는 무시에 대한 경험이 한 인격체 전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보았다. 무시는 인정의 거부나 박탈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긍정적 자기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무시를 통해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호네프트는 손상된 세 가지 자기 관계에 따라 무시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무시는 학대나 폭행이다. 두 번째 무시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무시는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사회적 가치의 부정이다. 사회적 가치의 부정은 공동체 안에서 그 가치를 부정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여기는 자기 가치조차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없게 된다.

㉠ **인정투쟁**은 훼손된 인정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일어난다. 인정관계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내가 도덕적으로 훼손당함으로써 느끼는 무시감은 내 자아의 실현을 방해하는 심리상태이다.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벗어나 인정상태를 복구하고 상대와 내가 상호인정하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인정투쟁이 발생한다. 인정관계의 경험을 통해 주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사랑, 권리 부여, 사회적 연대는 모두 인정의 형식이다. 사랑의 인정을 통해 구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지닌 존재로서 자기 믿음을 갖는다. 권리 부여의 인정을 통해 이성적,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자기 존중을 갖는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공동체에 자신의 능력과 특성으로 기여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로서 자기 가치 부여를 형성한다. 인정투쟁으로 획득해야 하는 것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내 인격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상대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투쟁은 개인이 서로 도덕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상호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을 비판하시오. (20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나)와 (라)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제시문 (마)의 ㉡ 사회적 성원권과 제시문 (바)의 ㉢ 인정 투쟁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 인문·사회계 -



• 출제 의도

문제 1은 교육과 언어가 사회 구조와 문화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시문에 따르면 교육은 미학적 취향을 기반으로 한 사회 계층화 현상을 강화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또한 상징적 폭력은 지배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제시문을 통하여 교육의 역할과 상징적 폭력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이를 문학 작품의 한 장면과 다양한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서술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응시자들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일상언어와 우리가 거쳐 온 학교 교육이 한편으로는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의 수단과 타인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을 고민해 보도록 하였다.

문제1-1은 교육 수준에 따라 예술의 취향이 구별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사회적 계급이 이분법적으로 인식된다는 제시문을 통하여 교육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문제1-2는 상징적 경로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상징적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언어라는 상징 기호를 통해 드러나는 상징적 폭력을 남성 중심적인 원리, 능력주의 이상, 변신 문화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문항 해설

문제 1은 교육과 상징적 폭력이 개인의 인식 체계 및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내용이다. 문제 1-1은 교육이 사회적 분류 체계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주장을 문학작품을 통해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시문 (나)를 통해 미학적 취향이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고, 이 과정에서 교육이 권력 형식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분류 체계를 사람들의 저항의식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논지를 먼저 분석해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주인공의 감정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나)는 교육 철학에 대한 개념으로 고교 생활과 윤리 과목의 성취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라는 사회적 개념을 문학 작품에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 1-2는 상징적 경로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상징적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언어라는 상징 기호를 통해 드러나는 상징적 폭력을 남성 중심적인 원리, 능력주의 이상, 변신 문화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다)는 상징적 폭력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라)는 남성 중심의 원리의 객관화 과정에서 일상

적 용어가 사용되는 사례, (마)는 능력주의 이상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용어가 사용되는 사례, (바)는 자기계발을 통한 성공 신화, 즉 변신문화에 매몰되는 현상에 일상적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다)의 개념을 이용하여 비판하도록 하고 있다. (다)의 개념은 상징적 폭력과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것으로 고교의 사회·문화 과목의 학습 내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시문 (가)는 아니 에르노의 소설 『부끄러움』의 일부이다. 제시문은 주인공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높은 세계와 낮은 세계로 양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습해 왔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양식이 사립학교의 세계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존재가 부끄러운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예술이 윤리적 의미를 갖는 순간, 생활양식을 포함한 취향을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로 만들고 사회 주체들 역시 이러한 체계 안에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예술에 대한 해독능력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이분법적 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상징적 폭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상징적 폭력은 지배층이 자신의 문화를 상징적인 경로를 통해 피지배층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피지배층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제시문은 이러한 상징적 폭력이 일상적 언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라)는 ‘남성이 더 공격적이고 여성이 더 소심하다’는 등 일상적 언어에 깃든 폭력성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 남성 중심적인 원리가 수용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언어를 통해 능력주의 이상이 전달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변신문화라는 사회 현상을 통해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언어를 통해 자기희생적인 자기계발에 몰리는 이십대들을 묘사하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나)에 제시된 교육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주인공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의 교육의 역할을 이해하였는가? • 제시문 (가)의 주인공의 감정을 (나)의 교육의 역할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어 및 핵심 개념 : 교육을 통한 사회구조의 이분법적 구분, 계급 구분(권력형식), 저항의식 억압 - 예시 답안 참조 	
1-2	<p>【제시문 (다)의 상징적 폭력의 개념을 이용하여 제시문 (라), (마), (바)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다)의 상징적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였는가? • 제시문 (라), (마), (바)에 나타난 상징적 폭력의 수단과 지배논리를 서술하였는가? •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라), (마), (바)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어 및 핵심 개념 : 상징적 폭력, 일상적 언어, 남성 중심적인 원리, 능력주의 이상, 변신문화, 자기계발 - 예시 답안 참조 	20

• 예시 답안

1-1 (나)에서 교육은 미학적 취향이 권력 형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분류체계로 작동하며 사회적 지배를 강화하고 저항의식을 억압하는 지배계급의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 (가)의 주인공은 교육을 통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궁핍한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서의 존재 양식을 인식하게 되어 부끄러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201자)

1-2 (다)는 상징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 없이 사회적 위계를 무의식적으로 정당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지배 기제이며 일상적 언어 역시 상징적 폭력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는 ‘남성이 더 공격적이고 여성이 더 소심하다’는 언어를 통해 남성 중심적인 원리가 수용되는 모습을, (마)는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능력주의 이상에 빠진 모습을, (바)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변신문화에 매몰되어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이십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언어에 내포된 지배 논리와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 (311자)

• 출제 의도

문제 2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도구적 이성과 과도한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출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철학적, 문학적 사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제시문과 문제를 제시하였다.

문제 2-1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을 확장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초지능 기계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공지능 낙관론에 대해,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기계의 지능과 목적에 대한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인공지능에 부여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상반된 입장에서 각각 평가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고자 하였다.

문제 2-2는 하이데거의 현대 기술적 탈은폐, 인간이 자연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호주체적 서정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대 과학 기술의 폐해를 비판하고, 현대 과학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고민해보도록 하였다.

• 문항 해설

문제 2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도구적 이성과 과도한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하였다.

문제 2-1은 인간 욕망의 증진을 통한 기술 발전이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시문 (나)를 통해 제시되어 있는 인간 욕망 증대를 통한 자연의 개척이 바람직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가 효과적으로 분배될 것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동의하여, 개개인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 혁신의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더욱 나은 삶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제시문 (다)의 내용, 즉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에 대한 오늘날의 관점은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가질 경우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할 수 있다는 논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기술발전에 대해서 긍정하는 제시문 (나), 맹목적으로 기술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관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제시문 (가)의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나)의 관점에서 (가)를 평가하면, 인간의 욕망에 따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인간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다)의 관점에서 (가)를 평가하면 (가)는 기계 지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올바른 목적 부여 없이 인공지능의 높은 지적 능력만을 추구할 경우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 2-2는 현대 기술 발달이 인간 사유와 자연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제시문 (마)에서는 현대 기술 발전에 대한 마르틴 하이데거의 주장, 즉 현대 기술이 자연을 하나의 고정된 기능만을 갖도록 탈은폐하여, 자연은 고유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논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시문 (바)의 내용, 인간이 상호주체적 서정성을 실천하여 자연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논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제시문 (나)의 ㉠ 비옥한 평원과 제시문 (라)의 ㉡ 솔로몬 학술회원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관한 스튜어트 러셀의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간지능을 만들 것인가』와 김진석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줄 것이며, 인류 전체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등 역사 발전의 동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을 압도하는 초지능 기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엄정식의 「과학기술과 생태계 파괴」(『과학과 기술』)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은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인간 욕망 증대를 통한 자연의 개척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그리고 개개인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더욱 나은 삶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스튜어트 러셀의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간지능을 만들 것인가』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며,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된 이해라는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소설 『새로운 아틀란티스』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벤살렘 왕국의 솔로몬 학회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솔로몬 학회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고 인간의 목적에 맞게 자연과 사물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기술과 전향』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하이데거의 논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을 인간과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고 이를 '탈은폐'라고 하고 있다. 탈은폐에는 포이에스적 탈은폐와 현대 기술적 탈은폐가 있으며, 현대 기술적 탈은폐가 극도로 확장된 결과, 자연은 황무지로 변모하여 인간의 가장 내적인 본질도 상실된다고 본다.

제시문 (바)는 박현수의 『시론』과 박현수의 「서정시 이론의 새로운 고찰」(『우리말글』 제40집)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마찬가지로 주체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상호주체적 서정성이라고 하며, 이것이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까지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기술발전에 대해서 긍정하는 제시문 (나), 맹목적인 기술발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제시문 (다)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제시문 (가)의 입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를 통해 나타난 계몽주의가 안고 있는 인간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관점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 제시문 (다)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 통제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인공지능, 자율성, 초지능, 인간의 욕망, 보이지 않는 손, 새로운 과학 기술, 이익, 해악</p> <p>- 예시답안 참조</p>	15
2-2	<p>【제시문 (마)와 (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 비옥한 평원과 제시문 (라)의 ㉡ 솔로몬 학술원 회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마)의 탈은폐 개념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의 탈은폐 개념을 통해 ㉠ 비옥한 평원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의 탈은폐 개념을 통해 ㉡ 솔로몬 학술원 회원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바)의 상호주체적 서정성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바)의 상호주체적 서정성 개념을 통해 ㉠ 비옥한 평원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바)의 상호주체적 서정성 개념을 통해 ㉡ 솔로몬 학술원 회원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현대 기술적 탈은폐, 상호주체적 서정성, 도구적 객체, 인간의 욕구, 주체성, 고유성, 기술의 부품</p> <p>- 예시답안 참조</p>	20

• 예시 답안

2-1. (나)는 인간의 욕구가 기술 발전을 촉진해 자연을 유익하게 바꾼다고 보고, 이를 통해 증진된 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는 인간의 욕구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발전했고, 인류의 이익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주장이다. (다)는 인공지능에게 인간보다 지적인 존재가 되라는 목적을 부여하면 인간에게 해악이 될 것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는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기반한 위험한 주장이다. (256자)

2-2. (마)는 자연의 고유성을 파괴하지 않는 포이에시스적 탈은폐와 자연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현대 기술적 탈은폐를 구분해 설명한다. (마)의 입장에서 비옥한 평원은 현대 기술적 탈은폐된 자연을 의미하고 솔로몬 학술원 회원은 자연에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의 부품으로 전락해 내적 본질을 상실한 인간을 의미한다. (바)는 자연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상호주체적 서정성을 강조한다. (바)의 입장에서 비옥한 평원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적 객체로 전락한 자연을 의미하고 솔로몬 학술원 회원은 상호주체성 서정성을 무시하여 자연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307자)

• 출제 의도

문제 3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차별과 혐오, 현대에 와서 새로 나타난 미디어 상의 갈등 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이를테면 특정 집단에 대한 투사적 혐오, 타자를 존중하지 않는 언어 사용이 초래한 의견의 양극화,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타자를 존중/배려하는 언어 사용, '사회적 성원권'의 의미 고찰, 그리고 '인정투쟁'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문제 3-1은 한나 아렌트의 '언어의 무능은 사유의 무능을 낳는다'에 담긴 의미를 통해 '타자에 대한 배려'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마사 누스바움의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의 구분을 통해 혐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최근 더 심화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타자에 대한 존중 없는 언어 사용이 초래한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문제 3-2는 '사회적 성원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민국가에 고정된 시각을 환기하고 누구든 무시당하지 않고 상대와 상호인정하는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인정투쟁'의 관점을 통해, 과거부터 지속된 '투사적 혐오'의 메커니즘을 보여 주는 여러 문제 상황과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 상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 문항 해설

문제 3은 제시문 (나), (다), (라)에서 각각 보여주는 투사적 혐오, 소셜미디어 상에서 의견의 양극화,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같은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에 대해 '타자에 대한 존중', '사회적 성원권'과 '인정투쟁'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문제이다.

문제 3-1은 제시문 (가)의 한나 아렌트의 '언어의 무능은 사유의 무능을 낳는다'에 담긴 의미를 통해 '타자에 대한 배려'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나)의 마사 누스바움의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의 구분을 통해 혐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시문 (다)의 ㉠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된 상황' 즉 소셜미디어 상에서 타자에 대한 존중 없이 의견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을 비판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문제 3-2는 제시문 (나)의 '투사적 혐오'의 메커니즘을 보여 주는 여러 문제 상황과 제시문 (라)의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한국사회의 문제 상황을 (마)의 ㉡ 사회적 성원권과 제시문 (바)의 악셀 호네프의 ㉢ 인정투쟁 개념으로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발췌하여 미디어가 우리를 타자에 대한 사유 없이 기능에만 충실한 인간으로 전락시켜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 수 있으므로 속고와 설득,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나)는 타자를 투사적 혐오로 배제,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혐오, 선을 넘다」라는 기사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다)는 특정 집단의 소셜 미디어에서 의견의 양극화를 조장하여, 다양한 개진 가능성을 막는 폐해가 있다는 내용의 TED강의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 (라)는 하종오의 「돌연사」라는 시로,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며 폭력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죽음의 이유마저 은폐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제시문이다.

제시문 (마)는 김현경의 『사람, 장소, 환대』에서 법적 지위와 구분되는 사회적 성원권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을 발췌한 제시문이다. 사회적 성원권은 어떤 자격도 필요 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임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제시문에서는 인정투쟁은 누구나 무시당하지 않고,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상호인정하기 위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의견의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비판하고 있는가?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미디어, 절대악, 전체주의 사회, 언어의 무능, 사유의 무능, 원초적 혐오, 투사적 혐오, 양 진영, 권리, 양극화</p> <p>- 예시 답안 참조</p>	15
3-2	<p>【제시문 (나)와 (라)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 (마)의 ㉡ 사회적 성원권과 (바)의 ㉢ 인정투쟁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나)와 (라)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가? 제시문 (마)의 ㉡ 사회적 성원권과 (바)의 ㉢ 인정투쟁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와 (라)의 문제 상황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0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 핵심어 및 핵심 개념: 원초적 혐오, 투사적 혐오, 이주노동자, 사회적 성원권, 소속감, 법적 지위, 문화적 자격, 인정투쟁, 무시, 인정관계,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 정체성, 존엄성
 - 예시 답안 참조

• 예시 답안

3-1 (가)는 타자에 대한 사유 없이 기능에만 충실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미디어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고 (나)는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구분하여 투사적 혐오를 근거로 타자를 차별할 권리는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의 ㉠은 특정 집단의 소셜미디어에서 타자에 대한 존중 없이 투사적 혐오를 행사하여 속고와 설득, 합의의 언어를 상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8자)

3-2 (나)는 유대인, 도축업자, 동성애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투사적 혐오를 고취·선동하여 배제, 차별,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 상황이다. (라)는 이주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며 폭력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죽음의 이유마저 무시하는 것이 문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사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마)의 ㉡ 사회적 성원권과, 누군가 무시를 당했을 때 모두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상호인정하는 상태를 재건하려는 것이 정당하다는 (바)의 ㉢ 인정투쟁을 통해 누구도 무시나 혐오를 당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350자)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노자(老子)는 ㉠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런히 한다[民莫之令而自均]**.”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시각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 혹은 기업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노자 정치철학의 문제는 ‘거대 국가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핵심은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 단순히 억압 구조를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계층적 관료 기구를 만들게 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충위를 이루게 되면서 관리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노자는 거대국가에 반대하였는데[小國寡民], 이는 조직을 작은 단위로 운영해야 한다는 관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나) 비트코인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보유되는 화폐로서 인쇄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존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 화폐는 국가가 그 가치를 결정하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자들끼리 자율적으로 가치를 정하고 효율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와는 다르다. 기존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발행 주체가 없어도 컴퓨터를 이용해 블록의 이름을 16진수로 표시한 64자리의 해시함수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지급하도록 보장되어 있다.

(다)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 경제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유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유란 강제에 예속되지 않는 상태로, 정부는 이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가능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할을 법을 통한 자유의 보호 정도로 한정하였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의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앙 계획은 비효율적이고 퇴행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를 파괴하고 결국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끈다고 보았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중앙 계획 당국은 계획의 확대를 통해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게 되지만, 중앙 계획이라는 목표에 대해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를 충분히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 계획이 실시되면 사회적으로 반발이 확산되기 마련이며 이를 제압하려면 폭력적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이에크는 중앙 계획이 지니는 비효율성과 폭력성을 지적하며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시장 옹호론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시장 질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고 그 어떤 의도된 계획보다도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뒷면에 계속)

(라) 시장 근본주의*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활동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계약에 기초한 거래관계로 이해하고 화폐라는 단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과 경제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시장 이데올로기가 침투할 경우 사회 전반에 비도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시장 근본주의는 너무도 강력해서, 이에 저항하는 어떠한 정치적 세력도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낙인이 찍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이다. 오히려 시장 근본주의야말로 비논리적이고 단순한 것이다. 도덕과 윤리라는 커다란 문제를 제쳐두고 경제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시장 근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하게 경제적이고 금융적인 영역에서 시장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엄청난 무질서 상태가 빚어지며 결국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 근본주의: 자유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나 태도.

(마) 네덜란드는 이미 17세기 초에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호황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인들은 실물 상품은 물론이고 주식, 외환, 신용대출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에 상인들은 시장에서 다른 투자 대상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내 눈을 돌린 것이 튜립이었다. 희귀한 튜립은 무척 비싸서 튜립의 보유 여부가 부의 척도로 간주되어 부유층이 앞 다투어 희귀종을 찾았다. 이에 네덜란드 전역에서 튜립 확보 전쟁이 일어났다. 게다가 튜립 재배는 좁은 집에서 사는 네덜란드인들의 취향에도 딱 맞았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핑 대신 닭이라는 생각으로 튜립 재배에 모든 것을 걸었다.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634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튜립 뿌리 거래에 참여했다. 튜립 뿌리는 양산이 어렵기 때문에 개수가 한정되었고, 수요가 몰리자 가격이 급등했다. 튜립 뿌리를 사면 때돈을 번다는 소문이 돌면서 영주는 물론 장인, 농민들도 투기에 참여했다. 희귀한 튜립 뿌리 중 어떤 것은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1637년 2월 첫째 화요일, 하를렘발 빅뱅(big bang)이 터졌다. 사람들은 이제 튜립 뿌리의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튜립 뿌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아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자 순식간에 거품이 꺼졌다. 4개월 만에 최고점에서 95% 내지 99%가 빠졌다. 어음은 부도나고 3,000여 명의 채무자들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

1-1. 제시문 (가)의 ㉠과 제시문 (나)의 ㉡의 의미를 제시문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250자 ±20자) [15점]

1-2. 제시문 (라)와 (마)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나저나, 아까 그쪽에서 구매팀 강은상이 얘기했지?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솔직히 그게 부럽나? 그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지? 알고 보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 (중략) … 강은상이 그 나이에 수십억을 벌었다? 그게 요즘 시대로 치면 소년등과*나 마찬가지로인 거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 어린 여자애가 노력도 없이 그렇게 큰돈을 쥐었다는 게, 그 시기를 다 지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영 좋아 보이지만은 않거든. 그 친구, 조심해야 될 거야. 유희도 많을 거고, 사기 치려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 나이 때에 맞게 겪어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개가 몇살이래? 서른? 하이고…… 한창 일 배우고, 인맥 쌓고, 경험 쌓고 그런 거 해야 할 나이에, 큰일이다 정말. 아참, 다해씨! 아, 뭘 그렇게 깜짝 놀라? 다해씨가 강은상이라 친하지 않아? 맨날 점심 따로 먹겠다고 하고 나가서 개랑 먹더만. 둘이 친구지? 그래, 친구로서 조언을 잘해주란 말이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충고를 꼭 해줘. 요즘 애들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내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 다해씨,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마에 손등을 붙이고…… 새색시야? 왜 갑자기 나한테 절하는 거야?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에이, 뭘 그렇게까지. 내가 인생 선배로서 이 정도 애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야, 누가 벌써 이렇게 먹인 거야? 저기, 다해씨! 정다해! 뭐야? 애 지금 절한 채로 잠든 거야?

*소년등과(少年登科):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일.

(나)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헌재 2009. 5. 28. 2006헌마618)의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교육과 행정언어를 통하여 표준어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공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각 지방의 지역어로 집필하거나, 공문서를 각 지역의 지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일한 언어 공동체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규율 내용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이 판결에 대한 소수의견 중 일부이다.

서울 이외 지방의 각 ㉠ **지역어**도 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문화적·정서적인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누대에 걸쳐 전승된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각 지역의 지역어는 해당 지역어 사용자들뿐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정서와 감정표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과 특히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지방방언에 의해서도 친근감을 느끼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어 모두를 표준어의 범위에서 배제해 해당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표준어 선정의 합리적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다) ㉡ **나**는 중학교 때는 일제의 잔재로 여겨지던 교복을 입었던 마지막 세대였고, 대학시절에는 최루탄과 물대포를 맞으며 민주화를 위해 맞섰던 학생운동의 마지막 세대였다. 대학시절 내내 선배들로부터는 ‘보릿고개’를 모르는 철부지로 불렸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난데없이 소비와 향락문화의 아이콘이라는 X세대가 등장해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꼈다. … (중략) …

고작 몇 살 차이일 뿐인데, 386세대라 불리는 선배들과 X세대라 불리는 후배들 사이에 끼여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도 있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산업 발달에는 분명 우리의 공도 있는데 알아주는 이는 없었으니까. 윗세대들은 우리를 가리켜 자신들이 바친 청춘의 ‘수혜자’라며 자신들과 구분하여 생각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암울해 보이는 자신들의 미래가 기성세대 때문이라며, 우리를 윗세대와 한데 묶어 원망한다. … (중략) … 오랜 친구들과 때때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신세 한탄이 늘어지곤 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힘에 부치는 경험은 우리 세대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도

(뒷면에 계속)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길 들어주고 그들과 더불어 공존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 하버마스는 수많은 의견이 갈등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대화와 타협, 담론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담론이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란 상호 간의 논증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하버마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파악하였다.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만으로는 규범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버마스는 그의 『담론 윤리의 해명』에서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 1820년대 그린란드 북서쪽의 이누이트 마을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 노인들이 폐죽음을 당했다. 당시 그 마을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이 만든 물건까지 모두 무덤에 넣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을 휩쓴 돌림병 때문에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노인들은 물론 그들이 만든 물건까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마을에는 그동안 노인들이 만들어 왔던 카누, 카약, 작살, 화살 등의 제작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생존에 크나큰 위협이었고, 자칫하면 마을 전체가 멸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 40년이 지나서야 다른 섬으로부터 이누이트족이 들어오면서 예전 기술이 복원되었다.

이렇듯 인간사회의 질서는 전통과 문화, 관습, 제도 등을 통해 과거로부터 좋은 것들이 축적되고 계승되어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안정은 그 사회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의 권위를 필요로 한다. 세대 간 단절과 불통, 갈등은 이러한 권위와 전통, 문화, 관습, 제도가 내재적으로 축적해 온 인류의 지혜로움과 익숙함을 훼손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권위주의는 위험하지만 권위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동등하게 소중한 합리적인 개인들 간의 상호존중과 대화, 합의도 중요하지만, 권위를 지닌 자에 대한 존중과 따름도 중요하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움과 익숙함이 심각하게 도전받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거대한 사회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불안과 소외 및 불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1. 제시문 (라)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와 (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나)의 ㉠ 지역어와 제시문 (다)의 ㉡ 나가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문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딸은 오늘이 양력으로 선달 스무나흘날이니까 크리스마スイ브임에 틀림은 없다.

“저도 그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옥이가 오늘 밤, 밖에서 자고 오겠다는구나.” / “이 추운 날씨예요?”

“응?” / “감기가 들 겁니다.”

“너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니?”

… (중략) …

“아무튼 내 생각은 외박은 안 된다는 거야. 이 점이 가장 중요해.” / “글쎄 아빠는 그저 안 된다니 왜 안 돼요?”

“그럼 내가 물겠다. 옥아 넌 교인이던가?” / “아이 참 누가 교인이래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어쨌다는 거니?” / “크리스마스니깐 그렇죠.”

“뭐가?” / “크리스마스지 뭐긴 뭐야요?”

… (중략) …

“크리스마스면 예수가 난 날이라지. 예수교인이면 밤새 기도두 드리고 좀 즐겁게 오락도 쉬어서 이 밤을 보내도 되련만 온 장안이 아니, 온 나라가 큰일이나 난 것처럼 야단이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아버님 손 데시겠어요.”

아버님은 황급히 담배를 비벼 끄면서 나한테 고맙다는 치사를 하였다. 나는 아버님이 군자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다.

“창피한 일이 아니냐?” / “글쎄요.”

“창피한 일이다. 정신이성한 사람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느냐. **㉠ 년 남의 제사에 가서 곡을 해본 적이 있느냐?**” / “뭐, 없어요.”

“그것 봐라. 원래 옛날에는 종족마다 수호신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한 해에 한두 번씩 제사를 크게 차려서 신을 위로했지. 옛날엔 한 종족이 다른 종족에 굴복했다는 증거는 정복자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지.”

나는 아버님의 말씀을 잠깐 중단시키고 말했다.

㉡ 아버지, 말씀이 좀 불온해지십니다.”

“불온하다니? 애가 너는 나를 사상적으로 몰 생각이나?” / “사상적으로라뇨?”

“그럼 불온하단 건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와들와들 떨었다.

(나) 여자와 남자는 대학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벌써 네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첫번째 크리스마스 때, 여자는 남자에게 한마디 말도 않고 시골집에 내려가버렸다. 남자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닐까, 통화가 안 되는 휴대 전화를 붙들고 끙끙댔지만, 여자가 낙향한 이유는 단지 ‘옷이 없다’는 거였다. 여자는 진심으로 우울해했다. 오빠와 한방에 사는 처지에 옷이나 장신구가 많을 리 없었다. 학비를 모은 뒤 남은 돈으로 멋을 부려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블라우스를 사고 나면 그에 어울리는 치마가 없고, 치마를 사고 나면 신발이 없었다. 여자의 옷차림은 스카프를 둘러맨 오리처럼 어정쩡한 구석이 있었다. … (중략) … 두번째 크리스마스 뎀 남자가 고향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유에서였다. 남자는 그날 서울에 있었다. 옷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 남자는 졸업 후 일년 동안 취직을 못한 탓에 여자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었다. … (중략) … 언젠가 몹시 춥던 겨울날, 코트 살 돈이 없던 남자는 양복 위에 노란색 오리털 점퍼를 걸치고 면접에 갔다. 남자는 자신의 낡은 점퍼를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남자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시험 때마다 ‘불을 듯 말 듯’한 성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남자는 자신을 격려해주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 나를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책했다. 그러다 온갖 연발 청구서가 몰아치는 12월이 되었고, 한 번 더 시험에 낙방하고 생활비도 거의 바닥났을 즈음— 말하자면 역병처럼 크리스마스가 돌아온 것이었다.

(뒷면에 계속)

(다)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기념일로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배경에는 서구적인 것에 대한 추종이나 선망과 같은 맹목적인 서구 추수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서구 추수주의는 근대 초기부터 시작되었지만, 해방 이후 미군의 주둔과 함께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미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됨으로써 구체적 실물에 대한 모방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한국 사회에서 보다 특별한 축제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에는 야간통행금지제도라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존재한다. 1945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한국 사회에 발효된 야간통행금지제도는 대개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의 시간동안 일반 국민들의 통행을 금지한 것으로서, 한국 사회의 폭압적 규율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의 국가 권력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근거로 분단과 전쟁의 경험을 활용하였고, 국민들에게는 남북 대치 상황의 위기감을 조장함으로써 일상의 영역에 대한 억압적 규율을 정당화하였다. 1982년에 가서야 단행되었던 통행금지 해제의 배경 중 하나가 신체의 자유 보장 및 군사 정권의 억압 심리 해소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졌음에도 또 다른 방식의 억압과 규율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야간통행금지제도가 일상화·전면화된 현실에서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기독교·서구 문화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에 통금 해제를 적용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한 것 자체보다 크리스마스에 야간 통행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크리스마스를 한국의 특별한 풍속으로 위치시키는 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라)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대 내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8억 7,044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031만원 늘어났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473만원으로 전년 대비 고작 64만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0배로 더 확대됐다. 배수가 커질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소비 또한 양극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모 도움 등으로 주택을 매입해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많은 일부 청년들이 명품 등 고가품을 중심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는 반면, 소득 및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의 소비 심리는 오히려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세대 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젊은 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마) ‘빨갱이’에 대한 공포와 그것의 재생산은 ‘불온한 것’에 대한 통제에 국민들이 자의든 타의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국민들은 자신의 주변에 위장하며 숨어있는 간첩 등의 ‘불온분자’들을 색출하여 고발할 의무와 함께 자신이 언제라도 ‘불온분자’로 고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불온분자’로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로 ‘빨갱이’와 ‘간첩’ 등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불온성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이는 반공 국가의 통치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까지도 ‘빨갱이’에 가까운 불온한 존재로 취급되곤 했다. “반미 사상의 고취를 통한 한미 유대 이간”을 꾀하는 작품을 썼다는 이유로 작가 남정현이 반공법에 의해 기소된 소위 ‘「분지」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3-1. 제시문 (가)의 ‘옥이’의 크리스마스는 제시문 (다)를 활용하고, 제시문 (나)의 ‘남자’의 크리스마스는 제시문 (라)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가)의 ㉠에서 ㉡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된 맥락을 제시문 (다)와 (마)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30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사회계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 문항 1 -

1. 출제 의도

문제 1은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적 관점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사상 이론의 내용과 관련지어 확인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문제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개인과 시장에 있어서 자유가 지니는 의미,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하여 긍정적 측면과 극복되어야 할 측면에 관하여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해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문제 1-1은 중앙 계획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하이에크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노자의 사상과 비트코인의 사례를 통해 적용할 것을 묻고 있다.

문제 1-2는 시장 근본주의가 지니는 근본적인 결함을 밝히는 내용의 제시문과 17세기 네덜란드 튜립 시장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제시문을 시장 근본주의의 결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하여 하이에크의 사상이 지니는 문제점을 밝힐 것을 묻고 있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개인과 시장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 1-1은 시장질서론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보는 두 제시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시문 (다)를 통해 제시되어 있는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인 중앙 계획이 지니는 비효율성과 폭력성에 대한 지적과 국가의 자의적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논지를 먼저 분석해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런히 한다[民莫之命而自均].”에서 자발성과 자율성이라는 용어로 구체화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에 관하여 이해하고, 제시문 (나)의 ㉡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서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자들 간에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용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1-2는 시장 근본주의는 무질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과 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하여 시장질서론을 비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시문 (라)에서 시장 근본주의가 지니는 결함으로서 순수하게 경제적이고 금융적인 영역에서 시장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무질서 상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 (마)에서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튜립 시장의 모습을 설명한 사례를 통하여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시장이 언제나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제시문 (라), (마)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다)의 시장질서론을 비판하도록 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노자의 시각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노자의 사상 중 사람들의 자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과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시된 원문 가운데 ‘스스로 가지런히[自均]’, ‘소국과민(小國寡民)’ 등의 표현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정부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 거래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가치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음 등을 제

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 또는 시장옹호론에 관한 내용이다. 제시문은 그의 이론이 지니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에 관하여 시장 질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고 그 어떤 의도된 계획보다도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을 잘 밝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조지 소로스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시장근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서술을 소개한 것이다. 이는 시장 근본주의에 따라서 시장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엄청난 무질서 상태가 빚어지며 결국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튜립 투기 사건을 설명한 것이다. 이 사례는 시장에서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의 과정에서 튜립 뿌리의 가격이 이해할 수 없이 상승하였다가 급격하게 폭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장은 국가의 개입 없이는 언제든지 무질서하고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다)에서 (자의적인) 정부의 개입과 계획이 지니는 비효율성과 폭력성,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하이에크의 주장을 찾은 뒤, 이것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와 (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다)를 통해 나타난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의 의미를 바르게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가)에서 ㉠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런히 한다”와 (나) ㉡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의미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이를 앞서 추출한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과 적절하게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p> <p>① 하이에크의 시장질서론 : 중앙계획이 지니는 비효율성과 폭력성,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 국가(정부)의 (자의적)개입을 줄여야 함.</p> <p>② 노자의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런히 한다” : 사람들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p> <p>③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 국가(정부)나 중앙은행, 금융 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간의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한 화폐.</p>	15
1-2	<p>【제시문 (라)에서 시장 근본주의가 지니는 근본적인 결함을 찾고, 제시문 (마)에서는 국가(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무모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찾으며, 이것을 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서 시장 질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하이에크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라)를 통해 나타난 시장 근본주의의 결함과 제시문 (마)에서 나타난 튜립 시장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바르게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하이에크의 시장질서에 대한 옹호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p> <p>①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 : 시장 근본주의에 따라서 시장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엄청난 무질서 상태가 빚어지며 결국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p> <p>② 네덜란드 튜립 투기 : 17세기초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튜립 투기 사건을 통해서 시장은 국가(정부)의 개입 없이는 언제든지 무질서하고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p> <p>③ 하이에크의 시장 질서론에 대한 비판 :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자유에 기초한 시장은 언제든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에크가 중앙 통제의 비효율성과 폭력성,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가(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가능한 줄여야 함을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임.</p>	15

4. 예시 답안

1-1. (다)는 중앙 계획 통제의 비효율성, 폭력성을 지적하고, 자유에 기초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가(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가능한 줄여야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보면 (가)의 ㉠은 사람들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국가(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야함을 말한다. ㉡은 비트코인이 기존화폐와는 달리 국가(정부)의 개입이 없이 거래자들끼리 자율적으로 가치를 정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음을 말한다.

1-2. (라)는 시장 근본주의의 비논리성과 단순함을 주장하며, 시장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엄청난 무질서 상태가 빚어지고, 결국에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마)는 시장은 국가(정부)의 개입 없이는 언제든지 무질서하고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보면 (다)는 하이에크가 중앙 통제의 비효율성과 폭력성,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국가(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가능한 줄여야 함을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문항 2 -

1. 출제 의도

문제 2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통의 부재, 세대 간의 단절, 지역어의 소외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로부터 좋은 것들이 축적되고 계승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회가 유지된다는 보수적인 관점과, 대화와 타협, 담론과 같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출제 의도가 있다.

문제 2-1은 소통의 부재와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그것으로 예측되는 내적, 외적 갈등의 상황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고민해 보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문제 2-2는 과거로부터 좋은 것들이 축적되고 계승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회가 안정되고 유지된다는 큰 틀에서, 과거의 것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지역어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권위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시각의 환기를 통해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는 보수적인 관점과 합리적 의사소통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가), (나), (다)에서 각각 보여주는 소통, 지역어, 세대와 같은 사회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문제이다.

문제 2-1은 제시문 (라)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불통(不通)의 상황과 제시문 (다)의 세대 간 단절의 문제상황에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문제 2-2는 제시문 (마)에서 제시된, 과거로부터 좋은 것들이 축적되고 계승되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회가 유지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지역어'와 제시문 (다)의 '나'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장류진이 지은 『달까지 가자』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은 화자가 몇 살 차이인지 않는 직장 내 후배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직장 내 갈등, 세대 간 갈등과 함께 '꼰대'를 대하는 시선까지 포함하여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요구한다.

제시문 (나)는 헌법재판소의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06헌마618)의 판결문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판결문은 표준어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과 함께,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지역어'의 특징과 가치도 같이 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신문의 칼럼인 「꼰대도 한때는 X세대였다」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제시문은 소위 '꼰세대'로서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이 세대가 느끼고 있는 갈등의 상황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한다.

제시문 (라)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서로를 이해하여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제시문(가), (다)와 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응해 보기 위해 제시하였다.

제시문 (마)는 장대익의 『울트라 소설』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제시문은 이누이트 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전통과 권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윗세대가 사회적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지식의 전수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글이다. 이것은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권위는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제시문 (라)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와 (다)의 문제 상황을 찾아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와 (다)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가? • 위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의사소통, 소통의 부재, 세대 간 갈등, 단절, 대화, 타협, 담론, 이상적인 합의, 보편적 합의, 의무</p>	15
2-2	<p>【제시문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 지역어와 (다)의 ㉡ 나 가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마)의 관점에 따라, 제시문 (나)의 ㉠ 지역어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의 관점에 따라, 제시문 (다)의 ㉡ 나 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민족, 정서의 표현, 창조물, 전승, 공동체, 문화 유산, 경험, 지혜, 다른 세대, 소외, 아랫 세대, 지혜의 전승, 권위, 모범</p>	20

4. 예시 답안

2-1. (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다)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에서 하버마스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와 타협, 담론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여 이상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보편적 합의에 따른 결과는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와 (다)와 같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일방적 자세,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합리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2. (나)의 '지역어'는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역사적·문화적·정서적 창조물로서 누대에 걸쳐 전승된 문화유산이다. (다)의 '나'는 다른 세대로부터 단절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마)의 시각에 따르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지혜는 사회의 안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지역어'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담아내고 공동체의 정서와 감정 표현에 적합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며 '나'는 윗세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랫세대에게 지혜의 전승자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문항 3 -

1. 출제 의도

문제 3은 수험생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축제처럼 즐기는 우리의 일상적 문화를 돌아보며, 그에 담겨 있는 다양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 성찰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문화는 기본적으로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것이지만, 한국 사회의 고유한 맥락 아래에서 독특한 형태로 변화 및 발전해 온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한국의 크리스마스 문화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며, 우리 주변에는 여러 이유로 크리스마스 문화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도 있다. 이 문제는 문학작품을 그와 관련된 여러 사회문화적 배경을 맥락으로 활용하여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문화를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수험이 끝난 후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한국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3-1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상이한 욕망과 생각을 보여주는 제시문 (가)와 (나)의 두 등장인물을 통해 언뜻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어 온 우리의 일상적 문화가 각자의 다른 상황과 처지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또한 여러 이유로 크리스마스의 축제적 분위기로부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이웃들을 생각해볼게끔 하려는 것도 이 문제의 의도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제시문 (가), (나)와 함께 한국의 크리스마스 문화의 형성 요인을 설명한 제시문 (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세대 내 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보도한 제시문 (라)를 주었다.

3-2는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기이하고 부조리한 대화의 맥락 및 그 의미를 사회문화적 배경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언어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과 함께,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언뜻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사회적 현상들이 사실은 매우 긴밀하게 얽혀있음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가)와 함께, 크리스마스 문화의 서구적 기원에 대해 언급한 제시문 (다)와 폭력적인 반공국가 체제에 의해 형성되었던 '불온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제시문 (마)를 주었다.

2. 문항 해설

문제 3은 서구문화로 대표되는 크리스마스를 중심 제재로 하고 있다.

문제 3-1은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가 상이한 제시문과, 그러한 태도 차가 유발된 배경을 유추해볼 수 있는 제시문을 연결하여 동일 세대 안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 차가 발생한 사회적 이유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문제이다.

문제 3-2는 서구문화 추수와 그에 대한 비판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연결되는 과정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주어진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봄으로써 이해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최인훈의 소설 「크리스마스캐럴 1」 가운데, 통행금지 등으로 인해 외박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 크리스마스를 맞아 해방감을 즐기려는 딸 옥이와 서구에서 온 크리스마스는 남의 제사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제시문 (나)는 김애란의 소설 「성탄특선」에서, 빈곤으로 인해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는 가난한 연인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서구문화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가 한국에서도 특별한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된 정치, 사회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서술한 논문의 일부를 다듬은 것이다.

제시문 (라)는 청년 세대 내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그것이 소비심리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다룬

신문 기사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마)는 정부 시책을 비판하거나 우방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온분자로 취급하며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 고발하도록 억압하고 공포를 조성한 반공 국가의 통치술에 대해 서술한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다)와 (라)에 제시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제시문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활용된 소재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와 (나)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론하였는가? • 제시문 (다)의 주요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여 제시문 (가)의 이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제시문 (라)의 주요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여 제시문 (나)의 이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크리스마스, 야간통행금지, 규율, 억압, 해방, 가난, 불평등,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p>	15
3-2	<p>【제시문 (가)의 ㉠과 ㉡의 내포적 의미를 이해하고, 제시문 (다)와 (마)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에서 ㉡으로 발화가 이어지는 맥락을 적절하게 파악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의 ㉠의 내포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가)의 ㉡이 발화된 이유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다)와 (마)를 적절히 활용하여, ㉠에서 ㉡으로 발화가 이어지는 맥락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 크리스마스, 전통, 풍속, 서구 추수주의, 비판, 미국, 고발, 공포, 불온성</p>	20

4. 예시 답안

3-1. '육이'의 크리스마스는 외박을 할 수 있는 날이다. 이는 (다)에서 설명하듯 크리스마스에만 야간통행금지가 풀렸던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일상의 억압과 규율에 대한 일시적 해방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남자'에게 크리스마스는 그가 데이트에 필요한 돈을 감당 못 할 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역병처럼 돌아오는 날이다. 따라서 남자의 크리스마스는 (라)에서 지적하는 세대 내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는 계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3-2. '남의 제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우리의 것이 아닌 서구의 전통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풍속을 비판한 말이다. 이는 크리스마스의 수용과 맹목적 서구 추수주의의 관계를 지적하는 (다)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때 크리스마스 문화가 주로 미국에서 유입되었다는 점에서 ㉠이 미국 비판으로 이해되어 불온한 것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과 같은 발화가 이어진다. 이는 불온성의 범위가 확대되며 국민들이 불온분자를 고발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불온한 자로 고발될 수 있다는 공포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던 (라)의 상황을 맥락으로 한다.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고 능력까지 도전하는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로봇을 가리켜 휴머노이드(humanoid)라고 부른다. 이미 영화로는 휴머노이드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아이 로봇>이라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인간이 정한 원칙 내에서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복종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원칙을 재설정하며 인간에게 도전하는 새로운 로봇이 등장한다. 이 영화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어디에서 그어져야 하는지, 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준다. 그리고 로봇이 독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들을 도구 이상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제시한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내린 규정과 관계가 깊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규정에 공감을 표한다. 인간을 동물과 같은 인간 이외의 존재와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성을 든다. 이는 소크라테스 이래로 고대 서양 철학에서부터 일관된 관점이었다가 데카르트를 비롯한 근대 서양 철학에 와서 확정되어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입장이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인간만이 이성과 이에 기초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이성 능력과 언어 능력을 갖춘 존재가 생겨난다면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려는 사람들은 로봇이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성적 사고 능력에서 찾는 이상 끊임없이 마주치게 될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지녀 온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로봇의 능력이 어디까지가 한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나) **㉡르네상스**는 그리스로마 문화의 부흥을 통해 신(神) 중심의 중세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운동이었다.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하고, 인간 생활의 풍족함을 추구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종래의 모든 권위와 인습에서 벗어나는 인간 해방을 희망했다. 이렇게 새로운 사고와 생활 방식에 모범이 된 것은 그리스로마의 문화였다. 그리스로마의 고전은 이성적이면서도 풍부한 감성을 지닌 이상적인 인간상을 잘 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이상을 탐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흔히 인문주의 또는 휴머니즘이라고 한다. 인문주의는 본래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풍을 의미했으나,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고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덕성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탈리아의 시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가 설정했다고 한다. 그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를 문화의 절정기로, 중세를 인간의 창조성이 철저히 무시된 암흑기로 규정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고전 학문과 문화의 부활을 통해 문명을 부활시키고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를 ‘최초의 르네상스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가 한 말 중 주목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내가 아는 누구하고도 다르다.” 이다. 이 말은 페트라르카가 새로운 글쓰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했지만, 인간의 자아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뒷면에 계속)

(다) ㉔ ‘샘’은 뒤상이 1917년 미국 뉴욕의 독립예술가협회가 연 첫 전시에 출품한 작품이다. 뒤상은 철강 회사의 맨해튼 쇼룸에서 구입한 소변기를 ‘R. Mutt’라는 필명으로 출품했다. 그러나 갑론을박 끝에 벌인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샘’은 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훗날 그의 의견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글에서 그는 말한다.



“‘샘’이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배관공의 쇼윈도에서 매일 보는 소변기 역시 비도덕적인 것이다.”

기성 예술에 대한 뒤상의 전복적 상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 국내에 전시되는 ‘샘’은 1950년산. 뒤상이 전시에 출품했다 퇴짜 맞은 그 작품이라면 1917년산이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일까. 이△△ 연구사는 “원래 ‘샘’은 1919년에 이르러 버려지거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장의 ‘샘’은 실물 크기로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 중 가장 초기의 것이며, 뒤상이 파리의 베흐시장에서 구매해 직접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작품의 희소성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며, 그것을 재제작하는 것이야말로 ‘레디메이드*’라는 자신의 개념을 더 향상시킨다는 게 뒤상의 생각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사인’만 하면 작품이 되는 샘이었다.

*레디메이드 : ‘기성품’이란 뜻으로 마르셀 뒤상이 창조해 낸 미적 개념

(라) 최근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감정과 직관, 이미지와 몸의 느낌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창조적 사고의 결과로 나오는 개념은 공식적인 의사 전달 시스템, 이를테면 말이나 방정식, 그림, 음악, 춤 등으로 변환될 수 있다. 한 분야의 창조적 사고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창조적 사고를 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통합적이고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따라서 ‘종합적 이해’라는 직물을 짜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지식들이라는 실을 먼저 풀어놓지 않을 수 없다. 전문화의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지식은 파편화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그것들의 기원이나 의미는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 전문적 지식의 양은 늘어나는데 비해 학문 간의 교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종합적 이해력은 퇴보 일로에 있다. 현대 사회는 지식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암흑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오로지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재통합하고, 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할 때 이겨낼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날줄과 씨줄이 있다. 창조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날줄이라면,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씨줄인 셈이다.

(마) ㉕ **모자 장수**는 자기가 정말 흥미를 갖는 문제, 즉 모자와 머리의 문제에 대하여 내게 얘기를 꺼냈다.

“크기로 말하면, 참 놀랄 만큼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들과 거래가 많습디다만, 그분들의 머리 치수는 놀랄 지경입니다. 손님도 놀라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의 머리가 그렇게 커지는 것은 생각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기 모자는 ○○씨(유명한 변호사의 이름을 대면서)의 것인데요, 엄청나게 큰 머립니다. ‘7인치 반’ 이것이 그분의 치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7인치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머리 사이즈는 직업에 따르는 듯합니다. 제가 전에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선장님들 일을 해 드렸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들 머리는, 아마 그건 그분들의 걱정 근심 때문이겠지요. 조수(潮水)며, 바람이며, 빙산이며, 기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자니…….” (중략)

내가 지금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는 제각기 자기 특유의 창구멍을 통해 인생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본 것은 모자의 사이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경우였다. 그는 존스가 7인치 ½을 쓴다 해서 그를 존경하고, 스미스는 6인치 ¾밖에 안된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한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제한된 직업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1. 제시문 (가)의 ㉑우리가 지녀 온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㉒네상스와 제시문 (다)의 ㉔ ‘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라)의 핵심 논지와 제시문 (마)의 ㉕모자 장수의 태도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 드러난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알박스(M. Halbwachs)에 따르면 기억은 해당 공동체의 신념에 따라 사실들이 취사선택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기억은 집단적, 사회적이며 상징, 텍스트, 그림, 의례, 기념비, 장소 등의 장치를 통해 만들어지고 전승된다. 또한 기억은 의지적, 의도적이며 선택적이다. 기억은 성립과 전승으로 재구성되며, 이렇게 재구성된 기억은 권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의 형성구조를 통해 사회적 집단기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상상적 공간의 이미지가 집단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공통의 기호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기억의 탄생과 전승은 교육과 흡사하다. 실제로 학교 교육은 개인에게 끊임없이 국가·민족의 집단기억을 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 베트남 전쟁 당시 풍니·풍넛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베트남인 생존자들은 상이한 입장을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풍니·풍넛 마을에 한국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학살이 있었다면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 저지른 일이었을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또 한국 정부는 “교전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당시 마을 사람들을 ‘베트콩’으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풍니·풍넛 마을에 있었던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구사한 군인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또 당시 상황을 따져볼 때 ‘베트콩’이 마을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적다고도 주장합니다. 게다가 비무장 상태인 마을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서 교전 중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다) 투이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었다. 한 번은 투이네 집에서, 한 번은 우리 집에서 먹는 식이었고 초여름이 되어 낮이 길어지자 토요일 이른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같이 밥을 먹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카드놀이를 하고, 우리들은 직소퍼즐을 하거나 만화책을 읽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면 투이네 가족도, 우리 가족도 서로 말고는 그렇게 가까운 이들이 없었던 셈이다.

(…중략…)

그날 저녁 우리는 투이네 집 식탁에 모여 호 아저씨가 만든 국수와 만두를 먹고 있었다. 이야기가 어떻게 그쪽으로 흘러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예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 열세 살짜리 여자애였다. 열한 살 때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 애처럼 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 어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컸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른들의 말에 동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드디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라면 투이네 식구들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아는 척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꽤나 뿌듯하게 생각해 줄 것 같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엄마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는 듯이 내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투의 눈빛을 보냈다. “국물이 짜지는 않은지 모르겠네.” 호 아저씨가 말을 돌렸다. 모두들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정말이에요. 우린 정말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한국은 선한 나라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어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칭찬받고 싶었다. 난 맞은편에 앉은 아빠에게 인정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넌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마. 네가 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아빠가 한국어로 소리쳤다. 모두들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봤다. 투이네 식구들 앞에서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야단맞은 것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귀가 떡떡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서 독일어로 말했다.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린 아무에게도 잘못된 게 없다고. 우린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어.” 투이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를 열려버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이 엄마 가족 모두를 다 죽였다고 했어. 할머니도, 아기였던 이모까지도 그냥 다 죽였다고 했어. 엄마 고향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대.” 투이가 말했다.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힐난하는 말투였지만 나는 그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략…)

(뒷면에 계속)

아빠는 엄마와 호 아저씨의 대화를 못 들은 것처럼 맥주만 마시고 있었다.

“당신도 무슨 말 좀 해봐.” 엄마가 한국어로 아빠에게 말했다.

“내가 무슨 얘길 해?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왜 당신이 나서서 미안하다고 말해? 당신이 뉘데?”
아빠가 한국어로 받아쳤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해, 안 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응웬 씨였으면 처음부터 우리 가족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아빠는 식탁 의자에 걸친 카디건에 팔을 넣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형 나이 스물이었죠. 용병일 뿐이었어요.” 아빠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누가 베트남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빠는 여전히 응웬 아줌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태어난 지 고작 일주일 된 아기도 베트남으로 보냈을까요. 거동도 못 하는 노인도 베트남으로 보냈을까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요? 그건 그저 구역질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말했다.

(라) 민족주의에 의해 성립된 ‘국민’, ‘민족’이라는 개념이 근대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지만, ‘국민’과 ‘민족’이 각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되는 방식 자체를 근대적으로 바꾸었다는 켈너의 설명은 여전히 흥미롭다. 켈너에 의하면 근대 이전에 한 인간은 가족·씨족·지역·직업 등 어떤 중간 단체의 성원 자격으로만 전체 사회에 속할 수 있었다. 반면 근대인에게 특정 결사체에서의 역할과 지위란 임시적·제한적일 뿐이며 근대인은 ‘국민’, ‘민족’으로 표상되는 전체 사회에 이러한 중간 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귀속된다. 혹자는 이러한 차이를, 개인이 맺는 구체적 사회관계나 연결망(network)에서 빛어지는 ‘관계적 정체성’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인들을 추상적 범주로 한 데 묶는 ‘범주적 정체성’의 차이로 설명한다. 국민·민족·계급과 같은 범주적 정체성은 가문이나 가족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삼는 근대에 와서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혈연이나 주종관계, 계약·의리 같은 관계나 연결망에 의하지 않고 개개인을 직접 범주적 정체성으로 불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베버에 의하면 국민이나 민족은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Staatsvolk)과 일치하지 않으며, 언어·문화·종족·혈통 등의 속성도 민족이라는 범주적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성원들이 갖는 특수한 연대감이다. 따라서 ‘국민’,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베버의 설명이다.

(마) 화해를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정체성을 규정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정체성 사이의 미세한 경계선을 인지하고 타자에 의해 경계선이 이동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화해는 기존의 정체성 논리가 내포하고 있던, 자아와 타자의 명백한 구분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로 타자에 대해 자신을 열어둠으로써,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 화해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타자와 대치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게 되며,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변화된다.

2-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그 전쟁’에 대한 ‘투이’, ‘나’, ‘아빠’의 기억을 제시문 (가)의 ‘사회적 집단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와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아빠의 태도에 대해 평가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능력주의(meritocracy)**란 능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원리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기회균등과 계층 간 이동을 상징하는 관념으로 사용된다. 혈통이나 연고가 아닌 개인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이므로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 비해 공정한 체제라는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 능력주의 사회는 개인들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능력주의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분배의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과거의 신분사회가 ‘부당하게’ 불평등한 사회였다면 현대의 능력주의 사회는 ‘정당하게’ 불평등한 사회인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서의 큰 차이들도, 그것이 평등한 기회라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질(Jill)이라는 사람이 30만 달러를 버는 것과 잭(Jack)이라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버는 것이, 질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잭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졌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잭이 질처럼 성적이 좋았다면 그도 의과대학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잭과 질이 의사가 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된 기회의 평등을 만들려면 학교를 동등하게 만들어야 하고, 만약 학교가 동등했다 하더라도 가정환경까지 동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전자 차이가 IQ 차이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므로 노력에 대해 보상하려고 하는 것, 즉 개인의 능력이 어떠한 간에 능력 상한선 가까이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차등의 원칙이란 보상의 원칙에 의해 선정되는 고려 사항들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즉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마땅히 보다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목적을 원하는 자는 수단도 원한다. 그런데 수단은 몇몇 위험, 심지어 몇몇 인명 피해를 수반한다.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자는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때 시민은 법이 원하는 대로 그가 무릅쓰야 하는 위험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군주가 “당신의 죽음이 국가에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바로 이 조건 하에서 안전하게 산 것이고, 그의 생명은 자연의 호의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건부로 준 증여물이기 때문이다. 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기보다, 오로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궁리하는 것이다.

(뒷면에 계속)

(마) 인간을 규율하는 도덕과 정치의 원리들은 세 가지 원천에서 도출된다. 신의 계시, 자연법, 그리고 인위적인 **사회계약**이 그것이다.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이 같은 점을 수긍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사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하나의 구경거리이며, 경멸감의 대상이다. 법이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공포감이지만, 실제로 구경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러한 경멸감의 감정이다.

(바) 내 앞의 창은 활짝 열려 있었다. 강가에서 꽃장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창가 돌 틈에서 햇살을 머금은 작고 예쁜 노란 꽃이 바람을 희롱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 가운데 어떻게 불길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었겠는가? 희망이 내 둘레의 햇살처럼 내 안에서 넘쳐흘렀다. 그리고 여유를 찾은 ㉠ 나는 석방과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판결을 기다렸다. 그동안 변호사가 들어왔다.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실컷 맛있게 하고 오는 길이었다. 자리에 도착한 그는 미소를 띠며 나에게 몸을 기울인 채 말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겠죠?”

나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물론이죠. 그들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을 것이고, 그럴 경우 기껏해야 종신 강제 노역일 겁니다.” …(중략)…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던 재판장이 갑자기 나에게 기립할 것을 요청했다. 경비병들이 차려 자세를 취했다. 전기가 작동하듯이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배심원들이 내 부재중에 내린 판결을 읽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댔다. …(중략)… 재판장이 나의 판결문을 읽었다.

“사형이야!”

㉡ **군중**들이 말했다. 내가 끌려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하듯이 소란스럽게 내 뒤를 쫓아왔다. …(중략)… 계단 아래에 철책을 친 거무충충한 마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에 오르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광장 쪽을 바라보았다.

“사형수다!” 행인들은 마차를 쫓으며 소리쳤다. 주변 상황과 나 사이에 처진 듯한 자욱한 먼지구름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러운 눈길로 나를 쫓는 두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좋아, 6주 후면 처형될 거야!” …(중략)…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군중들이 소리쳤다. “나온다! 드디어!”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아무리 국왕을 사랑한다 해도 이처럼 뜨겁게 반기지 않는 것이다. …(중략)…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다. 헌병, 뒤에도 헌병, 그리고 군중, 군중, 또 군중, 광장 위에서 머리가 바다를 이루고 있다.

3-1. 제시문 (나)와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능력주의(meritocracy)**를 평가하시오.

(250자±20자) [20점]

3-2. 제시문 (라)와 (마)의 **사회계약**의 내용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바)의

㉠ 나의 상황과 ㉡ 군중들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인문·사회계)

- 문항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창조적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문들로 구성하였다. 지금 시대는 어쩌면 사고의 폭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져야 할 것 같지만,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문항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역사적으로 어떤 생각의 전환이 시대를 이끌었는지를 제시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인 사고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려 한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전통적 접근 방식의 한계점 인식 및 창조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문제 1-1은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다룬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르네상스와 제시문 (다)의 '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 전통적인 방식은 문제 해결에 한계를 지니므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1-2는 제시문 (라)의 핵심논지를 이해하고 제시문 (마)의 모자 장수의 태도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에서 드러난 인간과 로봇의 경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 문제에 대해 인간의 정체성을 이성적 사고 능력에서 찾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바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르네상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로마 문화의 부흥을 통해 신 중심의 중세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운동이었는데,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덕성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뒤샹이 출품한 '샘'이라는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샘'은 사용 목적이 분명한 소변기라는 기성품에 뒤샹이 새로운 이미지를 붙여 제작한 예술품인데, 기성 예술에 대한 전복적 상상에 의해 일상 용품이 예술 작품으로 승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창조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창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함과 동시에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데,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재통합하고 이러한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모자와 머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자장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모자장수는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직업이나 편견 등 자기 특유의 창을 통해 보고 자신의 자로 재고 판단하게 되는 제한된 직업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상이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가) ㉠의 ‘우리가 지녀 온 접근방식’의 의미를 제시한 후, 이것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르네상스와 제시문 (다)의 ㉢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를 통해 ‘우리가 지녀 온 접근방식’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내어 설명하고 있는가? 제시문 (나)의 ㉡르네상스와 제시문 (다)의 ㉢샘에서 드러난 이전의 방식들을 대하는 태도가 ㉠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및 핵심 개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지녀 온 접근방식’의 의미: 기존의 규정 답습, 전통적인 방식을 따름 ‘르네상스’가 지닌 태도: 이전의 사고체계와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 냄 ‘샘’에 드러난 태도 : 기존의 예술이라는 관념 뒤집음. 창작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접근함 	15
1-2	<p>【제시문 (가) 에 드러난 문제의식을 찾아낸 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문 (라)의 핵심논지와 제시문 (마)의 ㉣‘모자장수’가 지닌 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에 드러난 문제의식을 제대로 찾아서 서술할 수 있는가? 위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문 (라)의 태도가 필요함을 설명할 수 있는가? 위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문 (마)의 ㉣‘모자장수’ 같은 태도를 과감히 버려야 함을 설명할 수 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및 핵심 개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에 드러난 ‘문제의식’의 의미: 시대와 기술의 변화 속에서 기존에 지닌 기준이나 관념 등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임 제시문 (라)의 핵심 논지 : 창조적 사고. 그것은 다양하게 흩어진 지식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그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함 제시문(마)의 모자장수가 지닌 태도 : 자신의 제한된 직업 경험 속에서 편협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 	15

4. 예시 답안

1-1. (가)의 ‘우리가 지녀온 접근 방식’은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이성적 사고 능력에서 찾아왔던 기존의 규정을 답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문제 해결에 한계를 지니므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나)의 ‘르네상스’는 신 중심이었던 이전의 사고체계를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려 했던 움직임이다. 또한 (다)의 ‘샘’은 기성 예술들이 지니고 있던 여러 관념들을 뒤집는 전복적 시도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다.

1-2. (가)는 로봇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원래의 기준이나 관념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언급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인간과 로봇을 나누는 기준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새로운 기준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라)처럼 흩어진 지식들을 모으고 종합하는 통합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및 이를 길러내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마)의 ‘모자 장수’가 보여주는 편협하고 제한된 경험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 문항 2-

1. 출제 의도

문제 2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그것의 해소 문제에 대해 고민해봄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에 대해 고민하게 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에서는 문학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여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어 있다. 또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능력을 기른다는 전제 하에 윤리적 문제들과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 2-1은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글, 기억을 통해 특정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상이하게 기억하는 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나는 글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집단기억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문제 2-2는 범주적 정체성과 화해의 문제를 엮어, 사회적 집단기억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개인이 타자와 연대하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는 다양한 기억을 통해 특정 정체성을 형성한 개인들이 한 데 어울려 살아갈 때 필요한 사고 자세, 태도에 대해 묻고 있다.

문제 2-1은 기억의 재구성 문제를 다룬 글 (가)와 특정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 (나)를 토대로 삼아, 문학작품 (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고민해보고, 그들의 기억을 '사회적 집단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설명해보도록 한 문제이다.

문제 2-2는 범주적 정체성, 연대감 등의 문제를 다룬 제시문 (라)와 자아와 타자의 구분을 넘어서는 화해를 위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 (마)의 관점을 활용하여 문학작품 (다)에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를 평가해보도록 한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기억이라는 것이 특정 공동체의 신념에 따라 사실들이 취사선택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기념비, 의례 등의 다양한 장치를 통해 사회적 집단기억이 형성되고 그러한 집단기억이 다시 교육과 같은 제도를 통해 전승되는 과정을 거친다.

제시문 (나)는 베트남 전쟁 당시 풍니·풍닛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베트남인 생존자들이 보이는 상이한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사문 형태의 글이다.

제시문 (다)는 소설 <신짜오, 신짜오>의 한 부분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과 화해에 대한 태도가 상이한 인물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장면에 해당한다.

제시문 (라)는 혈연이나 주종관계, 계약·의리 같은 관계나 연결망에 의하지 않고 개개인을 직접 범주적 정체성으로 불러내는 것을 '민족'의 성원들이 갖는 특수한 연대감에서 찾는 글이다.

제시문 (마)는 자아와 타자의 명백한 구분을 넘어서는 지점이 화해의 시작점이며,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 화해가 가능하고 연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제시문 (가)의 ‘사회적 집단기억’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그 전쟁’에 대한 ‘투이’, ‘나’, ‘아빠’의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에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문 (다)의 인물들과 바르게 연결 지었는가? 제시문 (나)의 내용과 제시문 (다)의 등장인물들의 기억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지적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및 핵심 개념 : 사회적 집단기억, 국가적 기억, 증오비, 교육, 전승</p>	15
2-2	<p>【제시문 (라)와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아빠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라)의 ‘관계적 정체성’과 ‘범주적 정체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아빠의 태도에 적용하였는가? 아빠의 행동을 제시문 (마)가 말하는 ‘화해’의 방식에 비추어 평가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및 핵심 개념 : 범주적 정체성, 연대감, 화해, 연대, 자아와 타자의 구분</p>	15

4. 예시 답안

2-1. ‘그 전쟁’에 대한 ‘투이’의 기억은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구성되었다. 또 (가)의 지적과 같이 엄마의 고향에 세워진 증오비, 즉 기념비도 기억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나’의 기억은 학교에서 들은 말을 통해 재구성된 것으로, (가)의 지적과 같이 교육을 통해 전승된 국가적 기억에 해당한다. ‘아빠’의 기억은 (나)에 제시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주요 내용이 같다. 때문에 세 명의 기억은 모두 ‘사회적 집단기억’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마)에 따르면 ‘아빠’는 쟁점에 대하여 자기 경험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고 사과를 거부하여 두 가족의 화해와 연대를 어렵게 만들었다. (라)에 의하면 이는 그들이 공유하던 관계적 정체성을 민족 성원들의 특수한 연대감을 토대로 하는 범주적 정체성으로 바꾸어 양자의 정체성 차이를 확고하게 드러낸 것이다. 화해를 위해서는 정체성 사이의 경계선을 인지하고 자아와 타자의 구분을 넘어서 대화하며 경계의 공간에 들어서야 하는데 아빠는 그러지 못했다.

- 문항 3-

1. 출제 의도

문제 3은 정의에 대한 관점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정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호, 공정한 사회 구조 구축, 정당한 국가 권위 확립 등 바람직한 사회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정의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정의관에 대해 성찰하게 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문제 3-1은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능력주의에 대해 고찰하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연적 요소인 능력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높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불운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서 능력주의를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문제 3-2는 국가 권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여러 사회계약론의 내용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정적 정의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즉, 사회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가 개인의 생명박탈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3은 사회 정의와 관련된 내용 중 공정한 분배 정의와 사형 제도와 관련된 교정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문제 3-1은 공정한 분배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능력주의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3-2는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사형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계약론적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바)의 나의 상황과 군중들의 태도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윤초희의 『우리사회의 능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의 일부분으로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학』의 일부분으로 진정한 기회 평등의 보장을 위해 고려해야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 중 차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천부적 자질로 인해 얻은 이익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데 기여해야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라)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일부분으로 교정적 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사회계약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사형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제시문 (마)는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의 일부분으로 사회가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내용과 사형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형벌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기보다는 사형수에 대해 경멸감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바)는 빅터 위고의 『사형수 최후의 날』의 일부분으로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주인공과 사형수를 바라보는 군중들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은 당사자의 상황과 사형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태도를 분석하여 사형 제도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논지를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능력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바르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능력주의를 타당하게 평가했는가? • 제시문 (다)의 논지를 바르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능력주의를 타당하게 평가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및 핵심 개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시문 (나)의 논지: 능력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능력과 관계없이 노력에 따라 보상해야함 ② 제시문 (다)의 논지: 천부적 능력은 선천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높은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불운한 사람들의 여건을 개선했을 때만 이익을 볼 수 있음 ③ 제시문 (나)의 논지에 따른 능력주의 평가: 개인의 능력이 노력이 아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간과함 ④ 제시문 (다)의 논지에 따른 능력주의 평가: 개인의 높은 능력이 선천적 혜택이기 때문에 불운하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여건을 개선 시켰을 때만 이익을 볼 수 있음을 간과함 	20
3-2	<p>【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사회계약의 내용의 차이점을 서술한 후,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과 군중들의 태도를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에 나타난 사회계약의 내용의 차이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바)의 나의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군중들의 태도를 제시문 (마)의 논지에 따라 분석하고 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및 핵심 개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시문 (라), (마)의 사회계약의 내용의 차이점: 국가가 개인의 생명박탈권을 가지는지 여부 ② 제시문 (마) 관점에 따른 제시문 (바)의 상황에 대한 분석: 제시문 (바)의 나는 사형선고를 받음, 이는 사회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한 것임 ③ 제시문 (마) 관점에 따른 제시문 (바)의 군중들의 태도에 대한 분석: 사형선고를 받은 '나'에게 공포감이 아닌 경멸감을 드러냄 	20

4. 예시 답안

3-1. 제시문 (나)는 능력과 관계없이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이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제시문 (다)는 높은 천부적 능력을 가진 개인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능력에 따른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능력주의는 개인 간 선천적 능력의 차이는 우연이며 이러한 차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3-2. 제시문 (라)와 (마)의 사회계약 내용은 국가의 생명박탈권 소유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다. 제시문 (라)는 자신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는데 동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시문 (마)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일반 사회에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시문 (바)의 나는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제시문 (마)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문 (바)의 나는 사회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다. 제시문 (바)의 군중들은 사형 판결을 받은 나를 구경거리 취급하며 경멸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고학력 국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배울수록 자유로워져야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오히려 더 많은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다닌다. 우열과 귀천의 가파른 위계 속에 점점 더 깊숙이 편입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자기를 돌보는 마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경지를 넓히는 공부는 어떻게 가능할까. 노숙인 인문학 강의에 참여했던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 질문에 해답을 준다. 처음에는 모자를 꼭 뒤집어쓰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지 않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한 노숙인은 1년 동안 진행된 인문학 수업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수료생들끼리 강의가 모두 끝난 기념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분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안간힘을 다해 참석했다. 그분은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에 고마움을 느낀 것이다.

(나) ㉠ 『**라틴어 수업**』은 로마법을 전공한 저자가 대학에서 한 라틴어 강의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라틴어는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고대와 중세의 문헌이나 종교를 연구하는 소수 전문가를 위한 학술어입니다. 저자는 강의에서 라틴어의 문법과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고대 로마의 철학과 역사, 문화와 지혜가 담겨 있기에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는 것입니다. 저자는 결국 서구문명의 지적 전통을 돌아보는 라틴어 강의를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라틴어는 실생활에서 무용하지만, 우리는 이제 라틴어 강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다) 한스 홀바인의 ㉡ <**대사들**> (1533)은 영국 왕실에 파견된 두 명의 대사들이, 그들의 특권을 나타내는 도구들에 둘러싸인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몸가짐과 눈빛 그리고 류트, 플루트, 천체구, 휴대용 해시계, 찬송가 책, 항해와 기하학 기구들은 르네상스 이래로 서양문화가 이룬 과학 지식과 정복 영토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는 이 우월하고 자신에 찬 인물들 밑으로 대각선의 시선으로만 인식되는 커다란 해골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 작품을 훌륭한 예술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암시를 전달함으로써 전도서의 한 구절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의 수단이며,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방법이다. 예술작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찰력과 이해, 세계를 보는 방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상상력 풍부한 예술의 경치 속을 여행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경험은 우리의 내적 삶을 도야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뒷면에 계속)

(라)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 노릇을 하자면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란 무슨 남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일상적 삶에서, 관계와 거래에서,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뿐이다. 마음에 현묘한 것을 구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 공부를 안 하면, 마음은 잡초로 뒤덮이고, 세상은 캄캄해진다. 그래서 책을 읽고, 지식을 찾는다. 오직 그때라야, 정신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실천함이 중(中)을 얻는다.”

율곡은 중(中) 혹은 지선(至善)을 이룩하고 실천으로 완성하는 것이 인간의 평생 사업이라 말한다. 율곡의 평생의 과제는 투명한 공적 자아로, 사태의 원리를 탐구하여 그 지식을 토대로 현실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되었다.

(마)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사(李斯)는 초나라 상채(上蔡) 사람이다. …(중략)… 그는 순자(荀子)에게로 가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의 기술을 배웠다. 그는 공부를 끝마치자 초나라 왕은 섬길만한 인물이 못 되고, 여섯 나라는 모두 약소하여 섬겨서 공을 세울 만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쪽 진나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는 순자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지금은 만승의 제후들이 바야흐로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는 때여서 유세자들이 정치를 도맡고 있습니다. 또 진나라 왕은 천하를 집어삼키고 제(帝)라고 일컬으며 다스리려 합니다. 이는 지위나 관직이 없는 선비가 능력을 펼칠 때이며 유세가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은 짐승이 고기를 보고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 하여 억지로 참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부끄러움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며, 가장 큰 슬픔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낮은 자리와 곤궁한 처지에 있으면서 세상의 부귀를 비난하고 영리를 미워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의탁하는 것은 선비의 마음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니 저는 서쪽 진나라 왕에게 유세하려고 합니다.”

(바) **지식소매상**은 고의건 아니건 마켓월드*의 승자들이 변화의 편에 서 있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낸다. 불평등의 시대에 대중이 바라는 종류의 변화, 때때로 선거철에 강령으로 제시되는 그것은 대개 엘리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변화를 거부하기만 한다면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을 키울 뿐이다. 엘리트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물론 그들이 선호하는 변화일 테지만 말이다. 일례로 사회 내의 계층 간 이동성이 줄어드는 시대에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비판적 지식인이라면 지방의 재산세로 지원하지 말고,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전국 규모의 공동 자금을 조성해서 좀 더 평등하게 지원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소매상이라면 마켓월드와 그 승자들에게 일종의 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말하자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기 있는 교사들에게는 더 큰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배제하는 아이디어를 예로 들 수 있다.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비판적 지식인이라면 공정한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반면, 지식소매상은 유능한 지도자로부터 빈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창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모든 중요한 사안에서 지식소매상은 마치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마켓월드의 의도에 그들도 참여한다.

*마켓월드: 신흥 권력 엘리트의 세계로, 그들의 네트워크, 공동체, 문화, 마음가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1-1.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 『라틴어 수업』, 제시문 (다)의 ㉡ <대사들>(1533)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가)의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이사(李斯)를, 제시문 (라)의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지식소매상을 평가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고, 경제를 통해 끊임없는 충동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 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전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견된 공포를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에까지 확장하여 인간 권력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업의 경영자들에게는 주주들의 이익 증진에 대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와 같이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주위 공동체에 대한 의무도 있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양질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기업, 공공의 자원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기업, 인종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기업,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 혹은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은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만든 제품의 위험성과 오용 가능성, 더 나아가 회사의 차별적인 고용 및 승진 관행, 산업폐기물이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한다.

(다) 한 기업은 올해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환경적인 성과와 가치 창출을 언급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밝혔다. 이 기업은 현재 전 사업장에서 「환경정책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친환경 원료와 재활용 소재의 사용을 늘리고 모든 제품과 포장재에 지속가능 소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스마트매뉴팩처링*을 통한 자원 사용 최소화,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 품질관리를 통한 불량률 감소, 물류 수송 혁신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을 실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계획이다.

*스마트매뉴팩처링: 제품의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모든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

(라) 물류 기업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8백여 명, 부상자는 4만 2천여 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이 과로, 졸음운전 등과 같은 운전자 과실인 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은 이러한 사고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시간 교통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 운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기술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용과 이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뒷면에 계속)

(마)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이 신성장산업 시설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세금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기업이 투자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공제(控除):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냄.

(바)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먼저 시장실패는 독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과점 기업이 담합을 하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이 불완전한 경쟁상황일 때 발생한다. 또 국방, 치안, 공원과 같이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무임 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수익을 얻기 힘든 기업들이 사회의 최적 수준만큼 생산에 참여하지 않을 때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그리고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경제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불경제의 발생도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 외부경제는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소비되는 경향을, 외부불경제는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소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외에도 시장 거래의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를 때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의 요인 중 하나이다.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불완전 경쟁에서 생겨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상품의 가격을 직접 정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하여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의 혜택을 주거나,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 주체의 행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품질 인증제, 원산지 표시제 등과 같이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핵심 논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기업 활동을 평가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의 상황에 대한 제시문 (마)의 정부 활동을 제시문 (바)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의 기능**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식적 기능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세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며, 일상에 감춰져 있거나 의식하지 못했던 현실의 여러 의미를 알 수 있다. 윤리적 기능은 문학을 통해 일상의 삶과 세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더 나아가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점검하고 좀 더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세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실천 의지를 갖게 된다. 미적 기능은 문학 작품에 구현된 다양한 형상화 방식을 통해 예술적 감흥을 얻고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다. 작가는 문학적 표현수단, 구조화된 예술적 형식, 자유로운 상상력 등을 통해 작품에서 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는 이를 경험하고 즐기으로써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나) 문학 작품을 통일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짜 주장이 있다. 그것은 문학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이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문학 작품에 대해 내용은 좋은데 형식이 나쁘다든가, 형식은 좋은데 내용은 나쁘다라는 식의 말을 자주 듣는다. 그것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가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가 하는 해괴한 문제로 탈바꿈한다. 문학은 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야말로 문학의 생명이라고 한편에서 말하면, 문학은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문제이다. 내용은 형식과, 형식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이란 내용+형식이 아니라, 내용형식이다. 문학은 그럴듯한 내용에다가 그럴듯한 형식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침전된 내용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좋은 작품은 좋은 내용을 좋은 형식 속에 가둔 것이 아니라,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되고, 내용이 형식이 되는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 있다.

(다) 이 시는 검은 빛깔이라는 어두우면서도 강렬한 색채와 함께 검은색과 녹색이 결합된 역설적인 이미지를 통해 당대의 억압적인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정치적 억압과 폭력에 침묵하는 사람들의 몸이 사물로 변화해 굳어가는 기괴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 얼핏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현실은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자아낼 만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으로서 새롭게 감각된다. 화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미 검게 사물화 되어버린 침묵하는 다수들에 둘러싸인 소년의 공포를 그려낸다. 이를 통해 화자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침묵이 이 세계를 더욱더 기괴하게 만들고 공포에 시달리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여주고,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올바른 것인지를 심문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기괴한 이미지와 같은 작품의 형식적 요소들은 단순히 하나의 특이한 미감(美感)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계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러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행동방식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끔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인간만이 몽상 속에 잠겨들 수가 있다. 몽상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몽상은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학은 그런 몽상의 소산이다. 문학은 인간의 실현될 수 없는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낸다. 그 거리야말로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 불가능한 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삶은 비천하고 추하다.

(마) 환상은 가장 넓은 공간을 향해 열리는 지각의 한 종류이다. 실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것들의 견고함을 부정하고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열어놓는 행위이다. 많은 환상물들은 불가능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면서 이러한 개방적 활동을 지시한다. 불가능성의 제시는 그 자체로 급진적인 행위이다. 환상적인 것은 폐쇄적일 수 없다. 환상성은 닫힌 체계 내부에 있으면서 통일체라고 간주되어 왔던 공간에 침입하여 그 공간을 개방한다. 환상적인 것의 불가능성은 가능한 것 또는 알려진 것 뒤에 잠재하고 있는 다른 의미들 또는 리얼리티를 제안한다. 환상적인 것은 단일하고 환원적인 진실들을 위반하면서 한 사회의 인식 틀 내의 공간을 추적하여 다양하고 모순된 진실들을 이끌어 낸다.

(뒷면에 계속)

(바) 얼씨구나 절씨구. 엇그제까지 박홍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석승*이를 부러워하며, 도주공*을 부러워하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즐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아니리】 한참 좋아라고 절굿대춤***을 추었겠다. 여보시오, 마누라. 우리 굶주리던 속에, 쌀 본 김에 밥이나 좀 해 먹읍시다. …(중략)… 어찌 밥을 먹어 놓았던지, 밥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어 까고 홍보가 죽게 되었구나. 홍보 마누라 밥을 먹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영감이 죽게 되었다니, 홍보 마누라 놀래 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니, 이런 일이 어디가 있소? 어라, 아직도 내가 밥을 먹으려면 내, 쌀 석 섬은 더 먹겠구나.

【아니리】 홍보 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겠다. 이때 홍보 큰아들 놈이 썩 들어오며 제깃밥**** 먹듯 허겼다. 여,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뭇이고, 느그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뉘 아들놈한테 원망을 헌단 말이오? 너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제, 쓰졌소, 거? 그래,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 봅시다. ‘탁’ 튕겨 노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 났던지, 뱃가죽이 장구 가죽 되야갓고 ‘땡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가 보더라. …(중략)… 홍보 자식들이 어떻게 좋던지, 거 여 배를 누르면서 꼭 누르는 것이, 이때 홍보가 어디 살았는고 하면 팔랑치***** 재 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운봉 연재*****로 그냥 넘어 달아오니까, 그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개살같이 그저 불그스름히 넘어오니까 어떻게 놀래 났던지, ‘황룡 올라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해 운봉 시절은 그냥 몇 해 풍년이 들어 갓고 잘 되었제. 이건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선생, 잠시 저 재담이었다. 홍보가 좋아라고 둘째 통을 들여놓고 타는다,

【진양조】 시리령 실건, 툽질이로고나. 예여루, 당그여라. 시르르르르르. 실건 실건으 툽질이야. 이 박을 타거 드면,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은금보화가 나오너라!

*석승, 도주공: 옛 중국의 큰 부자들.

**기민: 굶주리는 백성.

***절굿대춤: 팔만 벌리거나 몸의 관절만 움직이거나 또는 아래위로만 움직이며 제멋대로 추는 춤.

****제깃밥: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밥.

*****팔랑치, 연재: 전라도 운봉 인근에 있는 고개들.

(사) 판소리가 이룩한 예술적 광휘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작품의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인물 형상과 문체 상황의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결말부에 비현실적·낭만적 요소가 질게 개입함으로써 그 의의가 퇴색된 측면이 그렇다. 〈심청가〉나 〈홍보가〉 같은 작품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작품은 전반부에 당대적 삶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해냈지만, 그것을 후반부까지 일관되게 관철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

3-1. 제시문 (가)의 ‘문학의 기능’에 대한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제시문 (다)에서 근거를 찾아 추론하여 쓰시오. (250자±20자) [20점]

3-2. 제시문 (라),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바)의 ‘밥’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사회계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 문항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공부, 즉 지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대학의 문 앞에 들어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의 습득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라는 문제를 생각해보려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사람은 모두 공부를 하지만 그 결과로 우열과 귀천의 위계로 편입되는 경향이 현 시대에는 많다. 하지만 공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이 현묘함을 구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투명한 공적 자아를 갖추고,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여,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문제 1-1은 공부란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성찰하는 것임을 <라틴어 강의>와 예술작품 <대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찾아낼 것을 묻고 있다.

문제 1-2는 공부란 세계를 넓히고 성찰하는 것과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나오는 공부의 요체인 공적 자아로서 사태의 원리를 탐구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이사와 마켓월드의 지식소매상 사례와 비교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 1은 수험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논술로 풀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공부는 우열과 귀천의 위계질서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을 배워나가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부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사태의 원리를 파악하는 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 투명한 공적 자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게 한다.

2. 문항 해설

문제1은 지식을 대하는 방식, 즉 공부에 대한 내용이다.

문제 1-1은 공부에 대한 내용을 다른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라틴어 수업>과 제시문 (다)의 <대사들>이 서술한 사례의 의미를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경지를 넓히는 공부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1-2는 제시문 (가)의 핵심논지와 제시문 (라)의 핵심논지를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이사와 제시문 (바)의 지식소매상을 각각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함에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우열과 귀천의 위계 속에 편입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문학 강의에 참여했던 노숙인의 변화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공부는 우열과 귀천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임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라틴어 수업>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라틴어 강의는 오늘날 많이 사용되지 않는 문법과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고대 로마의 철학과 역사, 문화와 지혜가 담겨 있기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이해의 세계를 넓히고 자신과 인생의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한스 홀바인의 예술작품 <대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그림은 영국 왕실에 파견된 두 명의 대사들을 그린 작품이다. 이 그림은 천체구, 항해 기구 등 르네상스 이래로 서양문화가 이룬 과학 지식과 정복 영토를 상징하는 장치들을 그려 넣고, 대각선으로만 인식되는 커다란 해골을 넣음으로써 인간의 유한성 암시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지만, 예술작품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내적인 삶을 도야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의 구절을 소개하고 있다. 율곡은 공부란 마음에 현묘한 것을 구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의 필생의 과제는 투명한 공적 자아로, 사태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현실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라라고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기록된 이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의 기술을 순자로부터 배웠다. 그는 그의 스승에게 가장 강력한 진나라로 가서 유세함으로써 경제적 궁핍과 낮은 자리를 벗어나려 한다고 이야기한다.

제시문 (바)는 지식소매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식소매상은 마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대중들의 눈앞에서 행동하지만, 마켓월드의 승자의 편에 서서 현실을 개혁하기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가)가 말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를 찾은 후, 이것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라틴어 수업』과 (다)의 <대사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를 통해 나타난 ‘공부’의 의미를 바르게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제시문 (나)의 『라틴어 수업』과 (다)의 <대사들>의 의미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이를 앞서 추출한 ‘공부’의 의미와 적절하게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부’의 의미: 세속적 욕망에 지배되는 것이 아님,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삶의 경지를 넓힘, 스스로를 돌보는 힘을 키움 『라틴어 수업』의 의미: 인생을 성찰, 새로운 세계를 접함, 자신의 세계를 넓힘 <대사들>의 의미: 세계에 대한 통찰과 이해, 세계를 보는 방식의 풍요로움, 내적 삶의 도야 	15
1-2	<p>【제시문 (가)의 논지를 찾고 이것을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이사(李斯)가 지닌 삶의 자세를 비판하며, 제시문 (라)의 핵심 논지를 찾고 이것을 활용하여 제시문 (바)의 지식소매상의 행태를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를 통해 나타난 ‘공부’의 용도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가? 제시문 (마)의 이사(李斯)의 삶의 자세를 적절히 분석하고, 이를 앞서 분석한 제시문 (가)의 논지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있는가? 제시문 (라)를 통해 나타난 ‘공부’의 의의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가? 제시문 (바)의 지식소매상의 행태를 적절히 분석하고, 이를 앞서 분석한 제시문 (라)의 논지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및 핵심 개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를 통해 나타난 ‘공부’의 용도: 우열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님,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됨 제시문 (마)의 이사의 삶의 자세: 공부를 통해 세속적 성취를 추구함,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여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려 함, 이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공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에 임하는 바른 태도가 아님 제시문 (라)를 통해 나타난 ‘공부’의 의의: 더 나은 사람이 됨, 현실을 혁신해 나감, 공적 자아, 사물의 원리 탐구 제시문 (바)의 지식소매상의 행태: 배운 지식을 사용하여 마켓월드의 의도에 따름, 겉보기는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데 기여함, 이는 공적 자아와 지식을 토대로 현실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태도가 아님 	15

4. 예시 답안

1-1. (가)에서는 공부가 세속적 욕망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경지를 넓히거나, 나를 돌보는 힘을 키울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에서 라틴어 수업을 통해 서구문명의 지적 전통을 배우면서 학습자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있다. (다)의 대사들이라는 미술작품을 통해 서양 문화와 과학 지식 등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내적 삶을 도야할 수 있기에 (가)의 공부와 성격이 유사하다.

1-2. (가)에서는 공부가 우열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마)의 이사는 공부를 통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라)에서는 공적자아를 완성하고 사태의 원리탐구를 토대로 현실을 혁신해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바)의 지식소매상은 자신의 지식으로 겉으로는 변화하는 듯 보이지만, 마켓월드의 의도대로 세상을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울곡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 문항 2 -

1. 출제 의도

문제 2는 시장의 효율성과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업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더불어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글과 문제를 제시하여, 지식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사례에 적용하여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1에서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묻고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본질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 인간 및 자연환경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인간과 자연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수험생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였다.

문제 2-2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요인과 각 요인에 따른 정부개입의 수단과 효과를 설명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사례로 사회적 편익과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의 관계, 정부의 개입이 시장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는 시장과 경제적 주체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윤리적 관점으로 평가해보는 것이다.

문제 2-1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져야 할 책임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윤리적 입장을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지어 바람직한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제시문 (가)는 요나스의 저서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에 설명된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와 윤리적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싱어가 엮은 『응용윤리』에 포함 되어있는 로버트C. 솔로몬의 기업윤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업은 궁극적 목적인 이윤 추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한 기업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2-2는 제시문 (바)의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제시문 (라)의 사례에 대한 (마)의 정부 활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이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이 물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수의 신문기사와 연구 자료를 통합하여 재구성하고, 도로교통공사의 교통사고통계자료(2020년)를 활용하였다.

제시문 (마)는 2016년 세법개정안 중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용어는 풀어서 서술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구체적인 수치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제시문 (바)는 통합사회 교과목과 경제 교과목의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단원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시장과 경제 주체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핵심 논지를 찾아낸 후 제시문 (다) 기업 활동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에서 인간은 미래에 발생한 위험(공포)을 미리 예견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고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핵심 논지를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제시문 (나)에서 기업은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핵심 논지를 정확히 제시했는가.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핵심 논지를 활용하여 (다) 기업 활동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가. • 전체적인 문장의 연결과 완성도가 충분한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미리 사유된 위험, 공포의 발견술, 예견된 공포, 책임의 범위, 책임감 있는 대안, 공공의 목적에 기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p>	15
2-2	<p>【제시문 (바)의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라), (바)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라)의 사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제시문 (마)의 정부 활동을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개입으로 이해하고 그 효과를 설명하였는가. • 전체적인 문장의 연결과 완성도가 충분한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시장실패, 외부경제, 과소 소비(생산), 효율적 자원 배분, 정부개입, 세금 감면, 경제 주체의 행동 유도</p>	15

4. 예시 답안

2-1. (가)의 핵심 논지는 미리 사유된 위험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의 마련과 함께 책임의 범위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의 핵심 논지는 기업은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의 기업은 탄소배출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과 함께 공공의 목적 실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 (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률이 낮은 상황은 (바)의 시장실패의 요인 중 외부경제로 설명된다. 기업의 경제 행위가 의도치 않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않으면 자원이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소 소비되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의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책은 (바)의 외부경제에 따른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설명한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같은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유도한다.

- 문항 3 -

1. 출제 의도

문제 3은 수험생들이 글(문학)을 대하는 스스로의 자세를 돌아보고 글을 읽는 행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제하였다. 글(문학)을 형식과 내용 혹은 기능 중심으로 분절하여 분석하거나 감상하는 방식으로 학습해왔다면, 이제 그것에 더하여 글의 각 요소를 분절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읽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봄으로써 글의 맛을 다양한 각도에서 느끼길 바라기 때문이다. 또 표면에 드러난 것 이면에 존재하는, 한 편의 글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함양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이 문항을 마련하였다.

3-1은 한 편의 글을 제각각의 요소들로 분절하여 감상하는 읽기 방식과는 지향을 달리하는 통합적 글 읽기의 의미에 대해 수험생들이 생각해보기를 바라며 출제하였다. 이를 위해 문학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교과서 지문을 재구성한 (가) 제시문,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한 (나) 제시문, 내용과 형식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편의 시를 분석한 (다) 제시문을 주었다.

3-2는 몽상과 환상의 속성을 다룬 제시문 (라)와 (마), 낭만적 환상성이 한껏 구현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홍보가>의 한 대목을 정리한 제시문 (바) 그리고 <홍보가>의 비현실적 결말의 한계를 지적한 제시문 (사)를 주었다. 이를 읽고 환상적(몽상적) 요소들이 구현한 <홍보가>의 환영 이면의 진실을 찾으려 시도함으로써, 환상의 낭만성을 현실 인식의 한계로 보는 작품 해석 시각에서 더 나아가 환상(몽상)이 역설적으로 삶의 진실(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았으면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3은 '문학의 역할'이라는 숨겨진 핵심어를 통해 두 개의 질문을 연결하고 있다.

문제 3-1은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학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제시문 (다)에서 근거를 찾아 추론하여 쓰도록 하였다.

문제 3-2는 제시문 (바)에 등장하는 '밥'의 의미를 제시문 (라), (마)의 몽상, 환상 개념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낭만적 해결의 비현실성을 말하고 있는 제시문 (사)를 비판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문학의 세 가지 기능(미적 기능,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을 다룬 『문학』 교과서의 글들을 혼합하여 재구성 한 것이다.

제시문 (나)는 김현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일부분으로, 문학의 형식과 내용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뽑은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한 편의 글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방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제시문 (다)는 가상의 시를 설정하여 한 편의 시가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통일하여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작한 비평문이다.

제시문 (라)는 김현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운데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몽상'의 역할에 주목한 부분을 뽑은 것이다.

제시문 (마)는 로즈마리 잭슨의 『환상성』 가운데 불가능성의 제시를 통해 닫힌 체계 혹은 공간을 개방하는 새로운 의미들 혹은 리얼리티를 제안하는 환상의 작용에 주목한 부분을 뽑은 것이다.

제시문 (바)는 판소리 <홍보가> 중 홍보 일가가 밖에서 나온 쌀로 밥을 지어먹고 희학(戲謔)하는 부분이다. 생존의 필수 과정에 해당하는 밥 먹는 장면이 몽상적·환상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꿈과 현실의 거리를 보여주거나 익숙한 것에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는 몽상과 환상의 효과에 주목해보게 하였다.

제시문 (사)는 <홍보가>의 비현실적 결말이 갖는 한계에만 주목한 시각을 담아 창작한 글로, (라), (마)를 통해 (바)의 밥의 의미를 해석한 수험생이 (사)와 같은 시각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통합하여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제시문 (나)의 논지를 파악하고, 제시문 (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제시문 (다)의 관점을 추론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나)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가)의 ‘문학의 기능’에 대한 제시문 (나)의 관점을 추론하기 위한 근거를 적절하게 도출하고 있는가? • 제시문 (가)의 ‘문학의 기능’에 대한 제시문 (다)의 관점을 적절하게 추론하여 서술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 문학,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통일적 인지, 변증법적 관계, 내용, 형식, 이미지, 인식, 감각, 태도, 성찰</p>	20
3-2	<p>【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파악하고 활용하여 제시문 (바)의 ‘밥’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시문 (사)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비판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 제시문 (바)의 ‘밥’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해석하였는가? • 제시문 (바)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홍보가>의 결말이 ‘비현실적인 것’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제시문 (사)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 몽상, 억압, 불가능성, 꿈과 현실의 거리, 환상, 실재, 닫힌 체계, 단일성, 모순, 잠재적 의미, 리얼리티, 진실, 판소리, 비현실성, 결말</p>	20

4. 예시 답안

3-1. (나)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나눌 수 없는 변증법적 관계로 본다. (다)는 시에 나타난 기괴한 이미지라는 형식이, 곧 억압적 현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자세를 성찰하는 내용이 되는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나)와 관점이 유사하다. 이 때 (다)의 형식은 (가)의 미적 기능에, 내용은 인식적·윤리적 기능에 대응될 수 있다. 때문에 (다)를 근거로 할 때, (나)는 문학의 세 기능이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취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2. (라)는 꿈과 현실의 거리를 통해 현실의 억압을 보여주는 것이 몽상이고, (마)는 불가능성의 제시를 통해 삶의 이면에 내재된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환상이라고 했다. (바)의 ‘밥’은 홍보의 배가 부풀고, 똥줄기가 황룡이 되는 환상을 이끈다. 이는 기민의 굶주림이 당연시되는 닫힌 체계의 단일한 진실을 위반하는, 기민의 고통이 해소된 새로운 리얼리티를 제안하지만, 결국엔 꿈과 현실의 극단적 거리를 드러냄으로써 홍보와 같은 기민이 처한 비천한 현실을 극명하게 그려낸다. 따라서 이러한 환상을 (사)처럼 작품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한계로 보기보다 현실의 억압을 보다 잘 보여주고, 삶에 내재된 다양하고 모순된 진실을 이끌어내는 장치로 볼 필요가 있다.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가권력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은 정부권위(government authority)와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 둘 중 어디에 보다 의존할 것인지 여부이다. 정부권위에 입각한 정책이란, 예를 들어 공립학교제도의 의무교육기간 규정이나 도로의 건설과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장메커니즘에 입각한 정책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사람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책수행을 시장메커니즘에만 의존한다면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상품과 서비스는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편중된다. **공공서비스**란 국가권력이 공공의 복지를 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권과 기본권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 치안, 도로 및 항만, 교통, 물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보육, 정보통신 등의 영역에서도, 정부는 시장메커니즘에만 의존해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외감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 **기본소득**이란 자산, 소득, 일, 활동 등과 관련 없이 ‘무조건’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적 기초소득, 국민보조금, 시민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어져 왔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본소득은 “정치단위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 조사와 일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정부가 지급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재원이 공적재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에게의 의미는 기본소득이 인구학적 특성, 기여 여부,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5월 20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11,110명 중 사망자는 263명으로 치명률이 2.37% 수준이다. 감염병 대응의 일차 방어선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 **공공보건의료** 체계구축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적 개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3개로 꼴지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율도 5.7%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 투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보건의료가 사회안정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 확대 양성, 공중보건 예산 확충 등 제도정비와 재정투자를 비롯하여 지자체와 커뮤니티의 보건복지인프라를 활용한 장기간에 걸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 환경 개선과 더불어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

(뒷면에 계속)

(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 비율은 1991년 96.1%에서 2016년 74.5%로 26년 동안 21.6%p 하락하였다.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던 이 비율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93.4%에서 1998년 81.0%로 급감한 이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소득 격차는 2017년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2만 원인데 비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8만 원(68.7%)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임금노동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현재 정부가 임금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득 수준이 비슷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 최근 다문화 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세계화에 따른 활발한 국제 교류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과 농촌 총각들과 외국 여성의 혼인 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Kosian)**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우리의 혼혈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과 편견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문화적 다양성, 다인종·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피부 색깔, 얼굴 모양, 가치관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또 정부는 혼혈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과 함께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 및 의료접근성 강화와 교육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혼혈인이나 외국인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국가 구성원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형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바) 존 롤스(John Rawls)는 공정성이 정의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임을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상태, 즉 원초적인 입장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정의의 기본 원칙으로 2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 즉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될 수 있도록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는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불평등은 ㉞ **부정의**가 된다.

1-1. 제시문 (가)의 공공서비스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 기본소득과 제시문 (다)의 ㉡ 공공보건의료의 차이가 갖는 성격을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가)와 (바)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소상공인, (마)의 코시안에게 발생하는 ㉞ 부정의 상황과 그것의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아이들이 여기 길 한복판을 선택하여 유희하고 있다. 돌맹이를 주워 온다. 여기는 사금파리도 벽돌 조각도 없다. 이 빠진 그릇을 여기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는 풀을 뜯어 온다. 풀 - 이처럼 평범한 것이 또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록빛의 물건이란 어떤 것이고 간에 다시 없이 심심한 것이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곡식을 뜯는 것도 금제(禁制)^{***}니까 풀밖에 없다. 돌맹이로 풀을 짓찧는다. 푸르스레한 물이 돌에 가 염색된다. 그러면 그 돌과 그 풀은 팽개치고 또 다른 풀과 다른 돌맹이를 가져다가 똑 같은 것을 반복한다. 한 십 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이렇게 놀아 본다. 십 분만이면 권태가 온다. 풀도 싱겁고 돌도 싱겁다.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있나? 없다. (-중략-)

여북하면 저렇게 놀까. 이들은 놀 줄조차 모른다. 아버지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들 귀여운 아기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그들의 유희가 내 눈에는 암만해도 유희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하늘은 왜 저렇게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산은 별판은 왜 저렇게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조물주에 대한 저주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라. (-중략-)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앉아서 소리가 없다. 무엇을 하나. 무슨 종류의 유희인지, 유희는 유희인 모양인데 - 이 권태의 왜소 인간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의 유희를 발명했나. 오 분 후에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들썩 일어나선다. 제각각 대변을 한 무더기씩 누어 놓았다. 아 - 이것도 역시 그들의 유희였다.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그러나 그 중 한 아이가 영 일어나지않는다. 그는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는 이번 유희의 못난 낙오자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의 빛이 보인다. 아 -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과 완구를 주소서.

*오관(五官) : 다섯 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피부를 이른다.

**망쇄(忙殺) :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몹시 바쁨.

***금제(禁制) :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통제함.

(라)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낀다고 말하곤 한다. 소통의 부재와 관계 맺기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는 기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와 개인주의 풍조가 낳은 병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유리(流離)된 채 홀로 남겨져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막막한 시간을 흘러보내기 위해 때로는 대중문화와 오락산업이 제공하는 자극들에 기꺼이 몸을 맡기기도 한다.

그런데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독은 홀로 있는 즐거움을 누리며 내면에서 평화를 찾고 만족하는 정신적 여유이지만 외로움은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공허이자 헤어 나올 길 없는 일종의 자기혐오에 가깝기 때문이다. 군중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독창적인 사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가 고독의 상태라면, 홀로 있음에 대한 불안으로 내면이 황량하고 영혼이 텅 비어 폐마른 상태는 외로움이다. 그러니 삶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잃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열정과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또 자신을 비판하는 진정한 용기를 드러내기 위해 고독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비인간화된 사회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회복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적 사유와도 이어져 있다.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타인의 시선이 부재하는 고독의 시간을 불안의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사유가 무르익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자유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 제시문 (가)의 관점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시적 화자와 제시문 (다)의 나의 삶에 대한 태도를 대비 설명하십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아 -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과 완구를 주소서”라는 발화를 비판하십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지난 세기는 면역학적 시대였다. 즉 안과 박,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진 시대였던 것이다. 지난 세기의 면역학적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냉전의 어휘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장치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를 장악한 이러한 면역학적 장치의 본질 속에는 어떤 맹목성이 있다. 낯선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면역 방어 대상은 타자성 자체이다. 아무런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자도, 아무런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타자도 이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소진증후군 등이 21세기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한다. 이들은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과잉생산, 과잉가동, 과잉 커뮤니케이션이 초래하는 긍정성의 폭력은 ‘바이러스적’이지 않다.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보단 포화시키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다.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소진증후군과 같은 신경성 질환은 바이러스성 폭력과 같이 여전히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의 면역학적 도식을 따르는, 시스템에 적대적인 특이한 개별자나 이질성을 전제하는 개념으로는 정확히 기술할 수 없다. 신경성 폭력은 시스템에 이질적인 부정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시스템적인 폭력, 시스템에 내재하는 폭력이다. 우울증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나 소진증후군도 긍정성 과잉의 징후이다.

(나) 창의성의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근면과 성실로 무장한 노동으로 축적한 부의 성공시대는 가고, 고난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도전 정신으로 성공한 영웅들이 등장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은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자 슬로건이 되었다. ‘창의적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란 표어가 내걸리고 ‘창의경영’을 내세우며 급기야는 ‘창조경제’란 말도 들린다. 학력과 연줄로 이어진 사회의 성공 매커니즘에 창의성이란 스펙을 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도 들리기 시작한다.

창의성이란 현재의 법칙과 질서와 전혀 다른 세계를 상상하며, 그리고 이를 통해 나와 또 다른 나 혹은 타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과 관계된 것이다. 또한 그것은 현실의 모순과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한 사유와도 관계된다. 인류의 진보는 다양한 개인에 의해 발현된 창의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화된 결과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창의성의 시대에 창의성은 오히려 획일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상상력의 스펙트럼 중에서 자본에 의해 부와 성공의 수단으로 고착화되고 획일화된 창의성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요되는 형국이다. 노동의 종말이 시작되고 두뇌의 착취가 시작되는 순간, 지배 권력이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 상상력과 창의성이다. 그것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자본을 재조직하기 위한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소위 ‘지식정보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적 자질로 강요되는 순간 창의성은 개인을 억압하기 시작할 것이며, 상상력은 자본의 그물망으로 포획될 것이다. 그 결과 창의성은 사회로부터 파편화된 개인을 효율성과 이윤을 앞세운 사회의 가치로 통합시키기 위한 가치로 전략할 것이다.

(다) 나는 해고되었다. 한 달 전에 이미 통지를 받았고 책상은 지난주에 정리되었다. 모든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깊어가는 가을보다 먼저 깊디깊이, 그래프로 떨어져 내리는 경기 탓이었다. 회사는 브랜드 네임을 좀 더 이국적인 언어로 바꾸고 그에 걸맞은 이미지의 옷들을 생산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단발머리에 금속 광택이 나는 꽃핀을 꽂은 신세대들이 짧은 치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대거 회사 문으로 입장했고 파마를 자주 해서 머리가 푸석해진 우리들은 반대편 문으로 이제 나가야 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신선한 감각을 생명으로 하는 이 바닥에서 사실 서른이면 구세대였고 우리는 이미 촉탁 디자이너라는 이상한 이름을 달고 있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해고가 아닌 촉탁 해지였다. 경리과에 가서 한 달에서 조금 모자라는 날짜가 적힌 지불명세서를 냈다. 상고를 갖 졸업한 듯이 보이는 머리가 기다란 소녀가 내게 지불할 지폐를 봉투에 넣고 동전을 세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으니 나는 십년에서 조금 모자란 날들을 이 회사에서 보낸 셈이었고 그런 지난날들이 그 소녀가 세는 동전 소리로 딸그랑딸그랑 마감되고 있었다. (...중략...)

(뒷면에 계속)

처음 입사하던 때의 설렘,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일의 뿌듯함, 패션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주는 약간의 오만함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 소녀만한 나이 때, 나는 열렬하게 말하곤 했다. 창의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 월급봉투를 기다리고 있는 나는 속빈 껍질 같았다. 내 속에서 나를 나답게 해주던 모든 촉촉함 같은 것들이 창의력이라는 이름으로 소진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었다. 아무리 해외출장을 다니고 세계 유수의 패션잡지를 들여다보아도 유행은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었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르도록 정해져 있는 공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처럼 나는 언제나 숨이 찼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그만 뛰지. 공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버렸어. 이제는 날개가 달린 사람이 필요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만 멎어버린 기분이었다. 소녀가 동전까지 정확히 센 봉투를 내밀었다. 모든 끈이 떨어져나가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허탈감이 휘익 나의 내부를 훑고 지나갔다.

(라) 역병은 흔히 정치·경제·사회·국제질서의 격변을 초래했다. 최초의 팬데믹(Pandemic)*으로 알려진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비잔틴 제국의 몰락을 재촉했고, 17세기 중국의 흑사병은 거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명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기도가 아닌 위생과 검역이 병을 물리치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신권은 하락하고 왕권이 강화되었으며,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토양이 형성되었다. 인구의 반이 죽은 탓에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었고, 토지소유주들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높은 임금을 제공하면서 농노제 해체를 가속화하였고, 자본주의의 맹아가 태어났다. 그러나 역사적 위기가 반드시 진보를 낳는 것은 아니다. 위기는 진취적 가능성과 퇴행적 가능성 모두 내포한다. 가령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서유럽에서는 르네상스와 자본주의의 맹아를 낳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동유럽에서는 영주들의 가혹한 억압이 성공하여 오히려 이때부터 농노제가 확립되었고 그 결과 경제발전이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팬데믹(Pandemic) :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

(마) 호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동양인 혐오 범죄가 발생했다. 20일 싱가포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호주 멜버른 중심가에서 길을 걸던 싱가포르인 여성 두 명이 백인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구두를 신은 발로 때렸다. 이런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퍼지면서 알려졌다. 동영상에는 소매가 없는 점퍼와 흰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한 여성의 머리카락을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며 구두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다. 한 시민의 제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덕에 다행히 피해자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 한 여성은 “가해자들이 심한 욕을 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협박했다” 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두렵다” 고 했다.

3-1.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300자±20자) [20점]

3-2. 제시문 (가)와 (라)의 핵심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30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예시답안(인문·사회계)

- 문항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정책이 시장메커니즘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정부권위에 의존하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공공서비스 개념과 존 롤스의 정의의 개념을 통해서 파악함을 이해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문제 1-1은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이 개념이 실현되는 사례를 제시문을 주어 찾아 기본소득과 공공보건의료가 갖는 성격을 해석해낼 수 있는지 파악하려 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정책으로 실현되는 기본소득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갖는 취지와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산업기술 변화와 질병 등에 의해 초래되는 현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정책을 성찰하게 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문제 1-2는 불평등 및 부정의 개념이 드러나는 사례와 해결방안을 주어진 제시문에서 적절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파악하려 하였다. 아울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공공서비스 개념과 존 롤스의 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을 이해하고 분석해보는 것이다.

문제 1-1은 '공공서비스' 개념을 다룬 제시문 (가)를 근거로 제시문 (나)의 기본소득과 제시문 (다)의 공공보건의료 개념의 성격을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1-2는 제시문 (가)가 제시하고 있는 정부권위에 의한 공공서비스 정책과 제시문 (바)가 제시하고 있는 존 롤스의 정의의 개념에 반하는 불평등의 '부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소상공인과 제시문 (마)의 코시안에게 발생하는 부정의의 상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필립 쉬블리의 정치학 개론 저서에서 소개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국가는 시장메커니즘과 정부권위에 의거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메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서비스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재원을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갖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공공의료인 양성, 공중보건 예산 확충 등 제도 정비와 재정투자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의 시급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의 격차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우리사회가 이미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다인종·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과 함께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존 롤스의 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롤스의 정의의 기본 원칙 2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화될 조건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기회의 평등에 대한 내용이다. 롤스는 이 정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은 불평등이며 곧 부정의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 공공서비스, 정의, 공정성 등 이 주제에 관한 핵심 개념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법과 정치』 등 고등학교 인문 사회 교과 전반에서 중요 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가)의 ‘공공서비스’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서 이를 제시문 (나), (다)와 연결하고, 공공서비스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의 핵심 개념을 찾아 언급하였는가? •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를 읽고 파악한 공공서비스와 연결시키면서 서술했는가? • ‘공공보건의료’의 성격을 (가)를 읽고 파악한 공공서비스와 연결시키면서 서술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 공공서비스, 국가권력, 공공 복지, 공공성 강화, 인권과 기본권, 공동체 구성원 모두, 기본소득, 공공재원, 모든 국민, 인간다운 생활 보장, 공공보건의료, 코로나 질병, 모든 국민들의 생명, 사회안전망 등</p>	15
1-2	<p>【제시문 (가)와 (바)의 논지를 파악해서, 이를 제시문 (라)의 <u>소상공인</u>, (마)의 <u>코시안</u>과 연결하고,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와 (바)의 논지를 파악해서 (라)의 소상공인, (마)의 코시안과 연결했는가? • (라)의 소상공인, (마)의 코시안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를 언급하였는가? • (라)의 소상공인, (마)의 코시안의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 부정의,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무시, 경제적 불평등, 자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동등한 참여, 사회·문화적 차별, 편견, 소득 격차, 교육, 다문화, 국민인식, 사회안전망 등</p>	15

4. 예시 답안

- 1-1. (가)는 공공서비스란 국가권력이 공공의 복지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과 기본권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의 기본소득은 정부가 지급주체가 되어 공공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의 공공보건의료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 1-2. (가)와 (바)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로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무시와 경제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의 코시안에게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는 보건 및 의료접근성 강화와 다문화 수용, 그리고 국민인식 개선 및 전환과 제도 및 교육과정 변화와 (라)의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소득격차에 대하여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득증가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문항 2 -

1. 출제 의도

문제 2는 지나친 세속적 가치 추구 경향이나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주어지는 각종 자극으로 인해 삶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삶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실존적 주체로 바로 서려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문제 2-1은 장자의 '도'에 관한 제시문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 후 그것을 토대로 하여 물아일체의 경지에 다가가려 노력하는 인물과 자연 속에서 합일하지 못하고 권태를 느끼는 인물의 대조적인 성향을 짚어내어 간명하게 서술하는 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 2-2는 주체적 결단력과 실존하는 것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말초적, 물질적 자극이나 고독이라는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논지의 글을 읽은 후 무묘한 현실을 주체적으로 타개하려는 의지 없이 외부의 도움과 물질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해당 발화에 들어있음을 간취하여 비판하는 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문항 해설

문제 2는 주체적 사유에 의한 자유와 행복의 탐색과 고독을 통한 실존의 의미 회복에 관하여 이해하고 분석해 보는 문항이다.

문제 2-1은 장자와 도가 사상의 핵심 내용을 다룬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나)와 (다)의 화자가 지닌 삶의 태도를 대비하여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2-2는 제시문 (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지인 고독을 통한 실존의 의미 회복에 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발화에 나타나는 내용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불질적·외부적 자극의 추구를 비판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검정교과서 2종에 제시된 동양 윤리사상 중 도가 사상의 관련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이는 도가 사상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제물', '소요유', '물아일체'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하나되는 것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길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정지용의 시집 『백록담』에 수록된 시 '장수산 1'과, 시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시평인 홍기돈, '정지용의 산수시와 주체 재구성의 문제 - 장수산 1, 장수산 2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11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내용은 시의 화자가 현재의 어둠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며 고향을 견디는 고결한 정신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이상의 산문 '권태'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내용은 글의 화자가 한산함과 권태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그러한 성찰을 주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독과 실존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부산일보에 게재된 백태현 칼럼 ‘치열하게 나와 마주하는 시간 ‘고독’, 그 우아한 순간’ 기사(2019. 9. 18)를 재구성하고 이를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검정교과서 1종(미래엔)의 내용과 결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내용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면서 고독의 시간을 자유에 근거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의 계기로 설명하고 있다.

자유, 행복, 주체적 사유, 실존 등 이 주제에 관한 핵심 개념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인문 사회 교과 전반에서 중요 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제시문 (가)의 견해를 토대로 하여 제시문 (나)의 시적화자, 제시문 (다)의 나가 견지하고 있는 삶에 대한 차이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바른 삶의 자세가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의 경지임을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나)의 시적 화자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빛을 찾고 내적 시름을 담담하게 견뎌내겠다는 의지를 지닌 인물임을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다)의 나가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시간을 오로지 권태롭다고만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노력도 하지 않는 인물임을 파악하였는가? <p>- 예시답안 참조 - 핵심어 : (대)자연, 외물, 어둠, 빛, 몰아일체(자연과 하나가 됨), 평등, 자유, 행복, 자연의 순환, 도회, 사회제도(인위적 규범), 얽매임(구속), 내면 성찰, 권태</p>	15
2-2	<p>【제시문 (라)의 논지를 파악한 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의 밑줄 친 발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라)의 논지가 외로움과 구분되는 고독의 가치를 알고, 고독의 시간에 창조적, 주체적 사유를 함으로써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실존의 의미를 회복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다)의 풍경과 완구가 고독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창조적, 주체적 사유를 돕는 수단이 아니고 순간의 무료함,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물질적 대안, 외부 자극으로 제시된 것임을 파악하였는가? <p>- 예시답안 참조 - 핵심어 : 외로움, 고독, 창조적 사유, 주체적 사유, 권태, 공허함, 외부 자극, 실존</p>	15

4. 예시 답안

2-1. (나)의 화자는 적막한 산중의 밤이라는 시공 속에서도 외물에 얽매어 자신을 억압하지 않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현실을 돌아보는 삶의 자세를 추구한다. 어둠 이후에 빛이 온다는 자연의 순환성을 인지함으로써 담담하게 시름을 견딜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얻는 것이다. 반면 (다)의 나는 도회가 아닌 곳에 있음에도 도회를 상징하는 사회 제도 등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연 속에서의 자기 성찰을 거부하며 모든 것을 권태롭게 여기기 때문에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2-2. 제시문 (라)는 공허나 자기혐오의 감정인 외로움과 정신적 여유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고독감을 구분한다. 그리고 고독감을 통해 창조적, 주체적 사유를 키우고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며 스스로를 비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제시문 (다)의 발화는 타인과 유리된 자기 현실을 외로움, 권태로만 인식하는 '나'가 아이들의 유희마저 외로움에 대한 몸부림으로 규정하고 풍경과 완구라는 외부적 자극을 통해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을 담고 있다.

- 문항 3 -

1. 출제 의도

문제 3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과 문제들을 '질병'이라는 핵심어를 통해 비판적으로 관찰 및 사고하기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이질적인 타자를 맹목적으로 배격하던 과거시대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사회는 진보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현대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압박은 인간을 도구적 가치로 전락시키고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진시키게 한다. 또한 이번 COVID-19 감염증 팬데믹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위기에 놓인 사회는 다시 과거사회로 퇴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현상을 통해 현대사회와 과거사회의 특징을 구분하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았으면 하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문제 3-1은 소설 속 주인공의 상황을 제시된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긍정성 과잉으로 인한 자기 소진으로 허탈감에 빠진 주인공이 더 이상 자신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되는 상황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개인에서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 3-2는 현대사회와 과거사회를 비교하고 실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통해 시대적 진보에 대해 묻고 있다. 위기는 사회를 변화하게 한다. 변화는 진보와 퇴행, 양 방향이 가능하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3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한 철학적 논의나 비판적 논설을 참고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들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를 요구한다.

문제 3-1은 신경증적인 현대사회의 자기 소진 문제가 제시된 제시문 (가)의 관점과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창의성'이라는 가치가 획일화되어 강요되고 있는 문제가 비판적으로 제시된 제시문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해고 이후 일종의 소진증후군과 유사한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된 제시문 (다)의 소설 속 주인공 '나'의 상태를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3-2는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거의 '면역학적 패러다임' 혹은 '바이러스의 시대'의 특징을 현재의 '신경증적 시대'의 특징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동시에, 이를 제시문 (라)에 나타난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의 진취적 가능성 및 퇴행적 가능성'이라는 문제와 결부시켜, 제시문 (마)에 나타난 COVID-19 감염증의 유행과 함께 다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현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한병철이 쓴 『피로사회』의 서두 부분을 일부 재구성한 것으로,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주요한 질병이 있다는 전제 아래, 20세기를 이질적 타자를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며 타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바이러스의 시대'로, 21세기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자기 고갈 혹은 자기 소진을 그 특징으로 하는 '신경증의 시대'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김진송이 쓴 『경향신문』 칼럼(2013.5.29.)인 「획일화된 창의력」을 요약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창의성이 강조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이 획일화되어 강요되고 있는 현상 및 그 원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글이다.

제시문 (다)는 공지영 소설집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에 표제작으로 수록된 단편소설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의 서두 부분으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해고당해버린 한 디자이너의 상실감을 서술자이자 주인공의 '나'의 내면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밀도있게 제시한 부분이다.

제시문 (라)는 유종일이 쓴 『프레이션』 칼럼(2020.4.20.) 「'포스트 코로나' 세계, 네 개의 키워드를 주목하라」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염병에 의한 사회적 변화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진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퇴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 글이다.

제시문 (마)는 『한국일보』의 보도기사(2020.4.20.) 「“너는 코로나 바이러스!” 호주서 ‘동양인 혐오’ 구뭇발 폭행」을 축약 및 재구성한 것으로, COVID-19 감염증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던 동양인 혐오 범죄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가), (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 (나)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제시문 (가),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내'가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 신경증, 긍정성, 과잉, 창의성, 획일화, 폭력, 효율성, 고갈, 소진, 자본주의, 지식정보사회, 소진증후군</p>	20
3-2	<p>【제시문 (가), (라)의 핵심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난 실제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 (라)의 핵심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제시문 (가), (라)의 핵심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난 현상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 전염병, 팬데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면역학, 바이러스, 신경증, 타자(타자성), 이질성, 폭력, 제거, 사회적 변화, 퇴행</p>	20

4. 예시 답안

3-1. (가)에서는 긍정성의 폭력을 신경증적 시대의 특징으로 제시한다. 긍정성의 폭력이란 개인을 긍정성 과잉에 내몰고 결국 고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창의성이 오히려 획일화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창의성을 강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창의성이 개인을 억압하는 도구적 가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는 조직 내에서 창의성의 고갈로 인해 퇴장하는 '나'를 그리고 있다. (가)의 관점에서 '나'는 긍정성 과잉으로 창의성을 좇다가 고갈되어 버린 상태이며 (나)의 관점에서 창의성이 고갈된 '나'의 퇴사는 창의성이 도구적 가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가)는 지난 세기가 이질적인 타자성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면역학적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고갈이 문제시되는 신경증적 시대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변화의 방향이 진취적일 수도, 퇴행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핵심 논지로 삼는다. (마)는 전염병의 공포로 인해 자신과 다른 타자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현상을 제시한다. (가)의 논지에서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면역학적 시대의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에 나타난 현상은 전염병으로 인한 시대적 퇴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설명될 수 있다.

**2020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 술 고 사(인문·사회계) 문 제 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 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마을은 1968년 철거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주지역으로 선정되어 인구가 급증하면서 철거민 동네, 못사는 동네 등으로 인식되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동네로 기억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희망세상’이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지역운동이 전개되었다. 복지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희망세상 활동 중에서 가시적 결과로 드러난 공간이 ㉠ **느티나무 도서관**이다. 도서관 건립 당시 주민들의 <벽돌 한 장 기금 모금 운동>은 전국적으로 감동을 주었고, 주민들의 자발적 역동성을 도서관으로 모이게 하는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지역 과제가 주민의 참여로 해결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민이 지역의 능동적 주체가 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이지만 동시에 주민들이 참여해 A 마을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역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거점센터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나) 미국의 산업이 발전하던 1910~1930년대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남부 농장지대에서 북부 산업도시로 대이동을 했다. 경제력이 없어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한 흑인들은 도심과 교외에 크고 작은 흑인 공동체를 형성했다. 초기에는 흑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모여 살자는 의미가 강했고 그 안에서 흑인들은 나름의 문화적 전통을 만들고 삶의 토대를 꾸려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노력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흑인에 대한 공간적 격리는 점점 구조화됐다. 시카고의 경우,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s)」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한 흑인이더라도 백인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집을 사거나 임대차를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흑인들은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돼 있던 유럽의 게토(ghetto)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1965년 「짐 크로우 법」은 폐기됐지만, 이들은 게토라는 격리된 공간을 통해 흑인 빈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영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 **흑인 게토**는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며 범죄가 판을 치는 ‘버려진 섬’이 되었다. 이곳 고등학생의 70%가 학교를 중퇴하고 30대의 20%가 감옥에 다녀왔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 준다.

(다) 사람은 공간에서 어떻게 자리하느냐에 따라 몸과 행위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까지 달라지는 상황적 존재이다. 그래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처럼 공간에 대해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인식과 그에 관한 보장이 일찍부터 진전되어왔다. 그러나 모든 공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개인의 집도 순전히 개인의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까닭에 기본적으로 일정 지역의 공간은 해당 지역 집단 전체의 민주적인 논의와 결정에 따라 사회 정의와 윤리가

(뒷면에 계속)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간주권**에 대한 논의는 공간의 공공성, 인간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이 민주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대안적인 삶의 정치가 배태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 공간주권은 ‘주권’이기에 누구에게 요구하여 얻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말하고 행사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이 보편적 인권에 근거해 균등하게 접근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

(라) 아렌트가 말한 공공성은 ‘현상의 공간(space of appearance)’과 관련된다. 현상의 공간은 사람들이 행위와 논의에 의해 서로 관계하는 지점에서 창출되는 공간이다. 현상의 공간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잠재적으로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현상의 공간 안에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표상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에 살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구(who)’와 ‘무엇(what)’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란, 예를 들면 남성·중년·한국인 등으로 그려지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다.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묘사될 때, 그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서로를 ‘무엇’으로 치우하는 표상의 공간에 살고 있다. 그런데 표상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라는 표상, 장애인이라는 표상, 노숙자라는 표상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 표상은 부정적 정체성을 각인 받은 사람들의 심신에 상처를 주는 폭력의 명백한 원천이다. 이와 달리 사람들은 현상의 공간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unique) 존재로 드러난다. 또한 현상의 공간은 타자를 유용성 여부로 판단하는 공간이 아니다. 공리주의적 사고는 쓸모없는 자를 즉시 배제하는 것이 정답이라 간주한다. 그러나 현상의 공간을 만들려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반성해야 한다.

(마) 2011년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㉞ 많은 시민 단체들이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퇴거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강제퇴거가 아니라 노숙금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매일 새벽 1시경부터 청소를 위해 문을 폐쇄했었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는 역사(驛舍)를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해외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홈리스(homeless)를 몰아내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벤치나 화장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쇄했다.

1-1. 제시문 (다)의 **공간주권**의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 **느티나무 도서관**, (나)의 ㉡ **흑인 계토가** 갖는 성격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다)와 (라)의 논지를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제시문 (마)의 ㉞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632년 피렌체에서 갈릴레이의 『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이하 『대화』)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두 명의 철학자와 한 명의 시민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해서 나흘 동안 토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태양의 흑점,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 금성의 차고 기움, 목성의 위성들을 관찰했다. 그는 “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쓰아올린 화살은 제자리에 떨어지는가?”, “왜 지구가 운동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물리학적인 논변을 제기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밀물과 썰물이었다. 갈릴레이의 조수이론은 수학의 기하학을 사용해서 경사면의 운동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추상화하는 근대 물리학의 전통을 세웠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1633년 심각한 이단 혐의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종신 가택연금에 처해지고 『대화』는 금서가 되었다.

(나) 1687년 출간된 뉴턴의 명저 『프린키피아』의 원래 제목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였다. 이 책은 케플러의 법칙 중 왜 행성이 타원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증명으로부터 시작한다. 뉴턴은 서문에서 자신의 방법론이 자연 현상에서 수학적 형태로 표현된 힘(force)을 발견하고 이 힘을 이용해서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턴에게 신은 한 번 우주의 태엽을 감은 뒤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운행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존재였다. 우주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만유인력은 신의 섭리가 작동하는 원리에 다름 아니었다. 태양계와 같은 조화로운 우주는 신의 섭리가 충만한 공간으로서 자연철학을 통해 우주에서 신의 계획을 이해하면 인간의 세계에서 관찰되는 신의 섭리 역시 알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뉴턴과 그의 제자들에게 자연철학은 올바른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과학(특히 물리학)은 신학과 철학을 제치고 지식의 표본이 되었고, 자연과학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상식이 되었다.

(다) 다윈은 1831년부터 영국 해군 조사선 비글호를 타고 5년 동안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면서 동·식물을 채집하고 조사하여 18권의 공책에 꼼꼼히 기록했다. 특히 4주 동안의 갈라파고스 군도 탐험은 다양한 종(種)들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항해의 절정이었다. 다윈은 채집된 동·식물의 자료를 통해서 종들이 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계통도를 그리면서 자연선택이라는 생각을 다듬어 나갔다. 맬서스의 경제학 저서 『인구론』을 읽고 생존 경쟁 개념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윈은 1859년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이하 『종의 기원』)를 출간하면서 자신의 혁명적 이론을 세상에 알렸다. 그 당시 생명이 진화한다는 주장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종의 기원』의 독창성은 생물의 진화가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며, 그 결과 생명이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 진화한다는 사실을 밝혀준 데 있다. 철학자 데넷은 다윈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보다 인류 역사상 더 뛰어난 사상가라고 평가했다.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의미와 목적이 없는 물질 영역을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설계가 있는 생물 영역과 통합했기 때문이다. 다윈의 자연선택론은 생물학의 영역에서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고 다윈의학, 진화철학, 진화경제학, 진화심리학 등의 새로운 학문 종들이 등장하는 데 기여했다.

(라) 지식은 16세기를 기점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중세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학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르네상스의 상당 기간에도 당시의 전형적인 학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전문가다운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러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르네상스인이라고 부른다. …(중략)… 이른바 ㉠ 통섭(統攝, consilience)이란 지식의 통일성(unity of knowledge)을 의미한다. 이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통합되어 있기에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리하면 그것들만의 고유한 존재 이유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하며 모든 과학은 개념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뒷면에 계속)

(마) 제들마이어에 따르면 **현대예술**은 일종의 이상숭배이다. 인간이란 최고의 신적 존재를 향한 초월성의 체험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믿음을 거절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초월성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인간은 신을 부인할 자유를 얻었지만, 그 때문에 자신의 세계를 다른 그 무엇을 동원하여 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직면했다. 신에 대한 믿음의 자리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특정한 무엇 - 사랑, 자연, 예술, 과학기술, 민족국가 등 - 에 대한 믿음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들에 절대자의 모든 힘과 존엄성을 부여했다. 이것이 이상 형성의 과정이다. 현대예술은 스스로 이상을 만들어나가며 자신이 이상이 되었다.

(바) 이름 없는 용사의 비석에 자신의 경의를 표하는 의식(儀式)은 근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앤더슨은 민족주의자의 이러한 의식이 죽음이나 불멸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신에 대한 종교적 상상과 강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종교는 우주 안에서의 인간, 종(種)으로서의 인간, 삶의 우연성과 숙명성(예를 들면 출생, 질병, 노화, 죽음 등) 그리고 세대를 잇는 연속성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계몽주의와 합리적 세속주의의 등장으로 서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적 사고는 황혼기를 맞고 있었고 **민족주의**가 기존의 종교적인 관심들을 대체하게 되었다. 앤더슨은 민족주의가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더 큰 문화체계와 결합함으로써 그리고 그 문화체계를 잠식함으로써 탄생한 것이라고 본다. 신성한 종교적 언어들, 예를 들면 라틴어는 지방어였던 개별 민족의 언어로 점차 대체되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이를 촉진시켰다. 합스부르크와 같은 종교적 제국의 거대한 영토는 해체되고 새로운 근대 민족국가가 우후죽순으로 탄생했다. 시간의 관념은 동질적이고 공허하며 장구하게 움직이는 종교적 시간으로부터 민족국가 공동체의 역사적 시간으로 대체되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숙명성은 신으로부터 이제 민족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2-1. 제시문 (가)의 **갈릴레이**, (나)의 **뉴턴**, (다)의 **다윈**이 수행한 제시문 (라)의 ㉠ **통설**의 방식에 대하여 각각 서술하십시오. (200자±20자) [10점]

2-2. 제시문 (나)의 **뉴턴**의 **만유인력**, (마)의 **현대예술**, (바)의 **민족주의**의 의미를 비교 설명하십시오. (300자 ±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증오는 증오로써 맞서면 안 된다. 증오에 대처하려면 증오의 유혹을 뿌리치는 수밖에 없다. 증오로써 증오에 맞서는 사람은 이미 자기도 따라 변하도록 허용한 셈이며 증오하는 자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 것이다. 증오에는 증오하는 자에게 없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관찰과 엄밀한 구별과 자기성찰로써 대응해야 한다. 그러려면 증오를 이루는 성분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해체해야 하고, 강렬하고 발작적인 감정으로서의 증오를 그 이데올로기적 전제들로부터 분리해 어떠한 역사적, 지역적,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해 작동하고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별것 아닌 듯 여길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광신적인 이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 **증오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과 증오가 날릴 수 있게 하는 구조, 증오가 작동하는 기제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증오에 동조하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잃게 할 수만 있어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고방식과 관점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증오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경솔한 순진함이나 냉소주의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제는 조용하게 평화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혐오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나) 두려움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한다는 점에서 두려움은 유용하고 실로 필요한 것이다. 두려움의 자극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특히 죽음과 폭력, 신체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방어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러모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뺨의 생김새에 대한 두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소음, 또는 사람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생기는 두려움은 유용할 수 있지만 악용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연상을 통해 문화적으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보이는 집단들 그리고 교활하고 사악해 보이는 집단들을 두려워하도록 학습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고정관념들은 소수자 집단을 악마화하고 증오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다)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민자를 증오하거나 무슬림을 악마화하거나 모습이나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극도로 기피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모든 확신이나 감정을 정당한 걱정으로 위장한다. 그러나 걱정이란 외피에 감싸인 증오가 권력으로부터 주변화되어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된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나 배출구가 아닌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여러 곳에서 혐오발언과 증오와 폭력으로 터져 나오는 그 에너지들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를 각각의 집단들도 자기 비판적으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걱정하는 시민들: 독일에서 난민 유입과 포용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세력이 스스로 일컫는 말.

(라) 언어의 수행적(performative)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모든 발화(發話)는 발화와 결부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오래 켜둔 방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에어컨을 끄자는 요청을 하기 위해 “춥지 않아요?”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때 수행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 말은 ‘당신이 춥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을 끄자.’라는 발화자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처럼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발화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한국에서 ‘여보’라는 발화는 통상 다른 사람을 불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말을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며 한국인들을 희화화하기 위해 ‘여보’라는 말을 발화하곤 했다. 이러한 방식의 발화 행위가 일반화되면서 한국어 ‘여보’를 어원으로 하는 ‘요보’라는 일본식 표현은 일종의 멸칭(蔑稱)*으로서 대부분의 발화 상황에서 한국인들을 비하하여 지칭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멸칭(蔑稱): 상대를 경멸하여 부르는 말.

(뒷면에 계속)

(마) 언젠가 명동에 다녀온 그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친절한 거라고? 웃기는 소리 마.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지. 너도 얼굴만 좀 하얗다면 미국 사람처럼 보일 텐데…….”

그 뒤로 나는 저녁마다 물에 ㉠ **탈색제** 한 알을 풀어 세수했고 저녁이면 내가 얼마나 하얗게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비비충을 새로 산 남자애들의 첫번째 표적이 되지 않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왕따가 되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세숫대야의 물을 거칠게 쏟아버렸다. 고개를 들어 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탈색제가 든 비닐봉지를 수돗가에 내동댕이쳤다. 나는 뒷뒷미를 잡힌 채 방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종아리를 맞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 냄새를 풍기며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누크’ 베이비 로션을 꺼냈다. 그러고는 붉은 실핏줄이 보일 만큼 껍질이 벗겨진 내 얼굴에 로션을 잔뜩 발라 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으로 뺨을 아프도록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더니 잠들기 직전까지 흐느꼈다. 가끔 뜻을 알 수 없는 네팔 말을, 몹시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바) 본래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주목하고 장려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뿌리를 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실은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 다문화 자녀, 다문화 학생 등의 용어가 남발되면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본래의 뜻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일반적인 한국인과 구별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문화를 ‘문화’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 ‘인종’을 중심으로 접근하며 우리와 다른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문화의 공존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타자(他者)들이 한국의 국가적·민족적·인종적 동일성에 동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밑바탕에는 ‘다문화’로 지칭되는 이들이 위험하다거나, 이들이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오염시키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결국 다문화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배경 가족들을 구분하여 부르는 말로 바뀌었으며 본래의 문제의식은 훼손되고 말았다. 당사자들에게 ‘다문화’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 **주홍글씨**가 되고 만 것이다.

3-1. 제시문 (나)와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 **중오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을 찾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마)의 ㉠ **탈색제**가 상징하는 의미를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 **주홍글씨**가 상징하는 의미를 제시문 (다)와 (라)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350자±20자) [25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사회계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 문항 1-

1. 출제 의도

문제 1은 보편적 인권에 근거하여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주권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고, 사람을 유용성의 여부에 따라 '무엇'으로 파악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누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이고 민주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성찰하게 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문제 1-1은 공간주권의 개념과 공간주권이 실현된 공간과 실현되지 못한 공간에 관한 사례를 보여주는 제시문을 주어 수험생들이 공간주권 개념을 이해하고, 각 공간의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파악하려 하였다. 아울러 개개인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주체적이고 민주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였다.

문제 1-2는 공간의 공공성 문제를 다룬 제시문을 읽고 현상의 공간과 표상의 공간의 속성을 이해한 후,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즉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는 시도와 이를 철회하려는 시민단체 활동을 공공성과 공간주권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공간주권과 공공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보는 것이다.

문제 1-1은 '공간주권' 개념을 다룬 제시문 (다)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와 (나)가 서술한 사례의 차이점을 공간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1-2는 제시문 (다)와 (라)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간주권, 현상의 공간-표상의 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많은 시민 단체들이 노숙인 강제퇴거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활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SSK 공간주권 연구팀이 엮은 『공간주권으로의 초대』라는 책 중 부산의 반송 '희망세상' 사례에 관한 부분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능동적, 자발적,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협의를 실천한 사례로 '느티나무 도서관' 건립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연합뉴스의 <書香萬里> 미국의 감춰진 얼굴 게토...더 흑독해진 흑인 차별' 기사(2016.4.23.)를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나)는 미국 시카고의 흑인 공동체가 '짐 크로우 법'과 같은 사회 제도와 인종차별이라는 의식 구조로 인해, 또 흑인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빈곤과 범죄를 대물림하는 '(흑인) 게토'가 되어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제시문 (다)는 SSK 공간주권 연구팀이 엮은 책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중 서문 부분을 재구성한 것으로 공공성,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공간주권을 구현할 때 대안적인 정치가 배태되는 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예문이다. 또한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의 사례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사이토 준이치의 『민주적 공공성』에 나오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한나 아렌트의 공공성, 현상의 공간과 표상의 공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을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고정된 정체성으로 바라보거나 유용성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제시문 (마)는 연합뉴스의 '코레일 서울역 노숙금지 불가피한 조치' 기사(2011.7.22.)와 비마이너(Be Minor)

의 '홈리스 서울역사 강제퇴거 조치, 즉각 철회하라' 기사(2011.7.25.)를 재구성한 것이다.

공간주권, 공공성, 공간, 주체적 참여, 시민단체 등 이 주제에 관한 핵심 개념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세계 지리』, 『법과 정치』 등 고등학교 인문 사회 교과 전반에서 중요 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다)의 '공간주권'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서 이를 제시문 (가), (나)와 연결하고, (가)와 (나)의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주권의 핵심 개념을 찾아 그 실현 여부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는가? • '느티나무 도서관'의 성격을 (다)를 읽고 파악한 공간주권과 연결시키면서 서술했는가? • '흑인 게토'의 성격을 (다)를 읽고 파악한 공간주권과 연결시키면서 서술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능동적 주체, 자발적 역동성, 공간적 격리, 사회적 차별의 영속화, 참여, 민주적 논의와 결정, 공공성, 인간성, 민주성, 주체성, 공간주권, 보편적 인권, 대안적 삶의 정치 등</p>	15
1-2	<p>【제시문 (다), (라)의 논지를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제시문 (마)의 ㉠의 의미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다), (라)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다), (라)의 논지를 바탕으로 (마)의 내용을 이해하였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민주적 논의와 결정, 공공성, 인간성, 민주성, 주체성, 공간주권, 보편적 인권, 대안적 삶의 정치, 균등성, 현상의 공간, 표상의 공간, 무엇, 누구, 유용성, 공리주의, 정체성 등</p>	15

4. 예시 답안

1-1. 보편적 인권에 근거를 둔 공간주권을 두고 생각할 때, (가)의 느티나무 도서관은 A마을 주민들이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민주적인 참여와 운영 등 공간주권을 발휘해 공간의 공공성, 인간성, 민주성, 주체성을 실현한 사례이다. 반면 (나)의 흑인 게토는 백인들에 의해 흑인에 대한 공간적 격리가 고착화되는 등 흑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영속화되었고 차별 개선을 위해 흑인들 스스로도 주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공간주권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이다.

1-2. (다)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간주권을 구현해 민주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라)는 유용성 여부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표상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무엇'이 아닌 '누구'로 처우하는 현상의 공간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의 ㉠은 노숙인의 존재를 고유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서울역이 보편적 인권에 근거해 공공성과 인간성, 민주성, 주체성을 지향하는 현상의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공간주권의 구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문항 2-

1. 출제 의도

문제 2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질문을 재평가하고 그 질문을 초래하는 역사적인 조건들을 반추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문명의 발전이 인간 사유의 결과이고 인간의 사고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새롭게 발전하는 역사적 조건이 다시 인간의 사고체계에 어떠한 피드백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인간의 존재론적 우연성과 숙명성과 관련되어 유사 이래로 가장 오래된 질문이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것이다. 신에 대한 질문과 신과 관련된 모든 의식과 제도들이 문명화되었지만 역사의 발전과 이에 수반되는 이성의 발견이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면서 이 오래된 질문들의 내용을 대체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문제 2-1은 통섭적인 과학적 발견을 갈릴레이, 뉴턴, 다윈의 사례를 들어 물어보고 있다.

문제 2-2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질문을 뉴턴, 현대예술, 민족주의의 사례를 들어 물어보고 있다.

문제 2를 통해 수험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논술로 풀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근대 이전 시대는 신의 존재가 인간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근대 시대에 들어서 인본주의와 계몽주의가 강화되고 합리적 이성의 발견에 따른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에 대한 인간의 사고 또한 변화한다. 신이 사라지자 초월적 존재의 자리에 인간은 신을 대체할 절대자로 현대예술과 민족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현대예술은 스스로 우상이 되어갔고, 민족주의는 기존 문화체계를 잠식하고 대체하면서 근대의 새로운 정치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2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질문을 재평가하고 그 질문을 초래하는 역사적인 조건들을 반추해 보고 있다.

문제 2-1은 갈릴레이, 뉴턴, 다윈이 수행한 통섭의 방식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문제 2-2는 만유인력과 현대예술과 민족주의가 지닌 의미를 비교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갈릴레이의 『두 개의 주요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저서를 소개하며 그가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적 발견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망원경을 통한 천체의 발견에 기초하여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며 물리학적 논변을 제기하였다. 특히 그는 수학의 기하학을 활용하여 밀물과 썰물의 운동을 계산함으로써 그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며 근대 물리학의 전통을 세웠다.

제시문 (나)는 뉴턴의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 설명된 만유인력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수학적 방법으로 행성의 타원 운동을 증명하고자 했는데, 뉴턴에게 신은 우주의 운행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존재이고, 이 자연현상이 곧 신의 섭리였다. 뉴턴은 만유인력과 같은 자연현상이 곧 신의 섭리라 이해했고, 신학과 수학의 통섭 혹은 자연과학과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의 통섭을 추구했다.

제시문 (다)는 다윈의 저서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를 소개하고 있다. 다윈은 비글호를 통한 항해와 조사 관찰로 생물 종들의 진화를 밝혀내었다. 그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고 생존 경쟁의 개념을 자연 진화에 적용하여 자연선택의 개념으로 생명의 진화를 밝혀 물질영역과 생물영역의 통섭을 이루었다.

반면 제시문 (마), (바)는 현대예술과 민족주의가 역사적 과정에서 신을 대체하는 산물로 탄생했음을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현대예술이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신을 부인할 자유를 얻었지만 초월적인 존재를 다른 무엇으로 소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예술에게 새로운 절대자의 힘과 존엄성이 부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바)는 민족주의는 원래 신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 상상과 강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계몽주의와 합리적 세속주의의 등장으로 인간의 종교적 사고는 황혼기를 맞았고, 민족주의가 신성한 종교 언어나 종교 제국의 해체로 기존의 문화체계를 잠식하면서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구하게 흐르는 동질적이고 공허한

종교적 시간이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시간으로 대체되면서 민족주의가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뉴턴의 만유인력 개념은 신과 과학의 공존과 타협을 표현한 것인 반면, 현대예술과 민족주의는 신의 대체물이다. 인간은 초월성 없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절대자이자 우상숭배로 자리잡은 것이 현대예술과 민족주의이다.
 이 주제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사회·문화』 교과목에서 과학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 종교와 관련된 갈등 문제, 미적 가치(예술), 간학문적 관점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제시문 (라)가 말하고 있는 ‘통섭’의 의미를 이해한 후, 제시문 (가), (나), (다)에서 구현되고 있는 학문의 통섭 방식을 찾았는지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에서 갈릴레이가 조수 운동을 수학적(기하학) 방식으로 천체학(지동설)을 설명하였는지를 찾아 설명했는가? 제시문 (나)에서 뉴턴이 행성의 타원운동을 수학적 방식으로 표현된 힘을 신의 섭리로 보아 신학과 과학(천체학, 물리학, 수학)을 통섭하였는지를 찾아 설명했는가? 제시문 (다)에서 다윈이 경제학의 생존 경쟁의 개념을 가져와 생명이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된다는 사실을 밝혀 물질과 생물 영역을 통섭시켰는지를 찾아 설명했는가? 전체적인 문장의 연결과 완성도가 충분한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조수운동, 수학(기하학), 지동설(천체학), 근대물리학, 신학(신의 섭리), 경제학(멜서스 인구론), 자연선택, 진화, 물질 및 생물 영역</p>	10
2-2	<p>【제시문 (나), (마), (바)를 이해하고, 서로 연관되는 공통적 의미의 주제를 신(종교)로 찾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나)는 뉴턴의 만유인력은 신의 섭리임을 설명했는가? 제시문 (마)에서 현대예술은 신을 부인한 자리에 절대자의 존엄성이 부여되면서 우상숭배로 탄생했다는 점을 서술했는가? 제시문 (바)에서 민족주의는 정치이데올로기이지만 (종교적 언어, 종교적 제국 등 기존의 문화체계와 결합하고 이를 잠식해서 계몽주의와 합리적 세속주의의 등장으로) 종교적 사고가 황혼기를 맞아 종교적 시간을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시간으로 대체한 산물인 점을 서술했는가? 제시문 (나), (마), (바)의 공통적인 주제가 신(종교)에 대한 설명인지를 찾아 설명했는가? <p>- 제시문 (나)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설명했는가? - 제시문 (마)와 (바)가 신을 부인한 대체자로 등장했다는 세부적인 설명을 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인 문장의 연결과 완성도가 충분한가? <p>- 예시 답안 참조 - 핵심어: 만유인력, 신의 섭리, 현대예술, 우상숭배, 민족주의, 대체, 종교적 언어 및 제국, 계몽주의 및 합리적 세속주의, 민족공동체</p>	20

4. 예시 답안

2-1. 갈릴레이는 밀물과 썰물의 운동을 기하학적 방식으로 풀어 지동설을 설명하여 수학과 천문학을 통섭하였으며, 뉴턴은 행성의 타원 운동을 수학적 방식으로 증명하여 이를 신의 섭리로 보아 신학과 과학을 통섭하였다. 다윈은 경제학에서 생존 경쟁의 개념을 가져와 생명이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다는 사실을 밝혀 물질과 생물영역의 통섭시키면서 새로운 학문 종들을 탄생시켰다.

2-2. (나)의 뉴턴은 과학으로 자연과 인간세계에 충만한 신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고 만유인력은 신의 섭리가 작동하는 원리이다. (마)의 현대예술은 신을 부인한 자리에 절대자의 존엄성이 부여되면서 우상숭배로서 탄생했고, (바)의 민족주의는 계몽주의와 합리적 세속주의의 등장으로 종교적 사고가 황혼기를 맞자 이를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시간으로 대체한 산물이다. 만유인력, 현대예술,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공통된 개념은 신이다. 만유인력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개념이지만, 현대예술과 민족주의는 인간이 신을 부인하면서 대체자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문항 3-

1. 출제 의도

문제 3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집단들의 감정이 분출되는 맥락을 생각해보고 다문화의 현실을 다각도로 성찰해보기 위해 출제하였다. 혐오와 증오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고 현실적으로 차별 행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3-1은 두려움이 학습되어 소수자를 증오하는 데 동원될 수 있음과 타자에 대한 차별과 증오가 걱정이라는 외피로 위장될 수 있음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증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오에 대한 엄밀한 구별과 성찰, 그리고 증오의 발생과 작동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가)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증오가 분출되는 근원에 대한 예로 제시문 (나)와 (다)를 구성하였다. 제시문 (나)는 인간이 갖는 두려움의 두 측면을 고찰한다. 제시문 (다)는 걱정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과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증오가 걱정으로 위장될 수 있음을 적시한다.

문제 3-2는 소수자 혹은 이민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 글 두 편을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특히 혐오를 드러내는 부정적 언어 표현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서 화용론(話用論)과 관련한 글을 제시문 (라)로 제시하였다. 이를 읽고 수험생들이 한국에서 '다문화'로 지칭되는 이들에 대한 차별, 폭력, 한국문화로의 동화에 대한 요구 등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그 발생 과정을 다각도로 이해해 보았으면 하는 의도로 출제하였다.

2. 문항 해설

문제 3은 증오라는 감정의 근원에 대해 사유하고 차별과 혐오의 발현 사례로서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반추한다.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3-1은 제시문 (가)의 ㉠ 증오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을 제시문 (나)와 (다)에서 각각 찾아서 제시하고, 그 제시 이유를 서술하도록 요구했다.

문제 3-2는 제시문 (마)의 ‘탈색제’라는 소재 및 제시문 (바)의 ‘주홍글씨’라는 표현의 상징적 의미를 각각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해석 및 서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카롤린 엠케의 『혐오사회-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에서 뽑은 글로 증오에 대한 엄밀한 구별과 성찰, 그리고 증오의 작동 방식에 대해 고찰이 필요함을 말했다.

제시문 (나)는 마사 누스바움의 『정치적 감정-정의를 위해 왜 사랑이 중요한가』의 일부를 재구성한 글로 생명에 유용한 측면과 부당하게 학습되어 타자를 증오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두려움’의 두 측면을 사유하도록 했다.

제시문 (다)는 카롤린 엠케의 『혐오사회-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의 일부로서 ‘걱정하는 시민들’의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자들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기피하는 감정이 정당한 ‘걱정’으로 위장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글이다.

제시문 (라)는 장석진 편저 『오스틴 화행론』에 수록되어 있는 오스틴의 「화행이론」과 그에 대한 장석진의 해설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및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언어의 수행적 활용 예시를 추가하여 작성한 지문이다. 발화가 행위이며 구체적인 발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화용론의 기본적인 관점을 ‘발화’ 및 ‘어휘’의 의미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제시문 (마)는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힘겨운 삶을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 자신의 관점에서 그려내어 큰 주목을 받았던 김재영의 단편소설 「코끼리」의 일부이다.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의 한 아이가 자신의 피부색이 한국인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탈색제를 사용하여 세수를 하는 장면으로, 외모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 선진국과 제3세계에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 잣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을 보이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주민의 내면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제시문 (바)는 『경인일보』에 수록된 김창수의 글 「차별어로 변질한 다문화」를 큰 폭으로 재구성한 글이다. 원래는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을 제시하는 다문화주의에서 생겨난 ‘다문화’란 용어가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점차 또 다른 차별어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 및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이 주제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교과와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 갈등 등과 관련된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독서와 문법』 교과에서 언어의 수행적 성격을 다룬 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말과 행동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나),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 (다)에서 제시문 (가)의 ㉠증오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을 제시했는가? • 제시문 (나), (다)에서 증오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을 제시한 이유를 분석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증오, 두려움, 걱정의 외피를 쓴 증오, 자기방어, 두려움의 유용성, 두려움의 학습, 두려움 악용, 위장, 기득권, 몸부림, 배출구, 혐오발언, 폭력, 고정관념, 소수집단, 악마화, 차별, 타자, 이민자</p>	15
3-2	<p>【제시문 (마)의 ㉡'탈색제'의 상징적 의미를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을, 제시문 (바)의 ㉢'주홍글씨'의 상징적 의미를 제시문 (다), (라)의 핵심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서술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마)의 ㉡'탈색제'의 상징적 의미를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 제시문 (바)의 ㉢'주홍글씨'의 상징적 의미를 제시문 (다)와 (라)의 핵심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p>- 예시 답안 참조</p> <p>- 핵심어: 두려움, 폭력, 자기방어, 소수자 집단, 악마화, 걱정, 증오, 혐오, 언어의 수행적 성격(수행성), 발화, 발화 상황과 맥락, 보호색, 다문화,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 차별, 구별, 타자, 동일성, 동화, 위협, 오염, 수치심, 모멸감</p>	25

4. 예시 답안

3-1. 제시문 (나)에 의하면, 증오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자기방어 행동의 토대가 되는 기능도 있지만 소수자 집단을 부당하게 악마화하고 증오하며 차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제시문 (다)에 의하면, 타자를 열등하게 보는 사람들이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걱정이나 증오의 몸부림이 증오를 키운다. 이것은 걱정이라는 외피로 위장함으로써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위험하다.

3-2. (나)에서 두려움은 위협에 대한 자기방어의 동기이지만 소수자를 악마화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은 외모가 다른 소수자로서의 자신을 향한 이러한 증오와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동화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한 '나'의 자기방어 시도를 상징한다. (다)는 걱정으로 위장된 증오가 이민자 집단을 악마화할 수 있다는 것을, (라)는 언어가 수행적 차원에서 발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은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걱정으로 위장된 증오 때문에, '다문화'라는 말이 이들을 차별하고 동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됨에 따라 원래의 뜻과 달리 이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멸칭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0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과학 기술의 본질은 자연 현상에 대한 이론적 법칙을 발견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의 역할을 넘어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관념 체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과학 기술은 진리의 발견과 활용이라는 목적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과학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므로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자의 연구는 지적 호기심이 동기가 되어 순수하게 학문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과학 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수 없으며, 어떠한 연구가 가져올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과학 기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비판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입장은 과학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윤리적 검토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관찰과 실험 과정에서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지만, 연구 목적을 설정하거나 연구 결과를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으므로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 미국의 기술학자이자 경영학자인 테일러(F. Taylor)는 1911년에 출간한 『과학적 관리법(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이라는 책에서 과학적 관리법이란 노동을 시간, 동작이라는 두 요소로 환원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테일러 시스템은 작업을 요소 동작으로 분해하고 생산 공정의 표준적인 시간을 상정하여 하루의 과업을 설정하고,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산출한다. 테일러는 또한 노동자의 생산 작업을 영화 필름에 담아 동작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작업을 조직하려 했다. 대량생산시대의 노동 합리화에 대한 지식이 테일러 시스템으로 탄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테일러 시스템이 영화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최적의 조작 조건을 산출하여 노동 강도를 증대시킬, 즉 노동자의 생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에 대한 테일러의 연구에는 영화가 체계적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면 기계공의 조작을 하루 동안 촬영한 뒤, 등을 구부리거나 하는 행동 따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자를 배치하면 좋을지를 전문가가 고안한다. 즉 테일러 시스템이란 인간의 동작을 촬영하고 그것을 추상화하는 과학적 실험이었던 것이다.

(뒷면에 계속)

(다) 영화 〈모던 타임즈〉는 근대 기술문명의 속성을 인상적인 시각적 상징을 통해 함축한다.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클로즈업하면서 시작된 영화는, 이어서 측사에서 몰려나오는 양 떼와 지하철을 이용해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준다. ㉠찰리 채플린이 연기하는 주인공을 포함한 영화 속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쉴 새 없이 밀려들어오는 기계의 너트를 조인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사장의 명령에 따라 기계의 작업 속도가 조절되면 이들의 움직임 역시 그에 맞춰진다. 마치 생산시설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 것처럼. 심지어 극 중 채플린은 동료와 다투면서도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며, 작업을 멈춘 점심시간에도 너트 조이는 동작을 강박적으로 반복한다. 격무와 스트레스로 지쳐버린 그는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라) 기실 ㉡나는 약 오년간 전진(戰塵)* 속에 묻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이다. 육군병원에서 퇴원하고 서울에 도착하던 날 일이었다. 아버지와 택시를 잡아타고 교통이 복잡한 어느 로터리에서였다. 달리던 차가 십자로에서 차단신호와 함께 급정거를 하고 맞은편에서 육중한 소음을 울리며 전차(電車)**가 돌진해 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과 흥분에 싸이면서 소대장다운 목소리로, “탱크다! 바주카***!”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마주보았다. 나는 그냥 멧쩍게 웃었다. 아버지는 내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착각을 일으킨 것도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오년간 나에게 강력하게 작용해온 유일한 전투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것뿐이었다. 돌진해 오던 전차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정확한 사정거리(射程距離)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뿐이었다.

*전진(戰塵): 싸움터에서 이는 먼지나 티끌.

**전차(電車): 공중에 설치한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지상에 설치된 궤도 위를 다니는 차.

***바주카(bazooka): 원통 모양의 포(砲)에 로켓탄을 제어 발사하는 휴대용 무기.

(마)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근대 서양의 자연법사상에서 천부 인권으로 강조되었던 자유권은 절대 왕권이나 국가의 법률 등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였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된다. 자유권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권과 선택권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선택권을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려면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자율성이란 외부의 영향이나 즉흥적인 충동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성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며, 나아가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요건이다

1-1.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첫 번째 입장을 ㉡두 번째 입장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200자±20자) [10점]

1-2. 제시문 (다)의 ㉠찰리 채플린이 연기하는 주인공과 제시문 (라)의 ㉡나가 보이는 행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의 한계 속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개발 방식을 택했다.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과 부산을 포함하는 영남권의 두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삼아 투자와 지원책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 부진한 지역은 서·남해의 해안과 도서 지역, 태백산맥 지역에 몰려 있게 되었다. 거점 개발은 성장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파급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었지만, 개발 이후 오히려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점으로 선택된 지역은 성장을 지속했으나, 주변 지역은 거점 지역으로 인구와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정체되거나 쇠퇴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같은 지역 불균등 현상이 ‘사회적 양극화’ 뿐 아니라 ‘지리적 양극화’ 라는 이중의 어려움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등 현상은 점차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경제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만을 추진하는 것보다 계층 간 분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 불균등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선진 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나)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많은 취약점들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이들 취약점뿐 아니라 무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이겨 내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세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 주도 산업인 지식 정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을 마련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력 도입, 노인 노동력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생산 가능 인구 확보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실업은 사회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정부 대책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은 자유시장 경제를 굳건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실업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다) 대한민국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 정의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의,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서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다. 정의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전체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면서 국가 법률의 준수와 국가 질서에 대한 순응이 정의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로마인 율피아누스(D. Ulpianus)는 ㉠**정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 의지’** 라고 설명하면서, 정의의 법적 의미 이외에 재화의 분배와 관련된 의미를 강조하였다. 사회적 기본 재화는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재화를 좀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정의는 ‘각자의 몫’ 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분배 기준이 된다.

(뒷면에 계속)

(마)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무엇에 기준하여 판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한 작업이다. 정의의 원칙은 크게 공적(merit) 원칙과 필요(need)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원칙은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공적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필요 원칙은 정의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필요 원칙은 인간이 생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의식주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정의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2-1. 제시문 (다)의 헌법 119조 ①항과 ②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의 ㉠정의란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 의지’와 제시문 (마)에 나타난 정의에 관한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헌법 119조의 취지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인기 프로그램 중에 ‘치유의 숲’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숲을 통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죠. 숲만큼 치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숲 치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숲은 암을 치유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특정 숲에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숲을 치유의 장소로 삼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인간이 치유를 위해 숲을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합니다. 간혹 사람이 나무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런 사례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대개 인간이 그런 나무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만 벌어지는 일이죠…(중략)…나는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도 나의 상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혼자서 치유했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치유한 것은 상처가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를 반드시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평생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까요. 그렇게 많은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치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처만큼 중요한 것은 치유력일 것입니다. 인간도 나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맡긴다면 치유력은 날로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터득하면 어지간한 상처에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깊은 대숲에 홀로 앉아서

거문고 연주도 하고 길게 휘파람도 불어보네.

숲이 깊어 사람들은 알지 못하거니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추는구나.

獨坐幽篁裏, 彈琴復長嘯.

深林人不知, 明月來相照.

중국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가 지은 <죽리관(竹裏館)>이다. 혼자 있을 때면 나는 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책을 읽는다. 조용한 가운데 책을 읽을 때도 있지만, 고요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면 늘 음악을 듣는다. 고요함만 있으면 고요함을 알 수 없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고요의 무게를 짐작한다. 깊은 대숲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길게 휘파람을 부는 것은 자기 마음속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이는 오직 밝은 달이다. 서로 비추는 것은 명월과 시인 자신이 마음으로 감응한다는 의미다. 인간 세상을 벗어나 깊은 대숲에서 천지자연과 감응하는 모습에서, 그가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은자임을 보여준다.

(다) 제주도 비자림은 가장 남쪽에 있고 규모도 커서 습기가 많다. 기후가 온난한 제주도는 비자나무가 생장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중략)…비자림의 나무들은 힘들 때 몸을 기울여 다른 나무에 기대고 있다. 나는 ㉡옆에 있는 나무를 안고 있는 비자나무에 다가서서 힘들지 않은 지 물어봤다. 혼자서도 똑바로 서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다른 존재까지 자기 몸에 기대고 있어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비자나무는 당연히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굳이 물어본 이유는 비자나무가 겉으로는 그리 힘들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힘든 게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내색하는 것과 내색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삶을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원망은 사라진다. 더불어 사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할 지도 모른다.

(뒷면에 계속)

(라) 중국 회화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인 명나라 주담(朱澐, 흔히 팔대산인으로 불린다.)의 『안만책(安晩冊)』 첫 장을 펼치면 바로 <병화(瓶花)>를 만나게 됩니다.…(중략)…<병화>의 화병은 마른 갈필로 삐뚤삐뚤하게 그려졌습니다. 화병의 윤곽선은 한 획으로 그려졌지만 술개가 토기를 낚아채는 쾌속의 일필휘지가 아니라 느리게, 비틀거리며 그려졌습니다. 마치 아픈 그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는 화병의 온몸에 금을 긋습니다. 화병은 부서져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탈속적인 묘한 추상미를 느끼게 만듭니다. 어디인지 모르게 아리는 비애를 품고서 말입니다. 그 비애가 얼룩처럼 묻어 있는 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꽃 한 송이가 담겨 있습니다. 결가지 있는 꽃대의 모양을 보면 한란(寒蘭)의 종류인 듯합니다. 한란이라면 가을과 겨울에 피는 꽃이 아닙니까. 겨울을 견디는 꽃은 여백이 더 넓게 설정된 오른쪽 공간으로 휘어져 나가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서툰 듯 고졸*하면서 극도로 간결한 그 속에 무궁한 함축을 담은 팔대산인의 감필** 화풍이 잘 나타난 그림입니다.…(중략)…팔대산인이 한 다리로 견디는 지상의 삶은 고단하고 가난했습니다. <병화>의 화병과 꽃에는 그의 아픈 삶이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졸(古拙): 기교가 없으면서 예스럽고 소박하다.

**감필(減筆): 붓으로 칠하는 횟수를 줄이고 형상을 생략하는 수묵화 화법의 하나.

(마)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너무 낙관적이고 감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는커녕 과도한 우울로 고통을 겪는다. 우리는 이 세계의 문제와 부당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데, 그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지푸라기처럼 작고 약하게 느껴진다. 쾌활함은 일종의 성과물이고 희망은 축하할 일이다. 오늘날 산재해 있는 문제들은 대개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희망적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문제들이 우리의 의식을 끝없이 들볶는 바람에 우리는 희망적인 성향을 지켜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졌다.…(중략)…예술적 경험의 가장 이상한 특징으로 간혹 눈물을 흘릴 정도로 보는 이를 감동시키는 힘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괴롭거나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대면할 때가 아니라, 반대로 특별히 우아하고 사랑스러워 마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작품을 마주칠 때이다. 아름다움에 격렬히 반응하는 이 특별한 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높이 41센티미터에 불과한, 상아로 만든 작은 성모마리아 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얼굴에 있다. 환영하는 얼굴, 누군가 우리를 보고 무조건 반가워하는 모습에서 보고 싶은 그런 표정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런 미소를 만나게 되는 일이, 그런 미소를 선물 받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게 된다. 또한 삶이 고단할수록 소박한 꽃그림은 우리를 더 깊이 감동시킨다. 눈물이 나온다면 이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슬픈가에 반응해서가 아니다. 유리병 속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국화를 그린 사람은 그의 자화상이 말해주듯, 인생의 비극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는 비극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강한 생명력을 뿜어냈던 것이다.

3-1.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깊은 대숲과 제시문 (다)의 제주도 비자림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서술하시오.(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마)의 핵심 논지를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제시문 (나)의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추는구나, 제시문 (다)의 ㉡옆에 있는 나무를 안고 있는 비자나무, 제시문 (라)의 ㉢거기에 꽃 한 송이가 담겨 있습니다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 문항 1-

1. 출제 의도

문제1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윤리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인간의 행동을 주어진 자극에 대한 자동화된 반응으로 치환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장치 및 사회적 환경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근대 이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또 다른 한 측면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한편, 영화나 소설 등의 문화적인 텍스트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기를 바랐다.

문제1-1은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관련한 기본적인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그 중 특정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서, 과학적 노동 통제의 기술을 대표하는 '테일러주의' 및 '포드주의'와 관련한 예문을 소개했다. 문제의 요구는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통제'의 필요성을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기술이 현실에 적용될 때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때로 이는 매우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논의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문에 나타난 과학적 노동 통제에 의한 노동 소외의 과정에서 발견해야 한다. 윤리 교과에서 과학 기술의 윤리성이라는 문제는 통상 환경 파괴라든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문제 등과 결부되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윤리성이라는 문제는 노동과 같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영역에서도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과학 기술과 우리 일상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1-2는 '인간의 자율성'에 관한 윤리 교과의 관점을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텍스트에 나타난 인간 소외의 양상을 성찰해보기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제시문(다)와 제시문(라)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행동은 모두 자율적인 결단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진 자극에 의한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 훈육된 행동을 반사적으로 행하는 두 주인공의 행동 방식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인간의 소외 혹은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수험생들이 성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문항 해설

문제 1은 현대 사회에 나타난 인간 소외 현상을 고등학교 윤리 교과에 제시된 몇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이다.

문제 1-1은 과학 기술의 발달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와 같은 노동 통제의 기술과 결합하여, 노동 소외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기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수험자는 먼저 제시문 (가)를 읽고 과학 기술의 윤리적 통제에 관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문 (나)와 (다)에서 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험자는 이렇게 도출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에 제시된 특정한 입장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해야 한다.

문제 1-2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문화적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적인 사례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수험자는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 원리를 추상화하고, 이를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비교 및 대조하여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천재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통

제라는 문제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이시다 히데타카가 쓴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에서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테일러주의’라는 노동 통제의 기술과 접목되었던 양상에 대한 서술을 일부 재구성한 글이다. 제시문 (나)를 통하여 근대적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노동 통제의 기술적 발전이 당대의 과학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국제신문』에 실린 영화 <모던타임즈>에 대한 영화 비평 중 특히 영화의 특징적인 장면들을 소개하는 부분을 일부 재구성한 글이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노동 통제의 기술로서의 극단적 분업화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영화의 핵심적 내용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라)는 1958년에 오상원이 발표한 단편소설 「사이비」의 일부 내용이다. 비교적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수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고, 각주를 다는 등 원문을 일부 재구성하였다. 이 글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인으로 훈련된 한 제대 병사가 사회에 복귀한 뒤 전차(電車)를 보고 벌이는 이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은 작업을 멈춘 순간에도 작업 시간에 하던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제시문 (다)에 소개된 영화의 주인공의 행동과 비교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지학사)에 수록된 내용으로, ‘인간의 자율성’의 중요성을 윤리적 관점에서 강조한 글이다.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목에서 다루는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통제라는 주제 및 『윤리와 사상』 교과목에서 다루는 ‘개인의 자율’이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사회』 교과목에서 다루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삶의 연관성이라는 주제 및 『세계사』 교과목에서 다루는 서양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문제라는 주제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과학 기술에 기초한 노동 통제의 사례로부터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함께 때때로 노동의 소외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시문 (가)의 ㉠ 과학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므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효과적으로 비판하였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입장을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통제에 대한 입장을 차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노동 통제’의 양상으로부터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도출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삼아,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제시문 (가)의 ㉠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가? <p>- 핵심어: 과학 기술의 가치중립성 <->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통제의 필요성 테일러 시스템 - 과학 기술을 활용한 노동 통제의 기술 <모던 타임즈> - 노동 통제 기술에 의한 노동 소외</p>	10
1-2	<p>【제시문 (마)에서 강조된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 및 양자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서술하였는지를 평가함】</p>	20

- 제시문 (다)와 (라)의 인물이 보이는 행동의 공통점을 외부적 자극에 의한 자동적 혹은 반사적 행동이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 제시문 (다)와 (라)의 인물이 보이는 행동의 공통점이 자유 의지에 의한 자기 행동의 통제 및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 제시문 (다)와 (라)의 인물들이 보이는 행동의 차이점을 행동의 양태 혹은 행동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대조하고 있는가?
- 핵심어: 자율성, 반복, 자동적/반사적 행동/반응, 자유 의지에 의한 통제/규제

4. 예시 답안

- 1-1. 제시문 (가)의 ㉠은 과학 기술의 현실에의 적용이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테일러 시스템과 같이 과학 기술을 기초로 만들어진 노동관리술이 그 예이다. 윤리적 고려가 없이 만들어진 이러한 노동관리술은 <모던타임즈>에 나타난 강박적인 행동과 같은 노동 소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통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1-2. 제시문 (마)는 자유 의지로 스스로를 통제할 때 인간이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과 제시문 (라)의 ㉢이 보이는 행동은 문제가 된다. 모두 자신의 행동을 자유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며, 외적 자극에 대한 반사적 반응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과 ㉢은 각각 공장과 군대라는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훈육을 행동의 원리로 삼고 있다는 점,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두 외부의 영향으로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조건반사적인 즉흥적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1. 출제 의도

문제2의 출제의도는 우리헌법 119조의 기본취지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를 정의의 원칙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문제2-1은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의미를 제대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문제점 및 극복 대안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는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2-2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 (라)와 (마)를 통해 우리헌법 119조 1항과 2항이 지니는 정의관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사회적 양극화와 지리적 양극화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분배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시장 경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기업하기 좋은 시장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가)가 분배에 우선점을 두었다면 제시문 (나)는 자유시장 경쟁과 기업하기 좋은 시장여건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 119조 1항과 2항은 우리나라 경제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1항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경제 원칙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지만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하고 교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도 동시에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경제원칙인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 올피아누스는 정의는 '각자에게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 정의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분배정의라고 보는 공적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천부인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닌 개개인에게 국가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복지로 제공하는 것이 분배정의라고 보는 필요 원칙이다. 우리헌법 119조 1항은 정의관에 있어서 공적 원칙에 가깝고 119조 2항은 필요 원칙에 가깝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우리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썼는지 여부를 평가함】</p> <p>【제시문 (가)는 분배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는 글로서 우리헌법 119조 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글이고, 제시문 (나)는 자유시장과 기업하기 좋은 시장 여건을 강조하는 글로서 우리헌법 119조 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글이라는 점을 썼는지 여부를 평가함】</p>	15
2-2	<p>【제시문 (라)에 나온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주는 것'의 의미를 제시문 (마)에 나온 공적원칙과 필요원칙으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평가함】</p> <p>【우리헌법 119조 1항의 정의관은 공적원칙에 가깝고 119조 2항의 정의관은 필요원칙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평가함】</p>	20

4. 예시 답안

2-1.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적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쓰고 있지만, 2항은 소득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를 규제·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을 쓰고 있다. 제시문 (가)는 성장보다는 계층 간 분배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2항의 취지와 일맥상통하지만, 제시문 (나)는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유시장 경제와 기업하기 좋은 시장 여건을 강조하고 있어서 1항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2-2.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달라진다. 공적원칙은 자유롭게 노력한 성과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 분배정의라고 보지만, 필요원칙은 천부인권을 지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복지로 보장하는 것이 분배정의라고 본다. 이리 본다면 헌법 119조 1항의 자유, 창의,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시장 경제 내용은 공적원칙과 친화적이고, 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 적절한 소득분배, 경제민주화 내용은 필요원칙과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문항 3 -

1. 출제 의도

문항 3은 인간이 지닌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하여 더 나은 삶을 찾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다. 현대사회가 주는 수많은 물질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지고 있다. 이를 일상에서든, 문학에서든, 예술에서든, 숲에서든 전환의 계기를 찾아서 새롭고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치유와 관련한 제시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문장 속의 논지, 즉 자기 치유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그것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추론하여 서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특히 '깊은 대숲'과 '제주도 비자림' 등이 주는 공간적 의미와 그 안에서의 주체적 대응 방식에 대한 차이를 각각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속의 핵심논지를 이해하고, 그에 의거하여 또 다른 제시문에 밀줄로 표시된 부분의 의미를 비교하며 서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즉 예술작품이 주는 감동이 단순한 감정적 일치 넘어서 다양한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그에 맞추어서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추는구나' '옆에 있는 나무를 안고 있는 비자나무' '거기에 꽃 한 송이가 담겨 있습니다'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비교하여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2. 문항 해설

문항 3은 인간의 일상적 삶이 가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찬찬히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로부터 새로운 덕목을 배우며, 나아가 예술이 주는 감동처럼 삶의 다양한 국면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부여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출제의 의도가 있다.

제시문 (가)는 숲이 주는 치유력을 강변하고 있는 『숲과 상상력』의 일부를 제시한 것인데, 특히 치유에 있어서 누군가에 기대보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치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중국 당나라 시인인 왕유의 <죽리관>에 대한 해설로서, 시 속의 화자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자신의 독자성,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세속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는 제주도 비자림의 나무가 서로 엮겨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인간이 서로 배려하고 기대서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상대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더불어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제시문 (라)는 중국의 옛 그림 가운데 팔대산인 주탑의 <병화>에 대한 미학적 해설을 하고 있는 글로서, 소박한 화병 속의 꽃이 작자의 고뇌어린 삶의 반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그 꽃이 보잘것없는 것은 아니다. 작자는 이 그림을 통하여 삶의 상처를 견뎌낼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제시문 (마)는 알랭 드 보통의 예술론을 편집한 글로서, 예술적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삶의 특정한 국면에 대하여 남다른 깨달음을 갖게 되고 더욱 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예술작품은 그것이 고단해보이든, 행복해보이든, 의지적으로 보이든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을 누군가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삶이 안겨주었던 상처를 치유하고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와 (다)의 밑줄 친 부분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의 치유에 대한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나)의 ‘깊은 대숲’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사점을 서술했는가? • 제시문 (다)의 ‘제주도 비자림’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사점을 서술했는가? • 문장, 어휘 구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 답안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p>- 핵심어: 상처, 치유, 치유력,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법, 천지자연과 감응, 자연, 은거, 청정, 고요, 겸허, 기대다, 원망을 사라진다, 더불어 사는 것.</p>	15
3-2	<p>【제시문 (마)의 핵심 논지를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제시문 (나), (다), (라)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마)의 핵심논지를 제시하였는가? • 제시문 (나)의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추는구나”의 의미를 제시하였는가? • 제시문 (다)의 “옆에 있는 나무를 안고 있는 비자나무의 의미”를 제시하였는가? • 제시문 (라)의 “거기에 꽃 한 송이가 담겨 있습니다”의 의미를 제시하였는가? • 문장, 어휘 구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 답안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p>- 핵심어: 낙관, 감상, 우울, 쾌활함, 희망, 예술적 경험, 감동시키는 힘, 고단, 소박, 생명력, 감응, 천지자연, 청정, 고요, 내색하지 않는 것, 겸허, 더불어 사는 것, 한란, 견디다, 간결, 비애, 아픈 삶</p>	20

4. 예시 답안

- 3-1. (가)의 논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안고 살아가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깊은 대숲’은 인간세상을 벗어난 고요한 공간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천지자연과 감응하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의 ‘제주도 비자림’은 비자나무들이 힘들 때 몸을 기울여 다른 나무에 기대고 있는 숲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힘든 세상이지만 다른 존재의 무게까지 감당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2. (마)의 논지는 예술적 경험과 감동은 우울하고 고통스런 현실의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도구이며 희망적인 성향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특별한 순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의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추는구나’는 아무도 오지 않는 외로운 공간에 달빛이 감응하여 청정한 삶을 살아감을 말하고 있고, (다)의 ‘옆에 있는 나무를 안고 있는 비자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삶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라)의 ‘거기에 꽃 한 송이가 담겨 있습니다’는 아릿한 비애를 품고 있는 난초가 겨울을 견디며 살아가는 고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2019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식 사업 프랜차이즈 X사 본사 대표 A는 사업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메뉴 개발을 해주는 대신 우리 물건을 쓰라는 거다. 본사는 어느 가맹점이나 표준화된 맛을 낼 수 있고, 손님이 폴리더라도 어렵지 않게 대량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공통된 재료를 준비해준다. 서비스의 표준화와 적정 가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고품질을 지향한다거나 맛의 개성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식자재 유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고, 가맹점주들이 이 브랜드를 가지고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주는 거다. 결국은 브랜드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점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이 식당 처음 시작할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음식도, 경영도, 위생도 안 가르쳐 준다. 많은 식당들이 경험 없이 일을 시작하다보니 위생 개념도 없다. 그런데 본사는 그걸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는가?”

(나) 수공예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Y사는 가죽 장인 B와 C가 운영하는 이름난 공방이다. 10대 시절부터 가죽 재단 기술을 배웠던 B와 C는 1979년 공방 Y사를 창업했다. Y사는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품질의 가죽 제품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가죽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손으로 가죽을 엮어 가방을 만드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이름이 났다. B와 C는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제품이 오랫동안 소장되고 사용되는 진정한 명품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창업 후에도 가죽을 다루는 숙련된 솜씨를 갖추기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했으며,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40년간 공방을 운영하면서 B와 C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을 파악하여 제품의 디자인, 생산량,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안목을 키웠고, 상품을 진열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노하우도 축적해왔다. 그 결과 영세한 공방들과 달리 안정성을 갖추었고, 대량 생산되는 기성품과 다른 독창적인 제품의 소량 생산으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다) 한국 자영업 시장의 피라미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프랜차이즈 시장부터 이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숙련의 표준화다. 예를 들어 외식 자영업에 필요한 숙련이란, 메뉴와 가격을 정하고, 재료를 조달해 관리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잠재적 고객에게 홍보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술과 노하우, 곧 숙련을 갖춘 자영업자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경쟁해도 이긴다. 유명 셰프가 하는 식당이나 입소문이 난 맛집, 단골이 많은 동네 빵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자기 숙련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모든 것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맡긴다. 프랜차이즈 가맹

(뒷면에 계속)

접수가 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행하는 것은 ㉠ **표준화된 숙련**이지 ㉡ **장인의 숙련**은 아니다. 한계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에 뛰어들다. 왜 그럴까? 답은 자신이 숙련을 갖추지 못한 자영업자라는 현실에 있다. ○○○에 따르면 2014년 기준 ㉢ **골목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58.4%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생존율 73%보다 14.6%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창업은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 자본이 부족한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의 표준화된 숙련도 제공받을 수 없다. 이제 한국 자영업 시장의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다. 피라미드의 맨 위는 숙련을 보유한 자영업자다. 그 밑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있다. 그 아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밀리는 자영업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숙련도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될 수 없다.

(라) 외환위기는 국내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 외환위기 이후 2~3년 동안 일부 재벌과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무너졌고, 대규모 정리 해고가 진행됐다. 이후 지식기반형이나 고부가가치형 전문 서비스 업종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가게를 차리는 식의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생계형 서비스업이 과잉돼 자영업자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 중 73.7%는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았다. 현재의 자영업을 시작하기 직전의 경력을 보면, 임금노동자로 일한 경우가 57.4%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이나 무급 가족종사자로 일한 경우는 23.6%, 그리고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가 19.0%였다. 일자리나 사업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한국 자영업의 50%를 차지하는 양대 업종이다.” 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60대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 일선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주로 치킨집 등 음식점에 쏠리고, 20대 창업은 대부분 커피전문점에 집중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업체 1년 생존율은 62.7%, 2년 생존율은 49.5%, 5년 생존율은 27.5%로 떨어졌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59.5%, 5년 생존율은 17.9%에 불과했다.

(마)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당할 확률, 심장마비나 암에 걸릴 확률,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 등이 동료들에 비해 낮을 것으로 평가한다. 흡연자들은 통계상의 리스크를 잘 알고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리스크를 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다른 비흡연자들에 비해 폐암이나 심장병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믿는다. 당침률이 낮은데도 복권 사업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미소를 짓는 장면이 나오면 당신도 미소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살면 서로를 닮아간다는 속설도 있다. 이러한 속설은 사실로 드러났다. 3인 판사위원회로 구성되는 연방 판사들은 동료 판사들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공화당에서 지명한 판사는 민주당 지명 판사 2명과 함께 배석할 경우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투표 양상을 보이며, 민주당 지명 판사는 공화당 지명 판사 2명과 배석할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투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사람들은 타인들에 의해 쉽게 넋지*를 당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동조하여 틀에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넋지(nudge): 팔꿈치로 슬쩍 옆구리 찌르기. 곧 주의를 환기하거나 부드럽게 경고하는 행위.

1-1. 제시문 (다)에서 ㉠ **표준화된 숙련**, ㉡ **장인의 숙련**의 차이를 찾아 제시하고, 그에 의거해 제시문 (가), (나)의 사례에서 대비되는 요소들을 설명하시오. (200자±20자) [15점]

1-2. 제시문 (라),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 **골목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15년 9월, 한 장의 사진이 세계를 울렸다. 빛깔도 선명한 붉은 티셔츠에 파란 반바지 차림의 한 아이! 잡자듯 조용히 해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이란 쿠르디의 모습이였다. 쿠르디 가족은 전쟁이 발발한 조국 시리아를 탈출한 뒤, 터키 항구에서 에게 해를 건너 그리스의 한 섬으로 가려다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참상을 당했다. 아빠만 살고, 엄마, 형과 함께 세 살배기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세계는 말을 잊지 못했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진이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슬픔과 애도와 분노와 안타까움과 반성의 목소리가 물결쳤다. 쿠르디의 침묵하는 몸이 지르는 비명이 전쟁의 비극과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이 뿌리 뽑힌 사람들의 참상을 통렬히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쿠르디와 그 가족과 같은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른다.

(나)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중략)…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상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화만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라) 한반도는 아프다. 남북관계의 비극적 성격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남과 북은 이념적으로 서로를 적대화하면서 극단적인 정책을 선호해 왔다. 남북 양 체제의 권력주체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밖으로 시선을 돌려 체제 간 갈등과 긴장을 조장시킨다. 체제내의 도전세력들을 반정부세력으로, 남에서는 친북 좌파·주사파로 몰아 제거하고, 북에서는 친남·친미·주자파로 범죄화하여 그들의 인권을 박탈한다. 나아가 남북 양 체제의 강경·극단 권력은 의도적으로 체제 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그들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한다. 여기에 정치적 위선이 존재한다.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눈에서는 상대방 체제의 권력주체를 미워하고 악마화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상대방 체제의 극단세력을 서로 도와준다는 기막힌 역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모순이요, 비극이요, 아픔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이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이들은 불안해하고 위기의식을 느낀다. 여기서 나오는

(뒷면에 계속)

아픔은 참으로 아리다. 적대적 공생이라는 이 비극이 한반도의 권력 주역들을 발악시켜, 죽음을 향한 악순환을 거칠게 작동시킨다는 비극적 사실을 나는 슬퍼한다. 내 속에 있는 악함과 상대방 속에 있는 악함이 서로 손잡고 악을 키우는 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상대방이 비록 주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선함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속의 참함*과 주적 속의 참함이 악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 공직자들이 먼저 해야 할 공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이 아니겠는가.

*참함(讓陷): 남을 헐뜯는 말로 죄에 빠뜨리는 행위.

(마) 아이들 자라는 시간 청동으로 된 시간
차가운 시간 속 뜨겁게 자라는 군인들

아이들이 앉아 있는 땅속에서 감자는
아직 ㉠ 감자의 시간을 사네

다행이군요,
땅속에서 땅사과가 아직도 열리는 것은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 땀을 역청처럼 흘리네

물 좀 가져다주세요
물은 별보다 멀리 있으므로
별보다 먼 곳에 도달해서
물을 마시기에는
아이들의 다리는 아직 작아요

언젠가 군인이 될 아이들은 스무 해 정도만 살 수 있는 고대인이지요, 옥수수를 심을걸 그랬어요 그랬더라면 아이들이 그 잎 아래로 절 숨길 수 있을 것을 아이들을 잡아먹느라 매일매일 부지런한 태양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을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 푸른 마스크를 쓴 이는 누구의 어머니인가,
저 어머니들의 얼굴에 찍혀 있는 청동의 총,
저 아이를 끌고 가는 피곤한 얼굴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어머니인가
원숭이 고기를 끓여 아이에게 주는 푸른 마스크의
어머니에게 제발 아이들의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아이들이 자라는 그 ㉡ 청동의 시간도, 그 뜨거운 군인이 될 시간도

2-1. 제시문 (마)의 ㉠ 감자의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제시문 (가), (나), (라)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마)에서 ㉡ 감자의 시간을 사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시어를 찾고, 그 시어를 통해 추론되는 바를 제시문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보가 모두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자와 편집자 등 여러 제작자를 통해 취사선택 및 가공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보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편견이 개입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독재 권력이 대중매체를 통제하는 경우, 대중매체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권력을 미화하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대중을 선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 사실 인간은 늘 탈진실(post-truth)의 시대를 살아왔다. 호모 사피엔스야말로 탈진실의 종(種)이다. 호모 사피엔스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 데서 나온다. 석기시대 이래 줄곧 자기 강화형 신화는 인간 집단을 하나로 묶는 데 기여해왔다. 우리는 수많은 이방인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도 허구의 이야기를 발명하고 사방으로 전파해서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믿도록 납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진실과 권력의 동반 여행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머지않아 각자의 길을 가게 돼 있다. 권력을 바라다면 어느 지점부터는 허구를 퍼뜨리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세상에 관한 모든 허구는 배제한 채 진실만을 알고 싶다면, 어느 지점부터는 권력을 단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동조자를 얻고 추종자를 격려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실들마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원천,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바라는 이유에 관한 어떤 불편한 진실마저 인정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 가짜뉴스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다. 워낙 정보량이 많고 바쁜 시대라서 얼핏 보면 어떤 기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앞으로 가짜뉴스의 생산과 공유는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구 미디어보다는 뉴미디어 사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나 사고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연대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기 쉽고 가짜뉴스가 넘쳐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셋째,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확증편향과 맞물린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눈은 마음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 라는 말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확증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정보를 편식한다.

(라) “콜론나,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적인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가 사실을 의견과 구별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그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말했다.

“영국이나 미국의 주요 신문들을 보면 됩니다. 신문의 기자들이 화재나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를 쓴다고 칩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목격자의 증언이나 여론의 대변자가 될 만한 사람의 논평을 기사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한 진술들은 일단 인용이 되면 사실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저러저러한 의견을 말했다는 게 하나의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뒷면에 계속)

(마)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명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바) “오늘 새벽,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A씨(28세)가 B씨(25세) 차량의 고의적인 접촉으로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졌다. B씨는 폭주족 집회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새끼고양이를 발견하고 데려가려 했는데, 그 모습을 본 A씨가 자신이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다툼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결국 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였으며, A씨는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당 지역 경찰에게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뉴스 ㉠과 ㉡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 ㉠ 폭주족 자료 영상 ⇨ 사고 현장 ⇨ 피해자 가족 인터뷰 ⇨ 가해자가 조사받는 경찰서 앞
뉴스 ㉡ 새끼고양이를 안은 가해자 자료 영상 ⇨ 사고 현장 ⇨ 피해자 가족 인터뷰, 가해자 친구 인터뷰 ⇨ 가해자가 조사 받는 경찰서 앞

3-1.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밑줄 친 ㉠~㉣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30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뉴스 ㉠과 ㉡를 본 시청자가 지니게 될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제시문 (가)와 (다)의 논점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정보 수용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의학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 제 의 도

[문항 1]

문제 1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통해 경제 성장과 발전, 사회 안정에 기여하며, 개인에게는 생계 유지 수단이자 잠재력 발휘의 터전, 사회봉사 및 교류의 장이 되는 '일(노동)'을 중심 소재로 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노동 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4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룬 글과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숙련된 노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현재와 같은 자영업 시장 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생각해보기를 바랐다.

문제 1-1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속성에 관한 글, 자기 숙련을 지닌 자영업자의 사례를 소개한 글, 숙련과 자본의 문제를 통해 자영업의 구조를 들여다본 글을 제시하였다. 이를 읽고 '표준화된 숙련'과 '장인의 숙련' 간 대비 요소를 찾는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노동의 주체성에 대해 고민해보았으면 했다.

문제 1-2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게 된 노동시장의 변화를 구체적 수치를 통해 설명한 글과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이유를 다룬 글을 제시하였다. 이를 읽고 수험생들이 '골목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가 노동시장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단에 위치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영업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이해해보았으면 했다.

[문항 2]

문제 2에서는 전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왜 중요한지를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전쟁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전쟁으로 발생하는 난민 문제, 군사적 긴장과 적대적 관계로 인한 불안한 현실 등이 그 예이다. 남과 북의 대립으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

문제 2-1은 제시문 (마)의 '청동의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난민 문제, 제시문 (나)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제시문 (라)의 남과 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와 각각 연결하여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2는 제시문 (마)의 '감자의 시간'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시어를 제시문 (마)

에서 찾고, 이 시어로 추론되는 바를 제시문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3]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우리는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뒤덮는 시대에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무감각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진실과 허구는 야누스의 얼굴과 같다. 이러한 측면과 마주한 우리의 삶과 일상이란 얼마나 혹독한 자기 노력과 검열을 요구하는가. 무관심과 침묵은 결코 세계를 이해하는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 권력의 현상 유지에 기여하거나 공론장의 왜곡을 방조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신문 뉴스에서 연일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미디어가 단순히 정보 교류와 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현실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직시하는 일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3-1은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과 관련된 제시문 (가), (나), (다)를 통해 제시문 (마)의 이분(권력자)의 기만과 사회자(선동가)의 찬양, 군중들(대중)의 맹신, 누군가로 대표되는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을 우화 형식으로 제시한 기형도의 시에 나타난 다양한 인물군상들의 태도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문제 3-2는 기사 편집에서 인용 방식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뉴스 사례들을 비교하도록 했으며, 제시문 (가)와 (다)를 통해 정보 수용의 올바른 자세를 서술하도록 했다.

문항해설

[문항 1]

문제 1은 자영업 시장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해보는 것이다.

문제 1-1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 장인의 숙련, 한국 자영업 시장의 구조를 다룬 제시문을 읽고 '표준화된 숙련'과 '장인의 숙련' 간의 차이를 찾은 후, 이를 적용하여 숙련을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프랜차이즈와 숙련을 보유한 자영업자의 대비적 특성을 설명하는 문제이다.

문제 1-2는 제시문 (다)에서 말한 '골목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제시문 (라), (마)의 내용을 활용하여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시사주간지 『시사IN』에 실린 “백종원, 프랜차이즈도 못 이기면 식당하지 마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이다. 해당 기사를 토대로 하여 일부 재구성하였는데, 표준화된 숙련을 제공하고 제공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을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세계 브랜드 백과』에 실린 럭셔리 패션 브랜드 B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것이다. 숙련을 보유한 장인형 자영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글에 해당한다.

제시문 (다)는 '백종원 현상과 자영업의 덫'이라는 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경제학 3.0』의 '노동을 다시 생각한다, 머슴경제의 구조화 - 왜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똑같을까'라는 글과 '백종원 현상과 자영업의 덫'이라는 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골목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제시문 (라)에서 나타난 국내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은 제시문 (마)에 나타난 심리학 측면의 주장과 연결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 대학 탈러 교수가 공저한 『넛지』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주제는 『경제』 교과목에서 노동, 실업, 사회 변화와 직업 선택, 가계의 합리적 의사결정, 소비행태, 통계와 그래프의 이해와 관련된 단원에서 다루지고 있으며, 『사회·문화』 교과목에서도 사회 계층 구조, 산업화와 노동, 실업 문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제는 또한 『사회』 교과목에서는 일과 직업, 『윤리와 사상』 교과목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생활과 윤리』 교과목에서는 직업의 의의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문항 2]

문제 2는 '청동의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것이 제시문 (가), (나), (라)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다. 또한, '감자의 시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시어를 제시문 (마)에서 찾고, 이 시어의 의미로 추론되는 바를 제시문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이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2-1은 제시문 (마)의 '청동의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난민 문제 (나)의 북한의 핵문제, (라)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2-2는 제시문 (마)의 '감자의 시간'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시어를 찾고, 이 시어를 통해 추론되는 바를 제시문 (나), (다), (라)에서 찾아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문경란이 지은 『우리 곁의 난민』에서 발췌한 것으로, 시리아 전쟁 난민, 쿠르디

가족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 전쟁의 폐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코르버재단 연설문(‘신베를린 선언’)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남과 북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김구의 『백범일지』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해방 후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한완상이 지은 『한반도는 아프다』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한 것인데, 적대적 공생 관계를 끝내고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허수경의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에 실린 시 「물 좀 가져다 주세요」의 전문을 인용한 것으로, 시어 ‘청동의 시간’과 ‘감자의 시간’의 의미를 대비적으로 제시하여, 전쟁(의 시간)과 평화(의 시간)의 의미를 환기시켜 주고 있다.

전쟁, 평화, 난민 등에 관한 내용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세계 지리』, 『한국사』 등 고등학교 인문 사회 교과 전반에서 중요 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문항 3]

오늘날 미디어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다. 각종 미디어가 끊임없이 쏟아내는 정보의 범람 속에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판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다. 이 문항에서는 미디어의 시점과 논조, 정보 생산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수용하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세계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진실을 향한 항해에서 휩쓸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했다. 미디어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3-1은 제시문 (가)의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 (나)의 권력 획득과 유지에 개입하는 진실과 허구의 문제, (다)의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근거로 제시문 (마)의 “이분, 사회자, 군중들, 누군가”라는 인물들의 태도와 의미를 묻고 있다. “이분”으로 대표되는 권력자의 위선적 태도, 대중을 선동하는 “사회자”의 기만적인 태도, 허위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군중들”의 맹목적 태도, 이러한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누군가”의 비판적 태도는 지금여기의 현실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는 인물군상의 모습이기도 하다.

문제 3-2는 제시문 (라)의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시문 (바)의 뉴스 사례 ①, ②가 시청자에게 어떤 반응을 초래하는지를 묻고, 제시문 (가)와 (다)를 통해 정보 수용의 올바른 자세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사례가 보여주듯이, 뉴스는 인용 방법에 따라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와 (다)에서 드러나는바, 수용자 자신의 관점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석해야 하며, 확증편향에 매몰되어 정보를 단선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다면적으로 인식해야 하겠다.

제시문 (가)는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으로,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과 관련된 『사회·문화』 교

과서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 (나)는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뽑은 글로, 탈진실의 시대에 허구와 진실, 권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도록 했다.

제시문 (다)는 설규주의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에서 발췌·편집한 글로, 가짜뉴스가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론장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라)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사건이 편집자의 관점이나 인용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널리즘의 문제를 다룬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제0호』에서 일부분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마)는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자와 선동가, 맹목적인 믿음에 도취한 군중들,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우화적 형식으로 제시한 기형도의 시 「홀린 사람」 전문이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제시문 (바)는 모리 다쓰야의 『뉴스 사용 설명서』에서 발췌한 글로, 하나의 사건이 보도 방식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제시문들을 통해 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 권력과 미디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는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사회』, 『사회·문화』 교과목에서 정보화 사회의 특성, 대중매체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 시 답 안

[문항 1]

1-1. 제시문 (다)에서 장인의 숙련은 자기 숙련을 가지고 있는 반면, 표준화된 숙련은 자기 숙련이 없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기술과 노하우를 맡기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적정 수준의 품질, 대량 생산 음식, 표준화된 맛과 서비스, 본사의 관리를 받는 특성을 가진다. 제시문 (나)는 고품질, 소량 생산, 독창적인 기술과 제품, 경영상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1-2. 골목 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들은 창업 시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는 외환위기로 인해 정리하고 된 후 선택할 만한 대안이 적은 상황에서 급히 생계형 서비스업에 내몰렸고, 경험과 준비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존율이 낮은 음식·숙박업과 같은 유사한 업종에 몰리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심리적으로 자신만은 잘 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와 타인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동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항 2]

2-1. 청동의 시간은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 받는 차가운 시간이다. (가)는 전쟁의 비극으로 삶의 터전이 뿌리 뽑힌 난민, 쿠르디 가족의 삶이요, (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불안한 현실이며, (라)는 남북한의 대립 상황을 지속시키는 정치세력들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2-2. (마)에서 감자의 시간을 사는 데 필요한 것으로 땀 흘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과,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옥수수가 제시되었다. 이 시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한 위험과 한반도의 긴장을 풀고 상호 간 신뢰를 쌓는 대화가 제시되었고, (다)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불행에서 탈출하여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높은 문화의 힘을 갖는 것이 제시되었다. (라)에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고 내 속의 참함과 주적의 참함이 악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제시되었다.

[문항 3]

3-1. (마)의 '이분'은 권력을 획득하고 자신의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위선적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사회자라는 하수인을 통해 자신을 미화하고 대중을 선동하도록 한다. '사회자'는 권력자의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견이 개입되어 권력자의 의도대로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대중을 선동한다. '군중들'은 권력자의 하수인이 전파하는 허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맹목적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다. '누군가'는 권력자의 하수인이 퍼뜨리는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3-2. (라)는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인용하는가에 따라 특정 의견이 사실로 둔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의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편집된 뉴스 ①을 본 시청자는 가해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뉴스 ②를 본 시청자는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는 정보가 권력자 또는 정보생산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음을, (다)는 대중의 확증편향에 의해 허위정보가 확산되기 쉬움을 경계한다. 따라서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정보를 수용해야 하며,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진위를 확인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9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는 권력을 따라간다. 갈수록 세계화되고 동질화되는 시대에 세계의 통신과 상업을 지배하는 언어들이 지정학적 국경과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소수 언어들을 사멸시키고 있다. 로마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였다. 로마시대 군대를 가거나 관료가 되기 위해 라틴어 학습이 필수였다. 제국의 영향력이 미친 지역은 정복에 의해서건 출세를 위해서건 라틴어를 익히고 구사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 고유 언어는 일상의 소통도구였을 뿐 공문서, 출판물 같은 공식적 통용 언어는 라틴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틴어는 지역 언어와 문화를 잠식해 갔다. 이 같은 측면에서 라틴어는 ‘권력의 언어’ 혹은 ‘제국의 언어’로 불린다.

(나) 언어의 죽음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의 퇴보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고전문학 작품은 그 시대 사람들과 소통을 가능케 하고 문화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양한 문화를 대변해주는 언어가 없다면 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만약 언어를 보존하지 않고 사라지게 둔다면, 비극의 시초로 여겨지는 「오이디푸스 왕」, 르네상스시대를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과 같은 작품을 접할 수 있었겠는가?

다양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와 다름 없다. 언어는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신과 문화를 대변해 준다. 따라서 언어 속에 녹아있는 문화와 정신을 다른 언어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 한국어의 다양한 색채어 표현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한국어의 경우 빨간색은 시빨간, 새빨간 등으로 어휘가 확장된다.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처럼 관용적인 표현도 있다. 다른 언어가 한국어의 다양한 색채어를 번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어로 보면 시빨간이나 새빨간이나 모두 ‘레드(Red)’ 일 뿐이다. 풍부한 어휘는 문학작품을 빛나게 해준다. 영화나 음악도 마찬가지다. 소리 없이 언어가 사라진다면 인류는 문화의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 될 것이다.

(다) 스위스는 여러 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이며, 주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그대로 그 주의 공식적인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등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중 언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언어 갈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위스의 모든 학교에서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외에 다른 지역의 언어를 하나 이상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다. 또 언어적 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대리인을 두며, 각 부처에 통역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였다. 그 결과 네 언어권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갈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뒷면에 계속)

(라) 영어가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어 사용자들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를 상당 부분 장악하게 된 것과 관련된다. 특정 언어의 지식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그 언어는 더욱 습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구촌의 언어는 영어이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혜택으로부터 추방될 위협에 처하는 것이다. 신생 독립국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인해 자국의 언어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예전 식민 종주국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선택한다. 이런 나라의 엘리트 계층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그 언어를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한다.

(마) 우리 일상에서 사투리가 하나둘 사라져 가고 있다. 국립 국어원이 발표한 제주어 생태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어의 80%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앞으로 으남(안개), 상고지(무지개)와 같은 제주어를 영영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제주어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제주 사투리 구사 기능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사투리를 보존하고 가꿔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문화와 전통, 구체적 일상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투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며, 언어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바) 서로 다른 연령층의 언어사용 양상에 대한 정보로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언어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하위계층보다는 상류계층에 의해 더 많이 사용되었던 *rhotic R 발음을 더 권위가 있는 발음으로 여겼고, 나이 든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 결과 rhotic R 발음의 사용 지역이 빠르게 확산되어 뉴욕시 전역에 널리 퍼져 사용되게 되었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언어변화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자기들이 사용하던 기존의 언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젊은이들의 말에서 권위가 있는 표준 형태의 사용 빈도수 증가는 그것이 그 사회에 새로운 언어형태로 도입되어 언어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rhotic R 발음: ‘car’ 에서와 같이 모음 바로 뒤에서도 소리가 나는 미국식 발음.

1-1. 제시문 (나)의 논지에 따라 제시문 (다)와 (마)의 사례를 분석하시오. (200자±20자) [10점]

1-2. 제시문 (가)의 밑줄 친 언어는 권력을 따라간다는 예를 제시문 (가), (라), (바)에서 각각 찾고, 그 의미를 구분해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중략...) 아버지는 그 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또—대대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婢 金伊德의 한 소생 奴 今同 庚寅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金今伊 丁卯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德水 己巳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存世 辛未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永石 癸酉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鐵壽 丙戌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今山 戊子生’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었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나) 롤스(Rawls J.)는 봉건 귀족 사회를 시작으로, 정의에 관한 대답하는 이론 몇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주장을 펼친다. 요즘에는 봉건 귀족 계급이나 카스트 제도의 정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다. 롤스가 보기에, 이런 제도는 출생이라는 우연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농노로 태어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리와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타고난 환경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삶의 전망이 이런 임의의 현실에 좌우된다면 부당한 일이다. (...중략...)

롤스는 능력 위주라는 개념이 도덕적으로 임의의 상황에서 나오는 특정한 이점을 되돌리기는 해도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애써 똑같은 출발선에 세웠더라도 누가 그 경기에서 승자가 될지, 그러니까 가장 빠른 주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주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노력에만 좌우되지는 않는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듯이, 빠른 주자가 되는 것 역시 도덕적 우연이다. 롤스는 이렇게 썼다. “능력 위주의 사회가 사회적 우연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히 허용된다.”

(뒷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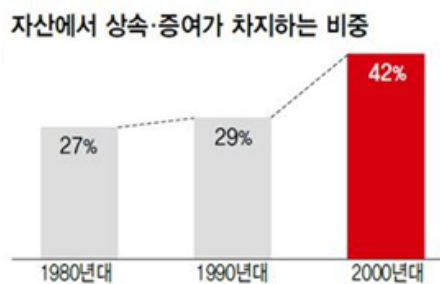
롤스의 말이 옳다면, 교육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서도 자유시장은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한다. 이유는 이렇다. “분배되는 몫은 타고난 운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성을 띤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사회적 우연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듯이, 타고난 자산에 따라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롤스는 정의를 능력 위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비록 정도는 약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즉 둘 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임의의 요소에 좌우된다. “사회적 우연이 분배 몫을 결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타고난 우연이 분배 몫에 미친 영향을 고민하게 된다. 또 타고난 우연의 영향을 고민하다 보면 사회적 우연의 영향을 고민하게 된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그 둘은 똑같이 임의성을 띤다.”

(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 분노한다. 하지만 평등도 평등 나뉠이다. 노력과 성취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상할 경우 재능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취동기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결과의 평등인데, 결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공산주의의 몰락이 그 증거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이 한창일 때 우수한 흑인 학생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역차별 정책을 사용해서 단지 흑인이거나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질이 못 미치는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 역시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경우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2-1. 제시문 (나)에 나오는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난장이 가족과 그 조상들의 삶을 비교 분석하십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아래 제시한 도표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30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주된 특징이다. 이때, 하한가격(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을 상회해야 균형임금이 변화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는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반대로 노동 수요량은 감소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다. 노동 수요가 시간당 임금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바꿔 말해 기업이 시간당 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고용량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작을수록, 즉 기업이 시간당 임금 인상에 둔감하게 반응할수록 고용량 감소는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큰 경우 최저임금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데,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측은 이런 사례 등을 들어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직업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측은 실업이 늘어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노동 수요나 공급의 임금탄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이들의 고용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내수 시장 전체의 성장을 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균형임금: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

(나)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증가한 부의 82%는 전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차지했다. 반면 소득 하위 50%는 창출된 부에서 가져가는 몫이 전혀 없었다. 옥스팜의 위니 비아니마 이사는 “억만장자들만 번성하는 현상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의 증표”라고 설명했다. 또 “옷을 만들고, 휴대전화를 조립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착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스팜은 각국 정부가 공정한 부의 배분, 더 강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최저임금제의 시행 및 강화, 생계비 지원, 노동조합 지원, 성차별적 관행 타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정책 제언을 했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다. 현재 2%대 후반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무렵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원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낮은 생산성,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꼽았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볼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라) 지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7년말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평균 13달러이다. 워싱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시애틀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3달러로 오르면서 임금이 3% 올랐지만 일자리 수는 9만 3382개에서 8만 6842개로 7%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9% 줄었고, 급여도 125달러 줄었다. 또 최저임금이 1달러씩 오르면 취업 기회가 3달러씩 증발한다고 했다.

독일은 2015년 1월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기존 ‘노사간 자율협약’에 급여 산정방식을 맡겼던 독일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했다. 최저임금 정책이 시작되고 2년 6개월여가 지난 2017년 8월 기준으로 독일의 업종간 임금격차는 전체 0.2% 감소했다. 과거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뒷면에 계속)

를 받았던 업종의 경우에도 임금격차가 5.7% 줄었다. 신규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증가했고 2017년 2분기에는 독일 취업자수가 4,420만 명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전분기대비 +1.5%,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수치였다.

(마)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그리고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완전고용의 달성은 물가의 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의 균형,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와 더불어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표이다. 현행 헌법은 고용의 증진이라는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은 소득과 부의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32조 제3항은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이 포함된다.

(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유 경쟁을 통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한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시장 실패 현상이라고 한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언제나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이해 집단들의 정치적 압력, 관료의 부정 부패 등의 이유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 실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의 결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정부 실패 현상이라고 한다.

3-1. 제시문 (나), (마), (바)의 논지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200자 ±20자) [15점]

3-2.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문 (라)에서 각각 찾아, 해당 시장의 특성과 상황을 제시문 (가)를 근거로 추론하시오. (350자±20자) [25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 출제 영역 및 모범답안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의학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항 총괄 】

문항번호		출제범위(고교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배점 (총 100점)
1	1-1	국어 I, 국어 II,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사회,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언어, 언어변화, 개성과 다양성, 갈등, 문화의 다양성, 사회정의	10
	1-2	국어 I, 국어 II,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사회		20
2	2-1	문학,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적 우연, 타고난 자산, 노력의 결과, 도덕적 임의성, 기회의 균등, 결과의 평등, 노력, 효율성	15
	2-2	문학,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15
3	3-1	사회, 경제	시장실패, 정부개입, 정부실패,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	15
	3-2	사회, 경제		25

1. 인문사회계 문항1

출제 의도

문항 1은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언어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시문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들의 내용과 예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지니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을 예시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언어가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신과 문화를 대변하므로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개별언어를 보존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례를 보기로 주어진 제시문들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주어진 논지에 맞는 예시를 주어진 제시문들에서 각각 찾고, 각 예시가 나타내는 바를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각 예시가 나타내는 바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출제 근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6	63	문제 1-1, 제시문 (마)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6	247	문제 1-1, 제시문(다)	○
세계지리	위상복 외	비상교육	2016	253	문제 1-1, 제시문(다)	○
사회, 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6	139-43	문제 1-1	○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7	246-253	문제 1-1	○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주)교학사	2017	264-272	문제 1-1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7	212-217	문제 1-1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264-272	문제 1-1	○
국어 I	조현설 외	해냄에듀	2016	103	문제 1-1	○
국어 II	조현설 외	해냄에듀	2016	168	문제 1-1, 1-2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언어학 입문	자넷 홉즈, 닉 윌슨	Routeledge	2013	227-8	제시문(바)	○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	김정화 역	이제이박스	2003	61-62	제시문(라)	○
사라져 가는 언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윤중희	No 1 문화웹진 채널예스 기사	2013.11.12	-	제시문(나)	○
사라지는 언어, 사라지는 세계	이영현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블로그 기사	2013. 5.7	-	제시문(가)	○

문항 해설

문항 1은 언어가 인간의 삶과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시하여 사라져가는 소수 민족의 언어나 지역 사투리를 보존하는 것이 언어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문화가 획일화를 막고 다양성을 지키는 길임을 생각해보도록 하는데 출제의 의도가 있다. 제시문 (가)는 사회, 세계 지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언어가 권력에 따라 사용된다는 것을 라틴어의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사라지는 언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언어가 사라지면 문화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언어를 지키는 것이 언어 속에 녹아있는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사회 교과, 세계 지리 교과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스위스에서 각 지역의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이한 언어,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게 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라)는 ‘사라져 가는 목소리들’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영어를 사용해야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로 자국의 언어를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언어가 경제 권력을 쫓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문 (마)는 사회 교과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으로, 지역 사투리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문 (바)는 ‘사회언어학’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으로 언어가 변화되는 계기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어변화는 대체로 나이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데, 제시문 (바)에서는 rhotic-R 발음이 상류층이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용한다는 것, 즉 언어변화가 계층 권력을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나)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다)와 (마)에 제시된 사례를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에서 언어가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신과 문화를 대변하므로 언어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다)에서 스위스에서 4개 권역의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여, 상이한 언어권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게 된 것을 사례로 분석하였는가? • 제시문 (마) : 사라져가는 사투리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와 전통, 일상이 담긴 유산을 지켜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도 사례를 제시하였는가? • 문장, 어휘 구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 답안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10
1-2	<p>【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예시를 제시문 (가), (라), (바)에서 각각 찾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시를 제시문 (가), (라), (바)에서 각각 찾을 수 있는가? • 제시문 (가), (라), (바)의 예시가 나타내는 바를 비교 분석하여 서술할 수 있는가? • 문장, 어휘 구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 답안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20

예시 답안

1-1. (나)의 논지는 언어는 사회의 정신과 문화를 대변하므로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 개별언어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는 스위스에서 4개 권역의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화합하게 된 사례이다. (마)는 사라져가는 사투리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와 전통, 일상이 담긴 유산을 지켜내는 것임을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1-2. “언어는 권력을 따라 간다”의 예로 (가)에서는 라틴어, (라)는 영어, 그리고 (바)는 “rhotic R 발음”을 각각 찾을 수 있다. (가)의 라틴어는 관료 권력을 얻는 데 필요한 언어로 식민지의 공식어로 사용되다 점점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잠식해 갔다. (라)의 영어는 기술 주도의 경제 권력을 획득하는 데 용이한 언어였다. 신생독립국의 경우 국민에 대한 권력 행사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바)의 상류층이 사용하던 “rhotic R 발음”은 계층 권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해 뉴욕 지역의 언어가 변화된 사례를 보여준다.

2. 인문사회계 문항2

출제 의도 및 문항해설

‘노오력’이라는 단어와 ‘헬조선’, ‘수저계급론’은 청년세대들의 고통과 절망을 오롯이 보여주는 신조어다. 이러한 말들이 경제적 양극화가 격심한 지금 여기의 현실을 읽어내는 키워드라고 본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의의 방향을 고민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 문항은 롤스의 정의론과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을 통해 기회 균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했다. 두루 알다시피 기회 균등은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기회 균등을 가로막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회의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출제 근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7	172-178, 188-190	제시문 (나), (다), 문제 2-1, 2-2	○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주)교학사	2017	180-185, 198-199	제시문 (나), (다), 문제 2-1, 2-2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7	152-155, 164-165	제시문 (나), (다), 문제 2-1, 2-2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84-188, 198-200	제시문 (나), (다), 문제 2-1, 2-2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256-258	제시문 (나)	○
윤리와 사상	박병기 외	(주)지학사	2017	276-279	제시문 (나)	○
윤리와 사상	김선옥 외	(주)금성출판사	2017	241-246	제시문 (나)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7	224-225	제시문 (나)	○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주)교학사	2017	200-202	제시문 (나)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이성과함	2013	80-88	제시문(가)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옮김)	와이즈베리	2014	214-216	제시문(나)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김희정·안세민 옮김)	부키	2010	276	제시문(다)	×
금수저·흙수저 계급론, 갈수록 심해진다	김소연 기자	한겨레	2015	-	문제 2-2	×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하는 난장이 가족과 그 조상들의 삶의 내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는 난장이 가족의 삶과, 전통적인 신분 사회와 그 제도가 철폐된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조상들의 삶은 사회 계층적·경제적 측면에서 기회 균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다. 제시문 (나)에서 롤스는 신분과 출생에 따른 분배가 사라진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도 타고난 능력과 재능이라는 임의성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본다. 반면, 제시문 (다)는 결과의 평등을 반대하고 기회의 균등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보고 있다. 문항 2-1은 “사회적 우연, 타고난 자산(환경), 노력, 도덕적 임의성”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전근대사회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난장이 가족과 조상들의 삶을 전근대/근대, 신분/계급, 사회적 우연/타고난 우연의 층위를 비교 분석하도록 했다. 문항 2-2는 제시문 (나)에 나타난 롤스의 관점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도표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기회 균등을 주장하는 제시문 (다)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의 논지를 파악하여 제시문 (가)의 난장이 가족과 그 조상들의 삶을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나)의 논지를 사회적 우연과 타고난 자산, 노력의 결과, 도덕적 임의성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 제시문 (가)의 난장이 가족과 그 조상들의 삶을 제시문 (나)의 핵심개념을 활용하여 제대로 비교하였는가? • 문장, 어휘 구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 답안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1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도표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다)의 주장을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함】 • 제시문 (다)의 논지를 기회의 균등, 결과의 평등, 노력, 효율성 등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 문항에서 제시한 <도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였는가? • 제시문 (다)의 주장의 문제점을 찾고, (나)의 관점에서 비판하였는가? • 문장, 어휘 구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 답안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15

예시 답안

- 2-1. 제시문 (나)에서 롤스는 부와 권력이 사회적 우연과 타고난 자산에 따라 분배되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므로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본다. 난장이 가족과 그 조상들은 노력이나 성취의 크기에 상관없이 불평등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증조부 이전 세대는 최하층 천인 신분으로서 노력의 결과를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나 증조부는 신분제에서 벗어났지만 교육과 경험 부족으로 집과 땅을 잃었다. 난장이 가족의 경우에는 신분과는 무관하게 타고난 자산에 따라 경제적 불운을 겪고 있다.
- 2-2. 제시문 (다)는 결과의 평등이 노력과 성취동기를 상실하게 하므로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며, 기회의 균등이 효율적이고 정당하다고 본다. <도표>는 상속과 증여의 비중이 30년간에 걸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상속과 증여는 물려주는 자에게는 노력의 산물이지만 물려받는 자에게는 사회적 우연의 산물이다. 상속과 증여분의 증가는 우연성의 영향을 증대시켜 상속받는 세대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파괴한다. 결국 노력보다는 우연이 삶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노력과 성취동기를 상실하게 한다.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는 한 (다)의 기회균등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3. 인문사회계 문항3

출제 의도

문항 3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부의 분배, 임금 및 근로조건, 정부의 시장개입 등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의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그 출제 의도가 있다. 문항 3-1은 제시문 (나)의 실제 사례를 이해하고 제시문 (마)와 (바)의 이론과 접목시켜 봄으로써, 실제 사례에 이론을 적용하여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항 3-2는 다양한 제시문의 논지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논리적이고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출제 의도가 있다. 먼저 제시문 (나)와 (다)의 논지를 각각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를 제시문 (라)에서 찾게 함으로써 이해력과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시문 (가)의 이론을 이해하고 제시문 (라)에서 나타난 실제 사례의 특성과 상황을 제시문 (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설명하게 함으로써 이해력과 분석력, 논리적 사고력과 서술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출제 근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6	103	제시문(가)	○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6	119	제시문(마)	○
경제	오영수 외	교학사	2016	128	제시문(바)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6	117,123	제시문(바)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최저임금제와 실업의 관계(『매일경제』)	이종건	매일경제	2018		제시문(가)	○
옥스팜 “상위 1%, 연간 증가한 부의 82% 차지”(『이투데이』)	이지민	이투데이	2018		제시문(나)	○
저임금 일자리만 파괴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중앙일보』)	조준모	중앙일보	2018		제시문(가), (다)	○
韓 최저시급 인상. ‘시애틀의 역설’ 혹은 ‘독일의 성공’ (『헤럴드경제』)	김성우	헤럴드 경제	2018		제시문(라)	○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정상익	세계헌법연구	2010	476-477	제시문(마)	○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경제 교과서의 내용과 ‘최저임금제와 실업의 관계,’ ‘저임금 일자리만 파괴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라는 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고용시장과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옥스팜 “상위 1%, 연간 증가한 富의 82% 차지”라는 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차가 커지고 있는 현상과 부의 재분배, 최저임금제 등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제시문 (다)는 ‘저임금 일자리만 파괴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라는 기사를 재구성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음을 전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韓 최저시급 인상. ‘시애틀의 역설’ 혹은 ‘독일의 성공’이라는 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시장과 시애틀 시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각각 최저임금제가 성공하고 실패한 사례로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사회 교과서의 내용과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재구성한 글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근로권,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바)는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정부 실패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나), (마), (바)의 논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나), (마), (바)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였는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는가? 문장, 어휘 구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답안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15
3-2	<p>【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문 (라)에서 각각 찾아, 해당 시장의 특성과 상황을 제시문 (가)를 근거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 (나), (다)의 이론과 주장을 이해하였는가? 제시문 (나), (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를 제시문 (라)에서 제대로 찾았는가? 제시문 (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서 주어진 각 시장의 특성과 상황을 추론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문장, 어휘 구사를 제대로 하였는가? 답안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20

예시 답안

- 3-1.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패한 경우이므로 시장 실패의 증표이다. 임금은 소득과 부의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현행 헌법은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를 규정하고 있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제와 같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
- 3-2. 옥스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제시문 (라)의 독일 시장이다. 독일 시장에서는 노동 수요나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작아 최저임금제가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되어 소비가 진작됨으로써 내수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IMF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제시문 (라)의 시애틀 시장이다. 시애틀 시장에서는 노동 수요나 공급이 시간당 임금에 탄력적이어서 최저임금제에 따른 고용량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최저임금제가 미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성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파괴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상실시켰다.

**2018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 술 고 사(인문·사회계) 문 제 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 명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약 강제력을 쓰지 않고도 남에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굳이 강제력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이 국가에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을 국가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에는 반드시 **폭력**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가 전제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다만 권력 행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민들은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였다. 그 까닭에 오직 국가만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독점한 것이다. 국가의 강제력은 경찰과 군대의 역할에서 잘 나타난다. 경찰은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도 한다. 또 군대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하여 이에 대응한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권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식민지를 경험한 개발도상국의 ‘경찰’·‘검사’·‘법원’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조직들이, 해야 할 일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조직들은 대부분 서구 열강이 식민지에 세운 것이며, 이는 본국에서 발달한 조직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식민지 경찰은 서구 열강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따라서 경찰은 국가 안보와 폭동 진압을 강조했다.

독립 이후에도 이런 역기능은 그대로 남았는데, 그 이유는 권력을 잡은 독재정권과 정치 엘리트들이 식민 정책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법제도를 망가뜨리고 빈민과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들고 폭력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폭력**과 공포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해 왔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강제력을 제재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위협으로 여기며 제도 개혁에 강하게 저항했다.

(다) 파농(Fanon, F.)은 식민주의가 근본적으로 폭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폭력에 의해 왜곡된 인간의 정신 및 육체를 통해서 대항적인 **폭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파농이 마지막으로 당도한 문제는 폭력의 동기 부여와 표적이었다. 그는 증오에 근거한 폭력은 지배자의 작은 온정에도 쉽게 흔들리므로 결코 변혁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폭력에 지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즉, 폭력이란 단순히 권력의 획득이라는 대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취기를 깨우는 해독작용이며, 압도적인 힘을 가진 주인에 대한 원주민의 열등 콤플렉스나 방관 내지 절망적인 태도를 없애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뒷면에 계속)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한 독립은 자신을 식민지로부터 보다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결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식민지와 식민지 괴뢰정부 밑에서 안주하던 엘리트와 독립 후의 엘리트들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결국 사회는 본질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 아나키즘(anarchism)을 삶의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나키즘을 단순히 무정부주의로 번역하지 않는다. 이들은 반강권주의(反強權主義)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권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을 거부할 뿐, 스스로 동의한 권위라면 전체의 결정이라도 자신이 결정한 것처럼 따르려 한다.

무정부주의라는 잘못된 낙인과 함께 아나키즘이 가장 많이 받는 오해는 테러리즘이라는 비난이다. 하지만 아나키즘은 무차별적인 테러를 찬양하지 않는다. 아나키즘은 잘못된 결정이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울 때에만 나의 자치와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오히려 사회 정의와 모두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으라고 권한다. 이에 아나키즘은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의 폭력에도 맞서고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주의에도 반대하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나키즘은 자신이 선택한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말하자면, 무정부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지금 당장 정부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지금 당장,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 (중략)...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마땅히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느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 (중략)...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겨라.

1-1. 제시문 (가)와 (마)의 논지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과 시민의 자세를 서술 하시오. (200자±20자) [10점]

1-2.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밑줄 친 **폭력**의 목적을 각각 설명하시오. (250자±20자) [20점]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공성은 서구에서 유래된 ‘퍼블릭(public)’ 이나 ‘오피셜(official)’ 과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공(公)’ 이나 ‘공공(公共)’ 과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영어를 한자어로 대체한 단순한 번역은 아니다. 이는 동양과 서양 모두 공공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성찰을 축적해 왔음을 보여준다. 공공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선 공공성은 공동체의 전체 이익과 관계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적 이익에만 머무른다면 공공성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공공성은 또한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며 그것에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음 장에 계속)

(나) 정도전(鄭道傳)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의 하나는 정치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과 아울러 정치권력을 철저하게 공공성의 영역 안에 묶어두려는 의지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수미일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도전은 정치공동체의 근본 문제가 ‘자기중심성’에 있고, 고려의 정치적 경험에서 이 자기중심성이 특히 ‘사견(私見)’과 ‘사욕(私慾)’의 정치로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독선적인 정치와 폭정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 정도전은 이를 소유 지향적 정치로 보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론(公論)’과 ‘공의(公儀)’의 정치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문덕(文德)’의 정치라 불렀다. 정도전은 ‘개언로(開言路)’라 하여 정치적 소통을 지향하였는데, 그 핵심은 공공성이었다.

(다) 하버마스(Habermas, J.)의 용어 오펜틀리히카이트(Offentlichkeit)는 ‘공론장(public sphere)’으로 번역된다. 공론장은 사적 의견에 반대하는 공공성을 양산하고 유지하는 공공의 이슈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영역이다. 공론장은 단순히 시민사회가 아니며, 오히려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국가에 연계시키는 공동으로 인식된 질문들이나 이슈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다.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특정한 정치적 선택이 최상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은 어떤 정치적 선택이 만들어지는지를 공동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공론장은 일종의 공공 이슈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통합되는 영역이다. 공론장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은 시민적 쟁점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공동체의 공익을 증진시키게 된다.

(라) 류성룡(柳成龍)은 『시경(詩經)』의 “나는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환을 조심한다.”라는 구절에서 제목을 빌려와 『징비록(懲毖錄)』을 저술했다. 이 책은 단순히 임진왜란에 대한 개인적 기록이라기보다 전쟁사에 대한 주목할 만한 반향을 일으켜 처칠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긴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회고록에 가깝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의 한가운데서 실무를 통괄했다. 그는 전란이 끝난 후에 전쟁 관련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의 존망 위기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는 『징비록』에서 “백성이 떠돌고 정치가 어지러워진 때에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아 위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떠받치지 못하였다.”라고 성찰하며, 후세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집필 동기를 밝혔다.

(마) 다양한 소통채널인 소셜미디어는 각 사회영역으로 접근성을 높여 과거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결정의 장을 만들어냈다. 양질의 정보 제공과 소통을 통해서 미디어의 여론 형성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이 항상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노엘 노이만(Noelle-Neumann, E.)의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지배적인 여론이 아닌 소수의견이라 생각할 때,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감추어야 한다는 압력과 소외의 공포를 느끼며 점점 침묵하게 된다. 또한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는 가짜 뉴스나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퍼뜨리면서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협력을 방해하기도 한다. 결국 소셜미디어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정치적 타협을 위한 환경을 악화시킨다.

2-1. 제시문 (나)와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가)의 공공성 개념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나), (다), (라)의 내용을 각각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뒷면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할머니 가시고 열흘 뒤에 아버지가 가셨다

상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일곱살 무렵 강에서 수영을 하다 죽을 뻔한
아들을 구해준 마을 삼촌들께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는 걸 잊지 않으며
술잔을 들던 모습이 내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목욕이란다
눈앞에 닥친 죽음을 맞기 위해 아버지는
살아서의 버릇대로 혼자서 욕실에 들어가
구석구석 이승의 때를 밀었다
그러고 나서 달력 뒷장에 정갈한 필체로
‘잘 살고 간다, 화장 뿌려, 안녕.’
한마디를 남겼다 아버지가 죽음을 기다리던 그 시간
술꾼의 아들답게 나는 만취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당도한 막냇사위 말로는
아버지 등에 박혀 있던 못이 풀렸다고 한다
평생 빠질 것 같지 않던 손바닥 못도 풀려 있었다고 한다
못도 산 자에게 박히는 것, 허리가 굽었던 사람도
죽으면 몸이 곧게 펴진다고 하더니
한평생 지게꾼으로 산 양반
아들도 해드리지 못한 안마를 죽음이 해드린 것인가
장례를 마치고 후줄근하게 땀에 전 몸을 씻다가,
멀어져가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귀성길 준비라도 하듯
혼자서 ㉠ 마지막 의식을 치르시던 아버지의 고독한 밤이 생각났다

(나)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맞서 싸웠지만 그토록 두려운 죽음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매 순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 검은 구멍 속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한 그 구멍을 뚫고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정당했다는 의식이 바로 그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더더욱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강한 힘이 그의 가슴과 옆구리를 세차게 밀치는 것 같더니 숨을 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는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구멍 끝에서 뭔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진짜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이반 일리치의 느낌이 그런 것이었다.

“그래, 모든 것이 잘못되었었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괜찮아. 어쩌면 아직, 아직 ‘그걸’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지?”

그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고 갑자기 침묵했다. …(중략)…

그러자 돌연 모든 것이 환해지며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며 마음속에 갇혀 있던 것이 일순간 밖으로, 두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온갖 방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가족들이 모두 안쓰럽게 여겨지고 모두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도 벗어나고 가족들도 다 벗어나게 해주어야 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훌륭한 일인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다음 장에 계속)

‘그런데 통증은? 통증은 어디로 갔지? 어이, 통증,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 여기 있었군. 그래, 뭐 어때, 거기 있으라고.’

‘그런데 죽음은? 죽음은 어디 있지?’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에 있지? 죽음이 뭐야? 죽음이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이 한순간의 의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그러고도 두 시간이나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의 가슴에서 뭔가 부글부글거렸다.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그의 몸에 경련이 찾아왔다. 부글거리는 소리와 숨이 차서 쇠쇠거리는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다) “운명하셨습니다.”

당직 수련의가 시트를 끌어당겨 아내의 얼굴을 덮었다. 시트 위로 머리카락 몇 올이 빠져나와 늘어져 있었다. 심전도 계기판의 눈금이 0으로 떨어지자 램프에 빨간 불이 깜박거리면서 삐삐 소리를 냈다. 환자가 이미 숨이 끊어져서 아무런 처치도 남아 있지 않았지만 삐삐 소리는 날카롭고도 다급했다. …(중략)…

“시신은 병실에 두지 못합니다. 곧 냉동실로 옮기겠습니다.”

수련의가 전화로 직원을 불렀다. 직원 두 명이 병실로 들어와 아내의 침대 주변과 쓰레기통, 변기에 분무 소독액을 뿌렸다. 직원들은 아내의 시신을 벨트로 고정시켜서 침대에 싣고 나갔다. …(중략)… 원무과에서 지정 해준 영안실은 3호실이었다. 아내의 사체는 냉동실로 들어갔고, 빈소에는 시체도 문상객도 아직은 없었다. …(중략)… 아내의 죽음을 몸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은 나였지만, 아내의 장례일정 속에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었다. 빈소에 설치된 전화기가 울렸다. 병원 경리직원이었다. **경리직원**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고 나서, 아내가 죽기 전 일주일 동안의 치료비와 병실료를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내가 발병한 후 병원비는 삼천만원쯤 들어갔다.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정밀검사와 고액처치가 많았다. 나와 딸이 병수발 하느라고 쓴 돈을 합치면 사천만원쯤 들어간 셈이었다.

(라) 죽음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기나긴 꿈속으로 떠나가고 세상은 사라진다. 두려운 것은 죽어가는 고통이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산 자의 상실감이다. 죽음을 둘러싼 집합적이거나 개인적인 환상은 종종 사람들을 섬뜩하게 한다. 그 공포의 독성을 완화하고 유한한 삶이라는 소박한 현실을 그에 맞세우는 것은 아직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미처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전에 그리고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젊어서 죽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메마른 땅을 헤매고 거기에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역시 끔찍한 일이다. 죽어가는 것을 둘러싸고 수많은 공포가 존재한다. 쉽고 평화롭게 죽어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다.

(마) 전근대 사회에서 죽음이란 현대 사회와 같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사건이었고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갖는 대사(大事)였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인 임종을 자기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맞이했다. 이것은 임종자가 몇 명 되지 않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현대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부모의 임종에 모든 식구가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다음 절차인 장례 때는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하였다. 당시에는

(뒷면에 계속)

마을이 매우 중요한 사회 단위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 속한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사건에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 지금은 유족이나 친지들이 한 사람의 죽음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요즘에는 집에서 친지들은커녕 가족들조차 임종을 같이 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졌다.

(바) 많은 환자들이 요양원이나 중환자실같이 고립되고 격리된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채 엄격히 통제되고 몰개성화된 일상을 견뎌 내면서 말이다. 늙어 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정직하게 살피보기를 꺼려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는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더 많아졌고, 환자들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위로와 안식을 거부당해 왔다. 우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공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의학, 기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손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3-1. 제시문 (라)에 근거하여 제시문 (가)의 ㉠과 제시문 (나)의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아버지, (나)의 지켜보는 사람들, (다)의 경리직원의 태도를 비교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의학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 제 의 도

[문항 1]

문제 1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려면 국가와 국민이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고민을 이끌어내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인간 삶 속에 존재하는 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 목적에 따라 폭력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파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시민 불복종에 관한 생각을 종합·정리하여 서술하게 하였다.

문제 1-1은 국가권력에 대한 두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고 종합하여, 국가의 권력 행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과 국가권력을 대하는 시민의 자세를 파악해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문제 1-2는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폭력의 모습을 제시하여 그 목적에 따라 폭력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문항 2]

정치 공동체는 사적 이익의 영역과 공적 이익의 영역, 즉 공동체 전체 이익의 영역이 존재한다.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의 영역으로 투영되어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우리는 늘 정치공동체에서 목도하게 된다. 정치공동체는 항상 공공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존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문제 2는 공공성의 개념과 이와 관련하여 정도전의 정치사상, 하버마스의 공론장, 류성룡의 징비록, 소셜네트워크의 부정적 현상 등에 대한 제시문을 정치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1의 출제 의도는 (나)의 정도전의 정치사상에서 나타난 공론, 공의, 개언로 및 문덕의 정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의 공론장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공공 이슈 영역에서의 통합과 공동체 이익을 이해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침묵의 나선이론과 가짜뉴스 및 선동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2의 출제의도는 우선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공공성의 의미 2가지를 찾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정도전의 정치사상, 제시문 (다)의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제시문

(라)의 류성룡의 『징비록』이 지니는 공공성 측면을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3]

삶과 죽음은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죽음은 대단히 특수하고도 복잡한 현상이다.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간은 죽음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일상생활로부터 배제되거나 억압되었다. 고립된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산 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죽음과 그것에 이르는 경험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마주해 나갈 때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일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1은 고통과 상실감의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라)를 근거로 아버지의 “마지막 의식”과 이반 일리치가 도달한 “빛”의 의미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3-2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마)와 (바)를 통해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 (나), (다)에 등장하는 인물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항해설

[문항 1]

문제 1은 먼저 인간 삶에서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을 제시하여, 각각의 폭력이 행사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폭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데 의도가 있다. 그리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관해 고찰하고, 이를 국가권력과 시민의 관계 속에서 이해, 파악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데도 목표가 있다.

제시문 (가)는 『사회』,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독점할 수 있는 이유로 권력의 획득과 행사과정에서 주권자의 동의와 지지가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게리 하우겐의 『국가폭력』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국가권력이 사유화 되어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움을 경계하는 본 제시문은 권력의 남용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사카이 다카시의 『폭력의 철학』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식민지하에서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은 피지배자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인간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피흘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열등감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하승우의 『아나키즘』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국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자신의 자치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적 수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시문 (마)는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법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며, 법집행을 비롯한 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견제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글이다.

[문항 2]

문제 2는 공공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공공성의 개념 요소가 구현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는 이동수(외)가 지은 『정부의 재발견』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은 공공성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개념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다. 첫째는 공공성은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관계되며, 둘째로는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며 사람들이 그것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미이다.

제시문 (나)는 정순우(외)가 지은 『조선왕조의 공공성 담론』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은 정도전의 정치사상을 공공성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그는 고려가 정치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사견과 사욕의 정치가 나타나고 소유 지향적이고 독선적인 폭정이 야기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도전의 공론과 공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개연로와 문덕의 정치를 지향하였는데, 이를 공공성

의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제시문 (다)는 브루스 빔버의 『인터넷 시대 정치권력의 변동』와 한국언론학회의 『한국사회의 소통위기』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사적 의견에 반대하는 공공성을 양산하고 유지하는 공공 이슈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통합 영역이다. 공론장은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국가에 연계시키는 공동으로 인식된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시민들은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쟁점을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공동체의 공익을 증진시키게 된다.

제시문 (라)는 류성룡(김시덕 역해)의 『징비록』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는 임진왜란에 대한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환을 조심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집필을 통해 이 기록을 공공성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다.

제시문 (마)는 김우룡의 『커뮤니케이션 기본이론』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제시문은 양질의 정보제공을 통해 여론 형성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하는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을 다루고 있다.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과 가짜뉴스, 선동적 뉴스 등과 같은 사례는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타협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 2-1은 제시문 (나)의 공론, 공의, 개언로 그리고 제시문 (다)의 공론장이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에서의 소셜미디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론, 공의, 개언로 및 공론장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기본 관점에서 제시문 (마)에서 소셜 미디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2-2는 제시문 (가)의 공공성 의미 즉,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정보 공유와 개방’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통해, 제시문 (나)의 정도전의 정치사상, 제시문 (다)의 하버마스의 공론장, 제시문 (라)의 류성룡의 징비록이 갖는 공공성의 의미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항 3]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만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부정하거나 불멸의 삶에 대한 갈구 또한 인간 실존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죽음에 직면해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셈이다. 이 문제는 과거와 달리 죽음을 직면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의 과정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한 죽음에 직면한 이들과 남은 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 3은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1은 고통과 상실감의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라)를 근거로 아버지의 “마지막 의식”과 이반 일리치가 도달한 “빛”의 의미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죽음의 공포를 딛고 평화롭게 죽

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제시문 (라)의 과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제시문 (가)와 (나)의 “마지막 의식”과 “빛”의 상징적 의미라 하겠다. 즉, 아버지와 이반 일리치가 보여준 태도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 죽어가는 고통과 산 자의 상실감을 넘어서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수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3-2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마)와 (바)를 통해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 (나), (다)에 등장하는 인물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웃에 인사하고 목욕하고 유언을 남기며 죽음을 맞는 아버지, 이반 일리치의 죽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을 통해 공동체 문화 전통에 기반한 죽음의 경험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리직원이라는 관찰자의 시선과 행위가 보여주듯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아내의 죽음은 철저하게 사물화되고 소외된 형태로 제시된다.

제시문 (가), (나), (다)는 죽음에 직면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이 처리되는 방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학작품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라), (마), (바)는 죽음에 관한 철학적·사회학적 성찰을 담은 글을 통해 죽음 문화의 역사적 변화와 죽음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시문 (가)는 손택수의 「마지막 목욕-죽음의 형식 1」로, 마치 “귀성길 준비라도 하듯” 마지막 의식(儀式)을 묵묵히 치르는 아버지의 죽음을 맞는 자세를 잘 보여준다. 제시문 (나) 또한 폴스포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그 공포를 극복함으로써 가족들의 상실감까지도 겨안는 주인공의 태도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 제시문 (다)는 김훈의 소설 「화장(火葬)」의 일부분으로, 뇌종양으로 일찍 죽은 아내의 죽음이 병원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제시문 (가), (나)와 달리 제3자, 즉 죽음을 처리하는 병원직원들의 시선과 태도를 통해 죽음의 소외가 야기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시문 (라)는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죽어가는 자의 고통』에서 발췌한 글로, 죽음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쉽고 평화롭게 죽어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마)는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죽음이 점점 낮설게 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탐구한 최준식의 『죽음학개론』에서 뽑았다. (바)는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발췌한 글로, 죽음이 의학적 경험으로 변질된 현대사회에서 통제된 공간에서의 연명 치료가 환자들에게 어떤 후유증을 초래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죽어감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주제는 『생활과 윤리』, 『사회』 교과목에서 주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고 있고, 『국어 I』, 『국어 II』,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한국지리』, 『사회·문화』 교과목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시 답 안

[문항 1]

1-1.

(가)에 따르면 국가권력은 권력의 주체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및 안전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행사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마)에서 주장하듯이 주권자인 시민은 법으로 상징되는 국가권력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기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과 양심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법이나 국가권력에 저항해야 한다.

1-2.

(가)에서는 폭력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나)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빈민과 약자를 착취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다. (다)는 단순히 지배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 폭력에 의해 왜곡된 자기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라)는 강압적이고 부당한 폭력이나 권력에 맞서 신념에 따라 자신의 자치와 행복을 지키는 것에 있다.

[문항 2]

2-1.

제시문 (나)와 (다)는 사건이나 사육이 아닌 개언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공 이슈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통합될 때, 문덕의 정치와 공론장을 통한 공동체 이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침묵의 나선이론처럼 압력과 소외로 인한 침묵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육과 사건의 가짜뉴스나 선동적인 내용으로 인해 판단력을 흐려 공공의 인식이 통합되지 않아 정치적 타협의 환경을 악화시켜 공동체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

2-2.

(가)에서 공공성은 '공동체의 전체 이익'과 '개방적인 관여와 소통'의 의미를 지닌다. (나)에서 문덕의 정치와 개언로는 정치권력의 사유화가 아닌 공동체의 이익과 개방적인 정치적 소통을 중시하는 공공성을 의미한다. (다)에서 공론장은 시민들이 관여와 의사소통을 통해 쟁점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지닌다. (라)에서 징비록은 기록을 통하여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환을 조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시대를 넘어 관여와 소통을 추구한다.

[문항 3]

3-1.

(마)에 따르면 죽음은 죽어가는 고통과 남은 자의 상실감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고 삶의 유한성을 자각할 때 평화로워진다. ㉠은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아버지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죽음이 환기하는 공포와 삶의 미련을 극복하고 산 자의 상실감을 위로하며 고향에 가듯 죽음을 맞고자 한다. ㉡은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이 다가오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가족들의 상실감까지 배려한다. 그 자각이 바로 빛으로 표현되었다.

3-2.

전근대사회에서 죽음이 가족과 마을 단위에서 이뤄졌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고립된 곳에서 삶의 모든 것과 단절된 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가)의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정리한 뒤 공동체 속에서 죽음을 마주한다. (나)의 지켜보는 사람들은 가족이다. 이들은 주인공의 죽음에 아파하는 방식으로 죽음에 참여한다. (다)의 경리직원은 관찰자로 ‘아내’의 삶에는 어떤 관심도 없이 죽음을 사무적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지켜보는 사람은 죽음의 당사자이면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이들의 죽음은 억압되지 않고 가족 전체나 사회 단위의 위로와 안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경리직원이 경험하는 죽음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몰 개성화된 개인의 죽음에 불과하다.

**2018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따라 **베이징**을 직장파와 주거지가 통합된 단위 조직으로 재편성했다. 작은 골목을 뜻하는 후통(胡同)은 쇠락하고, 그 대신 높은 벽 너머로 조성된 중국 특색의 커뮤니티인 ‘다위안(大院)’이 들어섰다. 당, 정부, 군 소속의 각종 지휘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병원, 국유기업 같은 기관들은 자신만의 다위안을 만들었다. 각 다위안 안에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거주했다. …(중략)… 베이징은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다. 권력과 모략이 넘실거리는 권모술수의 요람이다. 한국인들은 ‘중양’ 하면 좌우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중국인들에게 ‘중양’은 지방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중심을 뜻한다. 세계 중앙의 나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권위주의와 경제발전을 결합한 성장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의 본산이 됐다. 베이징 사람만이 중국의 표준어로 인정되는 말을 할 수 있고, 황제의 황궁과 제단을 공원으로 삼을 수 있다. …(중략)… 세계의 중심으로 비약하는 베이징 여행의 묘미는 중국식 권력과 정치의 향내를 얼마나 맡느냐에 달려 있다.

(나) 20세기의 문을 연 건축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으로 인해 다들 잘 아시는 안토니오 가우디(1852-1926)의 작품입니다. 켈른 대성당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20세기의 새로운 문명이 없었다면 세울 수 없었던 건축물입니다. 20세기 초에 착공해 현재까지 짓고 있습니다. …(중략)… 평생을 건축에 헌신한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설 현장에 갔다 오는 길에 전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워낙 검소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본 채 역병자와 함께 두었다가 이틀 후에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뒤에는 바르셀로나 전 시민이 울면서 운구 행렬을 따라가 도시 전체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바르셀로나**라고 하면 우리는 피카소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 가우디의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우디의 삶과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내세운 것 또한 가우디의 작품이었습니다.

(다) 나는 교산 허균(許筠)을 찾아보고 오리라던 강릉행을 서둘러 거두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새벽 일찍이 난설현 허초희(許楚姬)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자욱한 새벽안개 속을 물어 물어 찾아왔습니다. …(중략)… 당신이 힘들게 얻어낸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도 와야 합니다.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유배와 죽음, 그리고 존경했던 스승 이달(李達)의 좌절,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탕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어린 남매의 죽음, 스물일곱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습니다.

(뒷면에 계속)

(라)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지만 인문학의 성찰력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두지 않는다. 인문학은 자신의 입장을 상대화하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볼 수 있는 공감력을 제공한다. 타인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원하지 않지만 서로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통찰하게 한다. 그리하여 인문학은 고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인간 보편의 조건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렇듯 인문학은 인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자신만의 관점과 시선에 갇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 자신, 타인,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줄어들거나 해소된다.

1-1. 제시문 (가)의 베이징, (나)의 바르셀로나, (다)의 지월리, 이 세 장소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가) ~ (다) 가운데 제시문 (라)의 관점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치는 모든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권력 현상이다. 정치는 사회생활 과정에서 자원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계하며 본질적으로 정치는 권력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갈망하였던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이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의 자원은 본질적으로 희소하고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치는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으로, 권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 희소자원을 둘러싼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 에너지가 물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처럼 권력은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인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플라톤은 권력이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는 영향을 받거나 변화될 수도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막스 베버는 권력을 사회적 관계 내에 있는 한 행위자가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가능성이라고 이해했다. 즉 권력이란 타인의 힘을 거슬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능력인 것이다.

(다) 루크스(Lukes S.)는 1974년 그의 저서 *Power: A Radical View*에서 권력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버가 정의한 권력은 1차원적인 권력으로 눈에 보이는 권력이다. 그런데 루크스는 권력의 개념에는 갈등 상황에서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가 원하는 특정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중요한 문제를 왜 다루지 않는가’ 에도 초점을 두고자하는 것이다. 이를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라 하는데, 루크스는 이를 2차원적인 권력이라 하였다. 무의사결정에 따르면 권력은 특정한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정치적 의제에서 배제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루크스의 3차원적 권력은 행위자들 간에 명백한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는 것을 의식의 차원에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이익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 을 심어 줌으로써 누군가의 의도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두웁미(魚頭肉尾)라는 말이 있다. 주인이 하인에게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주면서 한 말인데, 피지배계층인 하인은 주인의 말을 진정으로 믿고 생선 대가리와 고기 꼬리를 맛있게 먹는다면, 주인은 하인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하인에게 3차원적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다음 장에 계속)

(라)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포털 모바일 뉴스는 갈등과 대결 뉴스로 물들고 있다. ‘○○○감시연대’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포털 모바일 메인과 대선 페이지 및 정치·사회섹션에 배열된 뉴스 39,967건을 수집해 이 중 대선 관련 뉴스 1,236건을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 결과 네이버와 다음의 대선 관련 뉴스 중 갈등·대결 뉴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4월 3주차 29.0%에서 4주차 57.8%로 급증했다. 네이버 역시 3주차 27.3%에서 4주차 48.0%로 늘었다. 다음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대선 후반기로 갈수록 갈등·대결 뉴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 뉴스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4월 3주차 동안 정책 정보를 101건(18.4%) 제공했고, 다음은 65건(9.4%)을 제공했다. 다음이 네이버에 비해 정책 정보 제공 뉴스 비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시연대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와 다음 모바일의 대선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글자 수 축약을 넘어서는 우려할 만한 제목 수정 사례를 발견했다. 네이버는 4월 16일 C 후보의 ‘유치원 논란’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스 <유치원 논란에 등 돌린 맘심...A·B 후보 여성 지지율 격차 13%p>에서 ‘지지율 격차 13%p’라는 표현을 ‘C 후보 지지율 하락세로 돌아서’로 수정했다. 같은 날 <A 후보 42.6% C 후보 35.6%...양강 구도 흔들>이라는 뉴스 제목 중 ‘양강 구도 흔들’을 ‘대선 판세 요동’으로 수정했다. 다음에서도 제목 수정을 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16일 <첫날 동선 보면, 선거운동 방향 알 수 있다>를 <A 후보는 통합, C 후보는 국민, B 후보·D 후보는 기적>으로 수정해서 동일한 기사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목을 수정했다.

2-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권력이 제시문 (나)와 (다)에서 어떻게 행사되는지 설명하시오. (20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상을 제시문 (다)의 권력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자±20자) [20점]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성혐오라는 말은 영어 ‘미소지니(misogyny)’의 번역어다. 부정적 의미의 접두사 ‘mis-’와 여성을 뜻하는 ‘gyn’의 합성어다. 여성 외에도 외국인, 동성애자, 나이든 이들, 공산주의자가 혐오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동성애자에 대한 호모포비아가 그것이다. …(중략)… 여성혐오는 분명한 현상이고 정확한 말이다. 문제는 미소지니가 여성혐오로 번역되면서 본뜻이 왜곡되는 한국의 남성 중심 문화다. 여성들은 난관에 부딪혔다. 일단, 사소한 문제로는 혐오(嫌惡)라는 단어의 어감이 너무 강력해서(‘악’이라고도 읽지 않는가) 남성들로 하여금 ‘혐오’에 맞서 방어해야 한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갖게 했다. …(중략)… 특히 ‘여성혐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성혐오라는 대칭적 용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혐 대 남혐’이라는 이분법이 그것이다. 이분법은 A와 not A라는 타자화의 문법으로, 평등으로 여겨지기 쉬운 속임수다. 미소지니라면 다르지 않았을까. 미소지니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기 힘든 단어다.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남성 위주 사회는 너무 오래된 역사라서 여성에 대한 비하와 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를 자각하고 여성이 자신의 이중 노동,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혐오인가?

(나)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직장의 여성 동료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성에게, 심지어는 만나지도 못할 여자들에게 특별히 기대하는 ‘여자다움’이 사실상 모두 ‘여성혐오’에 해당한다. …(중략)… 문학사는 작가들의 이런 태도를 총괄해서 ‘미소지니’라고 불렀으며, 그 말을 한자 문화권에서 ‘여성혐오’라고 옮겨서 잘못될 것은 없다. 그러나 번역 이론가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주제 하나가 이 번역어와도 연결되어 있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제2의 성』을 발표한 것은 1949년이다. 보부아르는 이 책에서 당시 유행하던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이제는 상식적이 되어버린 저 유명한 말을 했다. 여성을 ‘여성답게’ 살도록 유도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자연 질서이기보다 사회의 제도이고 관습이고 교육이다. 그도 역시 문학의 여성 차별적 작품들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가 비판하는 것은 보들레르나 공쿠르 형제처럼 여성을 멸시하거나 기피했던 작가들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비판은 다양하다. …(중략)… 보부아르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높이 평가한 작가는 스탕달이다. 그는 영원한

(뒷면에 계속)

여인상 같은 것을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여자에게 현실을 돌려주었다. 여자가 교육을 덜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여자다워야 한다는 모든 사회적 요청에 덜 노출될 때, 여자는 모든 편견과 모든 부르주아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스탕달은 여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 여겼다. 다른 작가들을 스탕달과 비교할 때 그들이 어떻게 여자들을 삶에서 소외시켜 종속적 존재로 만들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미소지니’라는 말은 저 작가들이 여자를 현실에서 소외시킨 모든 태도와 방법과 의식을 함축하게 된다. 그 의미의 폭이 이렇게 확대된다.

이 낱말은 이제 ‘여성혐오’라는 본디의 뜻보다도, 여자를 남성입문의 발판으로, 구원의 여인상으로, 다른 세계의 안내자로 특화하여 여자를 삶에서 배제시키려는 모든 환상과 편견을 더 많이 의미하게 되지만, 그 말을 어느 시점에 한 번 번역한 말인 ‘여성혐오’는 내내 그 말 그대로 남는다. 모든 낱말은 그 말로 이루어진 사유와 함께, 그 말로 매개되는 삶과 함께 그 의미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지만 그 번역어도 반드시 그 본래의 말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불일치는 단순한 번역 일화로 그치지 않고 자주 사회적 오해로 발전한다. ‘여성혐오’라는 번역어의 운명이 그와 같다.

(다) ‘딸바보’ 유행과 여성혐오의 범람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둘이 근본적으로 여성의 성별화와 대상화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이는 남성연대의 탈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즈윅은 남성의 우정, 멘토십, 자격, 라이벌 구도 등 남성들 사이의 관계를 ‘동성사회적 욕망(homosocial desire)’으로 명명한다. 이때 남성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이 교환되고, 이성애가 정상성으로 명명된다. 때문에 남성연대가 강할수록 동성애혐오와 여성혐오는 강력해진다. 우에노 치즈코는 세즈윅의 분석을 바탕으로 남성연대의 동성 사회성은 여성혐오에 의해 성립되고 동성애혐오에 의해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여성혐오의 궁극적 원인이 남성 사이의 연대를 위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치환하고,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상대를 주체로 인정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서로를 남성으로 인정한 이들의 연대는 남성이 되지 못한 이들과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성립한다.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마녀와 성녀의 이분법과 같은 여성혐오는 동성사회성이 여성의 차별뿐만 아니라 경계선의 관리와 끊임없는 배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 평범한 학교였다. 운동장이 좁아 대각선으로 100미터 달리를 해야 하고, 건물 벽에서 부스러기가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작고 낡은 공립 중학교. 복장 규정이 좀 빡빡했는데, 유난히 여학생들에게 엄격했다. 김은영 씨의 말로는 남녀공학이 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한다. 교복 치마는 무릎을 덮어야 했고, 엉덩이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아야 했다. 얇고 하얀 하복 셔츠는 속이 많이 비쳤는데, 셔츠 안에 목둘레와 진동이 둥그런 전형적인 흰색 러닝셔츠를 반드시 입어야 했다. 끈나시도 안 됐고, 먼티도 안 됐고, 색이 있거나 레이스가 있는 것도 안 됐고, 브래지어만 입는 것은 절대절대 안 됐다. 또 여름에는 살색 스타킹에 흰 양말을 신어야 했고, 겨울에는 학생용 검정 스타킹만 신어야 했다. 비치는 검정 스타킹도 안 됐고, 양말을 덧신는 것도 안 됐다. 운동화는 신을 수 없고 구두만 허용됐다. 한겨울에 양말도 없이 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다니려면 발이 너무 시려워 딱 울고 싶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바지폭을 너무 넓거나 좁게 수선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이외에는 대체로 눈감아 주었다. 하복 안에 러닝셔츠도 입고, 흰 먼티도 입고, 종종 회색이나 검정색 티를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더우면 단추도 몇 개 열었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티셔츠만 입고 다니기도 했다. 구두도, 운동화도, 축구화도, 조깅화도 신을 수 있었다.

3-1. 제시문 (가)와 (나)에서 미소지니(misogyny)를 ‘여성혐오’로 번역할 때 드러나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가), (나), (다)에서 핵심어를 찾아 제시문 (라)에서 복장 규정이 강제되는 원인을 서술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 출제 영역 및 모범답안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의학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항 총괄 】

문항번호	출제범위(고교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배점 (총 100점)
1	1-1	장소, 공감, 인문학	15
	1-2		15
2	2-1	정치, 권력	15
	2-2		20
3	3-1	미소지니, 여성혐오, 남성중심, 성별화, 대상화	15
	3-2		20

□ 문항 1

문항 1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문제 1을 출제한 의도는 장소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인문적 공감을 바탕으로 인문, 사회, 건축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고전을 읽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며,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비교 평가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임.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특정한 장소가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작품 속 작자의 태도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한편, 핵심 인물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비교하며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주체적 안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의 관점 아래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

문항 1 - 출제 근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조성민	비상교육	2017	240-241	문제1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천재교육	2017	206-207	문제1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주)미래엔	2017	256-258	문제1	○
윤리와 사상	박병기	(주)지학사	2017	212-216	문제1	○
윤리와 사상	김선옥	(주)금성 출판사	2017	186-188	문제1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주)미래엔	2017	199-201	문제1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천재교육	2017	178-180	문제1	○
윤리와 사상	남궁달화	(주)교학사	2017	151-158	문제1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찰명-중국도시이야기	신경진	문학동네	2013	66~69	제시문 (가)	×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	김석철	돌베개	2011	164~167	제시문 (나)	○
나무야 나무야	신영복	돌베개	1996	30~33	제시문 (다)	○
<인문학이 지친 내 마음을 보살필 수 있을까>(『미래인문학트렌드』)	박은미	아날로그	2016	64	제시문 (라)	×

문항 1 - 채점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제시문 (가) (나) (다)의 밑줄 친 장소의 개념 비교】 (15점)</p> <p>(가) : 권력, 중심, 권모술수 등의 핵심어를 제시하는지 여부.</p> <p>(나) : 건축가 가우디, 현신, 삶, 건축 등의 핵심어를 제시하는지 여부.</p>	15

	(다) : 허난설헌, 모순, 아픔, 다가감(공감) 등의 핵심어를 제시하는지 여부. - 문장, 어휘 구사가 제대로인 지 여부. - 분량을 준수했는지 여부.	
1-2	【제시문 (라)의 논지와 가까운 내용을 선택하여 서술】 (15점) (라)의 논지를 성찰, 상대화, 공감, 세계 확장(폭 넓히기) 등의 핵심어를 활용하여 정리하고 있는지 여부. (가)(나)(다)의 논지를 파악하되, (라)와 ‘공감’의 문제에서 일치하는 제시문을 찾았는지 여부. - 문장, 어휘 구사가 제대로인 지 여부. - 분량을 준수했는지 여부.	15

문항 1 - 예시답안

<1-1>

베이징은 권력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곳은 권력과 모략이 난무하는 장소로, 중국식 권력의 실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바르셀로나는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이다. 그를 추억하는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한 사람의 검소한 삶과 직업에 대한 헌신, 열정을 읽을 수 있다. 지월리는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던 허난설헌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그녀의 삶을 반추해보게 함으로써 사회의 모순을 읽어내고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공간이다.

<1-2>

(라)글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자신을 상대화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고통과 상처의 문제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해주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찰과 공감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다)이다. (다)에서는 한 여인의 애환이 녹아있는 상징적인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방법은 곧 타인의 아픔,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성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항 2

문항 2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문항 2는 정치의 개념과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대한 제시문들을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 등에 관한 생각을 적용하여 종합, 정리하여 서술해보도록 하는데 출제 의도가 있음.

첫 번째 문제는 정치가 희소 자원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이,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방식임을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출제 의도가 있음.

두 번째 문제는 3가지 차원의 권력 행사 방식이 제시문 (라)의 사례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현실에서 도출하여 판단, 추론,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음.

문항 2 - 출제근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법과 정치	손병로 외	금성출판사	2016	13-14,	제시문 (가)(나) (다)(라)	○
고등학교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6	13-17	제시문 (가)(나) (다)(라)	○
고등학교 법과 정치	박영경 외	비상교육	2015	13-15	제시문 (가)(나) (다)(라)	○
생활과 윤리	조성민	비상교육	2017	172-173	문제2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천재교육	2017	152-153	문제2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주)미래엔	2017	184-185	문제2	○
윤리와 사상	박병기	(주)지학사	2017	269-272	문제2	○
윤리와 사상	김선옥	(주)금성 출판사	2017	235-240	문제2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주)미래엔	2017	246-248	문제2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천재교육	2017	218-220	문제2	○
윤리와 사상	남궁달화	(주)교학사	2017	194-196	문제2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치학으로의 산책	이병화 외	한울	2005	92~97	제시문(가)-(다)	○
2017 대선미디어 감시연대	http://www.ccdm.or.kr/xe/vote				제시문(라)	○

문항 2 - 채점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을 파악하고 (가)에서의 정치를 권력 개념과 함께 정의하고 (나)와 (다)에 나타난 권력의 세 유형을 핵심 내용 중심으로 종합,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정치를 권력, 희소자원, 투쟁과 같은 핵심어를 포함하여 정의하였는지 여부. ·제시문 (나)의 권력 개념을 제시문 (다)의 1차원적 권력과 비교하여 서술하였는지 여부. ·제시문 (다)의 나머지 권력 유형인 2차원적 권력과 3차원적 권력을 정확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15
2-2	<p>【제시문 (다)의 권력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현상들을 각각의 권력 유형에 비추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선거를 1차원적 권력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갈등 및 대결 뉴스가 많아지고 정책 뉴스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을 루크스의 2차원적 권력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동일 기사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목을 수정하는 행위가 잘못된 믿음을 심고 나아가 수용자의 투표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3차원적 권력 행사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20

문항 2 - 예시답안

<2-1>

제시문 (가)는 정치를 권력이란 수단을 통한 희소자원을 둘러싼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세 유형의 권력 중 타인의 힘을 거슬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능력은 눈에 보이는 1차원적 권력에 해당한다. 특정한 문제를 정치적 의제에서 배제시키는 2차원적 권력과 잘못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누군가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3차원적 권력은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행사된다.

<2-2>

제시문 (라)에서는 현실에서 행사되는 세 가지 권력의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는 눈에 보이는 권력인 1차원적 권력을 얻기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포털 뉴스에서 정책 뉴스의 비중이 낮고 갈등과 대결의 뉴스 비중이 높은 것은 제시문(다)의 루크스의 무의사결정에 해당하는 특정 문제를 정치적 의제에서 배제시키는 2차원적 권력이 행사된 것이다. 두 포털 모바일 뉴스에서 동일 기사인지 모를 정도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 독자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나아가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차원적 권력이 행사된 것이다.

□ 문항 3

문항 3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문항 3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혐오와 폭력이 만연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젠더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했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

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는 성폭력 표현과 여성혐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젠더 인식을 성찰하는 일은 필수적임. 제시문 (가)와 (나)는 미소지니(misogyny)가 여성혐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다)는 여성혐오의 근본적인 원인을, (라)는 학교제도에 서 지속적으로 강제된 복장 규정을 통해 남녀 차별의 문제를 담고 있음. 교육과정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 않지만, 성차별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한다면,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첫 번째 문제는 미소지니(misogyny)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 번역어 ‘여성차별’이 갖는 문제점을 밝혀내고, 두 번째 문제는 복장 규정을 통해 여성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음.

문항 3 - 출제 근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6	153	제시문 (나),(다),(라)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6	167	제시문 (나),(다),(라)	○
사회·문화	강운선 외	미래엔	2016	147-149	제시문 (나),(다),(라)	○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	2016	154-156	제시문 (나),(다),(라)	○
사회·문화	이진석 외	지학사	2016	150-153	제시문 (나),(다),(라)	○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6	57	제시문 (나),(다),(라)	○
사회	설동훈 외	미래엔	2016	50-51	제시문 (나),(다),(라)	○
생활과 윤리	조성민	비상교육	2017	80-81	문제3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천재교육	2017	66-67	문제3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주)미래엔	2017	71-72	문제3	○
윤리와 사상	박병기	(주)지학사	2017	223-226	문제3	○
윤리와 사상	김선욱	(주)금성 출판사	2017	192-193	문제3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주)미래엔	2017	207-208	문제3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천재교육	2017	184-185	문제3	○
윤리와 사상	남궁달화	(주)교학사	2017	157-160	문제3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강자의 혐오, 약자의 분노(『낮선 시선』)	정희진	교양인	2017	81~83	제시문(가)	×
‘여성혐오’라는 말의 번역론(『한겨레』)	황현산	한겨레	2016. 9. 8.		제시문(나)	○
#지금_가장_정치적인_것은_여성 적인_것이다(『#혐오_주의』)	허윤 (박권일 외)	알마출판 사	2016	103~10 4	제시문(다)	×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2017	54~55	제시문(라)	×

문항 3 - 채점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p>【제시문 (가) (나)에서 미소지니를 여성혐오로 번역할 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를 평가함】</p> <p>-제시문 (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제시문 (나)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어휘 구사 능력 및 분량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p>	15
3-2	<p>【제시문 (가), (나), (다)에서 핵심어를 찾아 제시문 (라)에서 복장 규정이 강제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함】</p> <p>-제시문 (가)(나)(다)의 핵심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 -제시문 (가)(나)(다)에서 원인을 찾아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시문 (라)의 복장규정에 대한 논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여부. -어휘 구사 능력 및 분량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p>	20

문항 3 - 예시답안

<3-1>

제시문 (가)에서 ‘여성혐오’라는 번역어는 강력한 어감 탓에 남성들에게 혐오에 맞서 방어해야 한다는 적반하장 태도를 갖게 하며, 무엇보다도 여성혐오에 대해 남성혐오라는 대칭적 용어를 탄생시키는 발단이 되었다. (나)에서 ‘미소지니’는 여성을 현실에서 소외시킨 모든 태도와 방법과 의식을 함축하는 확장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성혐오’로 번역할 때, 이 말은 말 그대로 여성에 대한 혐오라는 제한적 의미를 지니며 원어와 번역어의 불일치로 자주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문제를 지닌다.

<3-2>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과 다르게 복장 규정이 강제되는 이유로 제시문 (가)는 ‘남성 중심 문화’와 ‘여성에 대한 비하와 차별’을, 제시문 (나)는 ‘여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만드는 사회의 제도,

관습, 교육'을, 제시문 (다)는 '여성의 성별화와 대상화' 그리고 '남성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가), (나), (다)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학생들과 다르게 여학생들에게만 복장 규정을 강제하는 원인은 우리사회가 강한 남성 중심 사회이자 남성연대 사회라는 점, 그 결과 여성이 성별화 되고 대상화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 관습, 교육이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 오해를 통해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2017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창 시절 공부도 잘하고 / 특별 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도 무난히 / 합격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감자국을 끓이고 있을까
사골을 넣고 세 시간 동안 가스불 옆에서 / 더운 김을 쏘이며 감자국을 끓여
퇴근한 남편이 그 감자국을 15분 동안 맛있게
먹어 치우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입사 원서를 들고 /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 …(중략)…
다행히 취직해 큰 사무실 한 칸에 / 의자를 두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가끔 찻잔을 나르겠지 …(중략)…

저 높은 빌딩의 숲, 국회의원도 장관도 의사도 /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밀쳐져서 / 아직도 생것으로 굴러다닐까
크고 넓은 세상에 끼지 못하고 /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을까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 여자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적 존재 사이에서 충돌하곤 한다.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된다. 마치 살아 있는 인형처럼 다뤄지고 자유를 금지 당한다.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왜냐하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며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여자아이 역시 활력과 탐구심, 진취적인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와 똑같이 다루는 일은 풍습이 허용하지 않는다. 여성이 뒤집어쓴 불운 가운데 하나는 유년기의 여자아이는 여자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남자아이도 처음 얼마 동안은 어머니의 수중에서 키워진다. 그러나 어머니는 남자아이의 남성다움을 존중하며, 남자아이는 곧 그녀의 손에서 벗어난다. 반면 어머니는 딸을 여성의 세계에 완전히 입문시키려고 한다.

(뒷면에 계속)

(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유리천장은 유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천장이 존재하여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막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유리벽은 같은 직급 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여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동일 직급 내에도 승진 등에 유리한 핵심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이 이러한 핵심 업무로부터 수평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주로 가리킨다. 유리벽이라는 표현은 동일 직급 내에서의 남녀 차별뿐 아니라 남녀 간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 등을 이해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 및 양육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를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편견에 더하여, 법률에 규정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직장 내의 분위기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양육 환경 등은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라) <표 1> 성별·연령별 경제 활동 참가율

구분	경제 활동 참가율(%)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남자	63.8	93.8	94.6	89.6
여자	63.5	59.0	66.5	62.5

<표 2>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형태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월평균 임금(만원)	남자	177.3	276.0	329.2	309.7
	여자	156.7	200.9	178.5	152.8
비정규직 비율(%)	남자	31.1	17.6	19.1	27.4
	여자	32.7	28.6	37.3	44.2

1-1. 제시문 (가)에 나타난 화자의 문제 인식을 제시문 (나)와 (다)의 핵심어를 활용하여 설명하십시오.
(200자±20자) [15점]

1-2.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특징들을 설명하십시오.
(300자±20자) [15점]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공동체란 개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하는 집단을 뜻한다. 공동체주의에서 볼 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컨대 법률은 설득과 강제력을 통해 국민을 하나의 단위에 적합하게 만듦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다. 법률은 국민 모두로 하여금 그들 각々が 공동체에 공헌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갖게 한다. 공동체 전체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인과 개별 집단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유지되고 존속되도록 기여한다.

(다음 장에 계속)

(나) 민주주의는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비판적 논의에 귀를 기울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용의가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가 서로 충돌할 때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이 논의를 통해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타협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래서 협상과 타협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독선과 불통을 경험하게 된다.

(다) 민주주의는 처음 출현했을 때 인간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을 추방함으로써 모든 일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정부의 탄생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들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삼고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웅변가들로부터 다양한 관점의 주장들을 경청할 수 있었다. 물론 반(反)민주론자였던 플라톤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무대 정치라고 비판하였다. 절대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민주 정부가 궁극적으로 권력의 투명성, 즉 가면 없는 권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절대국가에서는 권력의 비밀이나 권위의 은밀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고, 주요한 정치적 결정이 은밀한 회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비밀을 강요받은 행위는 확실히 부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강한 반발에 직면함으로써 행위 그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라) 초나라의 한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웃집 양을 훔치자 아버지를 관아에 고발하였다. 재상은 소년의 행동이 군주에게는 정직한 것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라 하여 소년을 벌하였다. 공자는 아버지 봉양을 위해 전쟁에서 세 번이나 도망친 노나라 사람을 효자라 하여 높은 자리에 천거하였다. 이에 대해 한비자는 재상이 소년을 벌하여 백성들은 간악을 고발하지 않게 되었고, 공자가 상을 주어 노나라 사람들은 쉽게 행복하고 쉽게 달아났다고 평하였다. 한비자는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한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상과 벌로써만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의 통치 근간은 개인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예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과 처벌에 두는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하였다.

(마) 국가를 구현하고 있는 입헌적 장치들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수파의 독재를 두려워한 밀은 다수의 독재로부터 사회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대의정부론』에서 가장 좋은 정부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밀은 다수의 독재를 방지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선과 참정권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파의 견해가 대표되어 완강한 소수파가 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다면 다수파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타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바) 올바른 집터를 선택하는 것은 꿀벌 집단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꿀을 저장하지 못할 정도로 비좁거나 안전하지 못한 곳에 벌집이 자리하면 꿀벌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꿀벌 몇몇이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이는 꿀벌 수백 마리가 집터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꿀벌 집단은 여왕벌, 수벌, 그리고 일벌 약 1만 마리로 구성된다. 집터를 찾는 경찰 임무는 이전에 주변에서 먹이를 찾아다닌 경험이 많은 일벌 약 3백 ~ 5백 마리가 맡는다. 꿀벌 경찰대는 많게는 3십여 개에 이르는 집터들 중에서 최적의 집터를 찾고 집터의 방향을 가리키는 춤을 춘다. 꿀벌은 벌집 표면을 따라 8자로 걷는데 몸을 좌우로 흔들고 엉덩이춤을 추면서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많은 경찰 꿀벌들이 동일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춤을 추게 된다.

(뒷면에 계속)

이 과정에서 초기에 특정 집터에 지지를 보냈던 경찰 꿀벌들은 더 나은 대안이 나오면 추가 경찰 비행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 후에 더 나은 집터로 자신들의 지지를 변경한다. 8자춤을 추며 집터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찰 꿀벌들은 결국 공동 결정으로 최적의 집터를 선택하는 것이다. 꿀벌 집단의 모습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높은 집단 지성을 이루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1.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하여 제시문 (바)가 인간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시오. (20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마)의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문 (나), (다), (라), (마)에서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50자±20자) [20점]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북새통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다
수재에 수재(獸災)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빠용**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빠빠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빨데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티브이 우리 안에 간혀 있는,
내가 드가?

(나) ㉡**등지**는 알을 품어 새끼를 깨우고, 수컷과 암컷이 그 새끼를 먹이고 공부도 시켜, 어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키우는 가정이다. 모든 등지는 자연 속에서 하나의 종(種)으로서의 새가 자신의 거처로 지은 구조물이며, 그 나름대로의 문화와 문명의 측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유지함으로써 생태학적 가치가 보존된 건축물이다. 모든 등지, 아니 모든 동물들의 거처는 언제 보아도 시적이며 아름답고 따뜻해 보인다. 이는 그 건축의 구조가 적어도 생태학적으로 그 주변의 모든 것들과 완벽에 가까운 조화를 유지하면서, 또한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마음의 편함과 따뜻함, 자유로움과 행복함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 계속)

(다) 마삿등 사람들이 에씨 만들어 놓은 다섯 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썰이에 무참히 헐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이 물을 문 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던져졌다.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 하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썰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그것을 계기로 부락민들도 와 몰려갔다. 집달리 일행과의 사이에 벌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결국 동팔이와 인부 한 사람이 이쪽 청년들의 펀치에 코피가 터졌다.

경찰이 발포를 — 다행히 공포였지만 — 해서 겨우 균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 집행도 일시 중단되었다. …(중략)…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은 아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추모할 때는 늘 이러한 훈계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강직한 성격도 아마 이런 데서 유래됐는지 모른다.

*집달리: 집행관의 옛말. 법률이나 명령, 재판, 처분 등의 내용을 실제로 행하는 일을 맡은 관리.

(라) 주나라 무왕이 동쪽으로 은나라를 정벌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시호를 문왕으로 추존한 뒤 그 나무 위패를 수레에 싣고 있었다. 이에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간언하기를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다니 이를 효(孝)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하된 자로서 군주를 시해하려 하다니 이를 인(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무왕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그들의 목을 치려고 하였다. 당시 군사(軍師)로 있던 강태공이 “이들은 의인이다.” 라며 이들을 보호해 돌려보냈다. 이후 무왕이 은나라를 평정하자 천하의 제후들은 주나라를 섬겼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 주나라의 녹봉(祿俸)을 받으려 하지 않고,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 먹으며 배를 채웠다.

(마)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과 굶주림, 그 속에서도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앞서 간다는 선진국은 한층 더하다. 그들은 침략과 약탈과 파괴와 살인을 한 대가로 얻은 풍요를 누리며, 천사처럼 보이는 악마일 따름이다.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선진과 후진이 없어야 한다. 예배당 문간방에서 십육 년 살다가 지금은 이곳 산 밑에 그 문간방과 비슷한 흙담집에서 산다.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그것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3-1. 제시문 (가)의 ㉠과 제시문 (나)의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단, 제시문 (가)와 (나)의 단어를 활용하시오. (200자±20) [10점]

3-2. 제시문 (마)의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빠빠용**, **드가**, (다)의 **황거칠**, (라)의 **백이와 숙제**를 평가하되 <보기>의 개념을 활용하시오. (350자±20) [25점]

<보기>

소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을 향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 자유는 사회의 문제에 저항하며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려는 것을 의미한다.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예시답안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의학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 제 의 도

[문항 1]

문제 1은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 가운데 성 불평등을 읽어 낼 수 있는 제시문들을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성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 구체적인 사례 등에 관한 생각을 종합, 정리하여 서술해보도록 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음.

문제 1-1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시, 저서, 교과서 내용을 읽은 후 핵심 정보를 선별하여 시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회 불평등의 실태를 잘 정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음.

문제 1-2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다룬 글과 표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하고, 두 제시문을 종합하여 읽을 때 도출할 수 있는 현실과 특징을 판단, 추론,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음.

[문항 2]

문제 2-1의 출제 의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인간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모두 대변되는 공동체의 실현과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임. 고전, 인문, 사회 분야의 다양한 글을 읽고 골별 사회의 사례를 인간 사회에 확장·적용해 논술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임.

문제 2-2에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6개의 제시문 각각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나 목적 등을 추론하여 읽고, 각 제시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찾아 비교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임.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을 주어진 제시문에서 모두 찾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핵심 정보를 선별하고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임.

[문항 3]

문제 3을 출제한 의도는 공간과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 아래 문학이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고전을 읽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며,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비교 평가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임.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지문 속 내용의 정확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핵심 논지를 포착한 뒤, 문학 작품 속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핵심 인물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비교하며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주체적 안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개인의 선택권 중 자유의 개념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임.

문항해설

[문항 1]

문제 1은 “성차별과 양성평등” 주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시문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가운데 성 불평등의 양상을 문학적, 비문학적 글을 통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이해·정리하는 문제와 그것을 바탕으로 통계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여 서술하는 문제 두 개로 구성하였음.

제시문 (가)는 문정희 시인의 시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임. 다양한 사회 불평등 가운데 성 불평등의 양상과 의미를 운문 형식으로 드러낸 글임.

제시문 (나)는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시몬 드 보부아르의 책 『제 2의 성』 가운데 ‘제 1장 유년기’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임. 여성의 능력이나 지성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남성 위주로 생각해 왔던 여성에 대한 관점을 반박하고, 여성의 열등성은 남성들이 구축한 사회적 이미지일 뿐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임.

제시문 (다)는 평등권, 성 불평등, 사회 정의 등에 관한 교과서 지문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글임.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있어 장애가 되는 승진의 격차 문제와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의무로 인식하는 성별 분업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제시문 (라)는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형태에 관한 통계를 표로 제시한 것임. 연령대별로 볼 때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월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모두 낮고, 여성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임.

본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평등권, 성 불평등, 사회적 약자, 사회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들임. <고전>, <문학>, <사회>, <사회·문화>, <법과 정치> 등의 교과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문항 2]

문제 2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현대 인간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모두 대변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관점의 제시문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였음. 각 제시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하며,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 재구성하도록 하였음. 제시문 (가)는 공동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글이고, 제시문 (나)는 민주주의가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글임. 제시문 (다)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추방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문 (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과 처벌, 즉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제시문 (마)에서는 선거제도의 개선과 참정권 확대를 통해 소수파의 의견이 대표되는 방식으로의 민주주의 실현을 각각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글임. 마지막으로 제시문 (바)는 꿀벌 집단이 최적의 벌집을 공동의 결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인간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찰해보기 위한 글임.

[문항 3]

문제 3은 ‘공간과 삶의 방식’을 묻고 있음. 모두 2개의 작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음. 첫 번째 문제는 ‘동물원 우리’와 ‘둥지’라는 공간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로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 이해를 묻고 있음. 두 번째 문제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평가에 관한 문제로서, 제시문 (마)를 통하여 (가) (다) (라)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삶을 평가하고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제시문 (가)는 유하의 <빠빠용-영화 사회학>이란 시로 티브이와 같은 매체에 갇혀 사는 현대인의 우울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자화상 같은 작품임. 자유를 향해 몸을 던지는 빠빠용과 주저앉고 마는 드가를 대비하여 시적 화자인 ‘나’의 현재 모습을 반추하고 있음. 고등학교 학생들의 EBS 교재(수능완성 국어영역)에 수록된 글임.

제시문 (나)는 박이문의 『둥지의 철학』에 나오는 철학적 담론으로, 인간의 생태주의적 사고를 계발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환기하고 있음. 박이문의 다른 글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음. ‘둥지’가 갖는 상징성은 제시문 (가)의 유하의 시에 보이는 ‘동물원 우리’와 비교. 대조되면서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음.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의 성취 기준 ‘글쓰이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내용 등을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에 연관됨.

제시문 (다)는 김정한의 소설 <산거족>으로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에 의해 헐리는 것을 산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여 자신의 삶터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하는 자료임. 황거철은 주인공으로 싸움을 주도하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음.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EBS 교재(수능완성 국어영역)에 이 소설의 다른 부분이 수록되어 있음.

제시문 (라)는 사마천이 지은 <백이열전>으로 그의 인간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임.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제후국인 고죽국의 왕자들로서 왕위를 피하여 주나라로 피해왔다가, 천자의 나라인 은나라를 공격하려는 주나라 무왕을 만류했음.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자 수양산으로 들어가 굶주려 죽은 인물임. 이들은 유가의 효나 인과 같은 도덕이 사라져 가는 세상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거부하는 지사적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고등학교 고전교과서에 수록된 글임.

제시문 (마)는 권정생의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임.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 것을 환기하는 저자의 시각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임.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글임.

끝으로 <보기>에서 자유의 두 가지 경우를 개념 제시하였음. 이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참조하여 문제에 맞게 개념을 재구성하였음.

예 시 답 안

[문항 1]

1-1.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 관념과 차별적인 사회화는 여성을 자주적 존재가 아닌 타자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한다. 차별적 사회화는 여성에게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강요하여 능력이 뛰어난 여성조차도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또한 성불평등은 직장생활에서도 '유리벽'과 '유리천장'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의 취업과 승진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1-2.

<표1>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으며 특히 30대 이후에 그 격차가 크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사회적 지원이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표2>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수준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다. 이러한 격차는 30대 이후 더욱 크다. 이는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인해 여성이 고위직 승진과 핵심 업무 배정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40대 이후에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양육 등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 때문에 나타난다.

[문항 2]

2-1.

일벌들로 구성된 꿀벌정찰대는 새 집터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 집단지성을 실현하여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가)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찰 꿀벌들이 8자춤으로 위치 정보 전달과 의견 교환을 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워 최적의 집터를 공동 결정하는데, 이는 (나)의 협상과 타협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간사회에 시사하고 있다.

2-2.

(마)는 다수파의 권력 남용에 따른 민주주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다)는 협상과 타협, (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추방, (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과 처벌, (바)는 다수파의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선거 제도와 참정권 확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협상과 타협이 없으면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독선과 불통을 경험하게 되며, 보이지 않는 권력을 추방하지 못하면 정치적 결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부당하게 된다. 공평한 법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외가 인정되어 국가의 통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며, 선거제도와 참정권 확대를 통해 다수파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항 3]

3-1.

㉠과 ㉡은 둘 다 공간이자 거처로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다. 하지만 ㉠은 우울하고 서늘하며 자유가 구속된 공간이다. 즉 부정적 현실을 표상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여야만 하는 숨막히는, 반문명적 공간이다. 반면 ㉡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가정이며, 주위 환경이나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 공간이다. 즉 자유롭고 따뜻하며 행복한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3-2.

(마)는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민할 때 일어난다. 빠삐용은 자신을 억압하는 곳으로부터 탈출한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자유를 위할 뿐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다. 반면 드가는 자신을 구속하는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안주한다. 한편 황거칠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샷등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백이와 숙제는 유교적 도를 행하지 않는 주나라를 떠나 수양산으로 갔다. 개인적으로는 억압에서 벗어났지만, 사회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래서 빠삐용, 백이와 숙제는 소극적 자유를 향하고, 황거칠은 적극적 자유를 향하며, 드가는 어떤 자유도 추구하지 않는다.

**2017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항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실’과 ‘해석’의 대립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역사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은 바로 자기 자신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이란 아주 어린 유아기나 극단의 노년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자기 환경 속에 무조건 예속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전적으로 환경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거나, 환경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배자일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역사가와 그가 다루는 사실과의 관계와 같다. 역사가는 사실에 대해서 천한 노예도 아니고, 억압적인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와 그가 다루는 사실은 평등한 관계이다. 저술 중에 있는 역사가가 잠깐 일을 멈추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역사가란 자기의 해석에 맞추어서 사실을 형성하고, 자기가 다루고 있는 사실에 맞추어서 해석을 형성하는 끊임없는 과정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양자 중의 어느 한쪽만을 우위에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가는 임시로 선택한 사실과, 그러한 사실 선택을 이끌어 준 임시적인 해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해석이나 사실의 선택과 정리는 다 같이 쌍방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미묘한 변화를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그가 다루고 있는 사실은 과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호 작용에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상호 관계가 내포되는 것이다.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과거의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를 박지 못한 무능한 존재이다. 역사가의 해석이 없는 과거의 사실이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이리하여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나의 제일답(第一答)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역사란 역사가와 과거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나)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心的)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요,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이렇게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쉽게 말하자면,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를 ‘아’라 하고, 그 밖의 것은 ‘비아’라 한다.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英: 영국), 로(露: 러시아), 법(法: 프랑스), 미(美: 미국) 등을 ‘비아’라고 하며, 무산(無産) 계급은 무산 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아’라고 하지마는, 지주나 자본가는 저마다 제 불이를 ‘아’라 하고, 무산 계급을 ‘비아’라 한다. 이뿐 아니라, 학문에나 기술에나 직업에나 의견에나, 그 밖의 무엇이든지 반드시 본위(本位)인 ‘아’가 있으면 따라서 ‘아’와 대치되는 ‘비아’가 있고, ‘아’ 가운데 ‘아’와 ‘비아’가 있으면 ‘비아’ 가운데에도 ‘아’와 ‘비아’가 있다.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쉴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뒷면에 계속)

‘아’ 나 ‘아’ 와 상대되는 ‘비아’ 의 ‘아’ 도 역사적 ‘아’ 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상속성(相續性)이니, 시간에 있어서 생명의 끊어지지 아니함이고, 둘째, 보편성이니, 공간에 있어서 영향의 파급이다. 그러므로 인류 아닌 다른 생물의 ‘아’ 와 ‘비아’ 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 의 의식이 너무 미약하거나 혹은 전연 없어서 상속적, 보편적이 되지 못하므로 역사의 조작(造作)은 인류에게만 주어졌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인 ‘아’ 와 ‘비아’ 의 투쟁도 없지 않지마는 그 ‘아’ 의 범위가 너무도 약소하여 역시 상속적, 보편적이지 못하므로 역사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인류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이라야 역사가 되므로, 한 사건에 있는 상속과 보편이라는 속성의 강약으로 역사의 재료가 될 만한 분량의 크고 작음을 정하게 된다.

이러하면 김석문은 300년 전에 지원설(地圓說)*을 창도(唱導)한 조선의 학자이지마는 이를 후루노**의 지원설과 똑같은 역사적 가치를 쳐주지 못하는 것은, 저편은 그 학설로 인하여 신대륙을 발견한다 하였지마는 이편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여립은 400년 전에 군신강상설(君臣綱常說)***을 타파하려 한 동양의 위인이지만 그를 민약론(民約論)****을 말한 루소와 동등한 역사적 인물이라 할 수 없음은, 당시에 다소간 정여립의 설에 영향을 입은 양반살육계(兩班殺戮契)***** 등의 번갯불이 한 번 번쩍하는 것 같은 행동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루소 이후의 파란만장한 프랑스 혁명에는 비길 수 없기 때문이다.

*지원설(地圓說): 조선후기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학설.

**후루노: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 철학자.

***군신강상설(君臣綱常說): 임금과 신하 사이에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민약론(民約論): 루소가 주장한 현대 민주주의의 선구적 이론.

*****양반살육계(兩班殺戮契): 비밀 무장 결사단체.

1-1. 제시문 (가)와 (나)에서 역사를 정의(定義)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문 (가)와 (나)에서 각각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2점]

1-2. 제시문 (나)에서 김석문과 정여립의 주장이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이유를 제시문 (가)와 (나)에서 근거를 찾아 서술하시오. (300자±20자) [18점]

【문항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네 집에 가 보기가 망설여졌다. 학교는 이미 겨울 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네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중략……) 고향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내 살아온 지난날들을 더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책에다 뭔가를 끼적이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아니었으나 글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쓰자며 호기를 부리던 일이 떠오른 것이다. 어쩌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을 쓰다듬는 글과 내 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셔 주기 위해 글을 끼적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 여러 사람이 맨살 부대끼며 오래 살다보면 어느덧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바라보면 거울을 대한 듯 비슷비슷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 여럿 중의 평범한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기성품처럼 개성이 없고 값어치가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의 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사고입니다.

(다음 장에 계속)

(……중략……) 그러면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닮지 않은 개인이나 탁월한 천재가 과연 있는가. 물론 없습니
다. 있다면 그것은 외형만 그럴 뿐입니다. ㉔다른 사람과 아무런 내왕이 없는 ‘순수한 개인’이란 무인도
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소설 속에나 있는 것이며, 천재란 그것이 어느 개인이나 순간의 독창이 아니라 오
랜 중지(衆智)의 집성이며 협동의 결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것은 아무리 담창
을 높이더라도 결국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어 함께 햇빛을 나누며,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대체로 사람들의 사교는 값이 너무 싸다.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
적 여유가 없다. ㉕우리는 하루 세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서로
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놓아야 했다. 우리는 우체국에서 만나는가 하면 친목회
에서 만나며 매일 밤 난롯가에서 또 만난다. 우리는 너무 얽혀 살고 있어서 서로의 길을 막기도 하고 서
로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 ㉖조금 더 간격을 두
고 만나더라도 중요하거나 흥금을 터놓는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터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꿈속
에서까지 혼자 있는 일이란 없다. 내가 사는 이곳처럼 1제곱마일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좋지 않겠
는가. 사람의 가치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사람의 피부를 만져본다고 그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니다.

(라) 아프다거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한 기간 단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점심·저녁
식사가 하루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㉗‘끼니’를 잇는 일은 생명을 위해서
도 그렇지만, 잠자는 시간 외에 깨어나 활동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적절히 분할해주고 매 단락을 맺어
준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으면 하루가 엄청나게 길고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그 중
에서도 중요한 것은 만남과 헤어짐,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목소리와 얼굴의 인상 등 사람끼리의 관계
맺음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천하가 적막하고 고요할 뿐이다. 남과의 소통은 당연히 끊기고 자기 자신마
저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㉘먹지 않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건강요법을 하는 이들이 단식
을 일컬어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것은 육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
보는 태도에도 변화를 주는 행위이다.

2-1. 제시문 (다)의 ㉕, (라)의 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교하시오. (200자±20자) [12점]

2-2.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밑줄 친 ㉔, ㉕, ㉖, ㉗에 상응하는 대립항을 각각의 제시문에서 찾
고,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300자±20자) [18점]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웰은 우리가 외부의 압제에 지배당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헉슬리의 미래상에선, 인간에게서 자율성과
분별력, 그리고 역사를 박탈하기 위한 빅 브라더는 필요 없다.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고, 자신들의 사고력을
무력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떠받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웰은 누군가 서적을 금지시킬까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굳이 서적을 금지할 만한 이유가 없어질까 두려워
했다. 오웰은 정보통제 상황을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지나친 정보과잉으로 인해 우리가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할까봐 두려워했다. 오웰은 진실이 은폐될 것을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비현실적 상황에 진실이
압도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오웰은 통제로 인해 문화가 감옥이 될까 두려워했다. 반면 헉슬리는 우리들이 즉
각영화(Feelies)*나 원심력 범블퍼피(Centrifugal Bumble Puppy)**와 같은 것들에 몰두하느라 문화가 하찮은 수준으
로 전락할까 두려워했다.

(뒷면에 계속)

혁슬리가 『다시 가본 멋진 신세계』(1958)에서 언급했듯이, 자유주의 시민들과 합리주의자들은 전제정치에 대항하는 경계태세는 늘 빈틈없이 살피면서도 “인간들의 거의 무한정한 오락추구 욕구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 『1984년』(1948)에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해 통제한다. 『멋진 신세계』(1932)에서는 즐길거리를 쏟아부어 사람들을 통제한다. 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혁슬리는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했다. (……중략……)

조지 오웰이 명석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선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을 터이다. 여기엔 오웰적 관점이라곤 전혀 없다. 대통령이 언론을 수하에 놓고 부리지도 않았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는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Pravda>도 아니고, <AP통신> 역시 <타스통신Tass>과는 전혀 다르다.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 부르는 <뉴스피크Newspeak>도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대중들이 일관성 없고 파편화된 사건에 적응해서 즐기다 보니 무관심해진 것뿐이다. 이게 바로 엘더스 혁슬리가 예언했던 미래의 모습이며, 그러면 위의 사례를 보고도 놀랄 일이 없을 터이다. 혁슬리는 서구 민주사회가 춤추며 꿈길 속을 헤매다 스스로 망각 속으로 빠져들어 나란히 속박당하게 되리라 확신했다. 오웰과 달리 혁슬리는 모순에 무감각하고 기술이 주는 재미에 중독된 대중에게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음을 간파했다. 마취제를 흘려보내는 정맥주사가 바로 텔레비전이라고 혁슬리가 적시하진 않았지만, 로버트 맥닐이 “혁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소마(soma)***는 바로 텔레비전이다.” 라고 한 판단은 아무 거리낌 없이 수용했을 터이다. ㉠ 빅 브라더는 하우디 두디(Howdy Doody)****였다.

*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일종의 쌍방향 촉각영화로 요즘의 가상현실 기술과 유사하다.

** 어린이들이 쇠구슬을 갖고 노는 단순한 놀이.

*** 미래의 인류가 불안하거나 근심이 생길 때마다 먹는 약의 이름. 소마를 먹으면 곧바로 행복감을 되찾는다.

**** 1947년부터 1960년까지 인기를 끈 NBC방송의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근깨 가득한 소년 모습의 꼭두각시 인형 이름.

(나) 랜던(John Rendon)은 스스로를 완곡하게 말해서 ‘정보 전투와 인식 관리 전문가’ 라고 표현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랜던 그룹은 미국 정보기관과 외국 정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차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쿠웨이트로 진격했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백 명의 쿠웨이트인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장면을 비추었다. 랜던은 어떤 대담 자리에서 그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번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라크의 침략으로 7개월이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쿠웨이트 사람들이 미국 국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다른 동맹국 국기까지 있었어요. 이제 이유를 아셨나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랜던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비밀이다. 정보기관의 고위층들도 그가 뭘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부시 정권 때 이라크에서 그가 미국 정부를 위해 어떤 선전 활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랜던이 그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랜던은 모두 부정하고 있다.

(다) **임상진** ○○게시판에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작업을 하셨습니까?

찾땃땃 게시판 망가뜨리는 데는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게시판에서 진상을 피우니까 한 달 사이에 ○○게시판 사이트가 황폐해졌어요.

그 뒤로도 한 반년 정도 계속 작업했어요. 떠나갔던 이용자들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게시판 거기는 완전히 죽었다, 잘난 척 하는 어린애들이 병림픽하는 쓰레기장이 됐다’ 고 완전히 인식을 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거기 주인장 은올마저도 자기 트위터에 ‘정치적 올바름과 불편함 외에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게시판에 애도를’ 따위의 글을 올리고 자긴 이제 게시판 안 본다고 공언할 정도가 됐죠.

임상진 게시판이 망가지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다음 장에 계속)

찾타캣 일단 올라오는 게시물 자체가 확 줄었어요. 전성기 때의 반절 아래로, 평균 조회수는 처음에 잠깐 늘었는데 아마 싸움 구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인장이나 이용자들이나 게시판에 별 관심 없어졌을 때 몇 번 서버를 공격해서 다운시켰더니 사이트 유입량이 반의반 토막으로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그런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전에는 ○○게시판이 어떤 인터넷 활동가와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정부 비판하는 신문광고도 내고 소모임도 결성하고. 그런 모임을 저희는 스마트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차단도 했고. (……중략……)

임상진 그래서 다른 진보 사이트들도 그렇게 공격하셨나요? 그 방법이 다 잘 먹혔나요?

찾타캣 아, 아뇨. ○○만 해도 양반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이 안 통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런데 거기도 결국 방법을 찾았습니다. 훨씬 더 뭐랄까, 파괴적인 방법이었어요. 거긴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나중에 아예 사이트가 쪼개졌죠. 거기에 관련됐던 핵심 인사들은 한동안 인터넷 못했을 겁니다.

3-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오웰과 헉슬리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200자±20자) [10점]

3-2. 제시문 (가)에서 ㉠의 함의(含意)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5점]

3-3. 제시문 (나)와 (다)가 (가)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 사례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00자±20자) [15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 출제 영역 및 모범답안

시험유형	인문사회계	자연계	의학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문항 총괄 】

문항번호		출제범위(고교 과목명)	핵심개념 및 용어	배점 (총 100점)	난이도
1	1-1	국어, 화법과 작문, 사회·문화	역사 관점	12	하
	1-2	독서와 문법, 문학, 사회·문화		18	중
2	2-1	독서와 문법, 고전	인간관계	12	하
	2-2	독서와 문법, 고전		18	상
3	3-1	사회, 생활과 윤리	전자매체와 대중지배	10	중
	3-2	사회, 생활과 윤리		15	상
	3-3	사회, 생활과 윤리		15	중

□ 문항 1

문항 1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항 1은 역사를 이해하는 두 개의 관점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역사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하고자 했다. 제시문 (가)는 역사를 정의하는 조건으로 역사가가 자신이 속한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과정으로 보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역사의 주관적 위치에 있는 ‘아’와 그 상대적 위치인 ‘비아’의 투쟁의 기록으로 역사를 정의한다. 이 투쟁은 역사적 시간을 의미하는 상속성과 역사적 공간을 의미하는 보편성을 충족할 때에 역사적 속성을 얻게 된다. 김석문의 지원설과 정여립의 군신강상설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얻지 못했기에 역사적 해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문항 1 - 출제 근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역사란 무엇인가?	E.H. Carr	가치	2003	49-50		재구성
조선상고사	신채호	동서문 화사	2012	13-14		재구성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고등학교 한국사	도면회	비상	2015	305	문제1	
고등학교 고전	정민	해냄에듀	2015	313	문제1	

문항 1 - 세부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1-1	제시문 (가)의 역사를 정의하는 조건을 찾아냈는지 여부	6
	제시문 (나)의 역사를 정의하는 조건을 찾아냈는지 여부	6
1-2	제시문 (나)의 김석문과 정여립의 주장이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이유를 제시문 (가)에서 근거를 찾아서 서술했는지 여부	9
	제시문 (나)의 김석문과 정여립의 주장이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이유를 제시문 (나)에서 근거를 찾아서 서술했는지 여부	9

문항 1 - 예시답안

1-1. 역사를 정의하는 조건은 (가)에서는 역사가와 과거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설명한다. (나)에서 역사를 정의하는 조건은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을 의미한다. 주관적 위치의 아와 그 상대적인 위치의 비아가 역사적 시간과 공간속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성과 보편성이란 속성이 있어야 한다.

1-2. (가)는 역사란 역사가와 과거 사실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과정이라 했다. 따라서 김석문과 정여립의 이론이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이유는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하여 지속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에 따르면 김석문과 정여립의 이론은 ‘아’에 해당하고 이와는 다른 기존의 이론을 ‘비아’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원설과 군신강상설이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미약하여 상속성과 보편성의 속성을 얻지 못했다. 결국 과거의 사실에 불과했던 김석문과 정여립의 이론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얻지 못했고, 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역사로 기록되지 못했다.

□ 문항 2

문항 2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개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숙시키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하지 않다. 문항2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문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대립항을 설정하여 보여준다. 제시문 (가)는 남을 위해 쓰는 글과 자신을 위해 쓰는 글을, 제시문 (나)는 다른 사람과 내왕이 없는 고립된 삶과 서로 어울려 살아 비슷해지는 삶을, 제시문 (다)는 너무 자주 만나 낯아진 관계와 간격을 두고 지내 존경을 회복한 모습을, 제시문 (라)는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의 공유와 끼니를 끊음으로 인해 빚어진 인간관계의 단절을 대립시키고 있다. 제시문들은 각각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가)는 자신의 영혼을 담은 글을 쓸 것을, (나)는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다)는 서로의 간격을 존중하여 인간적 존엄을 확보할 것을, (라)는 시간적 공유를 통해 함께 소통하는 태도를 지닐 것을 주장한다.

문항 2 - 출제근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와문법	윤여탁 외	서울 ; 미래엔	2014년	218-233	제시문(가)	재구성
고등학교 고전	한철우 외	서울 ; 교학사	2014년	148-155	제시문(다)	재구성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돌베개	2008년	219-220	제시문(나)	
황석영의 밥도둑	황석영	교유서가	2016년	265-267	제시문(라)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와문법	윤여탁 외	서울 ; 미래엔	2014년	198-207	제시문(가),(나),(다),(라)	

문항 2 - 세부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2-1	제시문 (나)의 ㉠, (라)의 ㉡의 의미를 각각 찾아냈는지 여부	6
	제시문 (나)의 ㉠, (라)의 ㉡의 의미를 비교하고 있는지 여부	6
2-2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밑줄 친 ㉢, ㉣, ㉤, ㉥에 상응하는 대립항을 각각의 제시문에서 찾아냈는지 여부	9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저자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를 서술하고 있는지 여부	9

문항 2 - 예시답안

- 2-1. 제시문 (나)의 ㉠과 (라)의 ㉡은 모두 ‘식사’라는 상황을 두고 제시된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나 ㉠은 하루 세 끼마다 매번 같이 만나듯이 너무 잦은 만남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마치 곰팡내 나는 치즈처럼 낡고 의미 없는 모습으로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은 밥을 같이 먹는 행위를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로 해석하며, 같이 먹지 않는 시간은 곧 인간관계의 단절이라고 말한다.
- 2-2. ㉢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쓰다듬어주는 시와, ㉣는 여러 사람이 맨살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행위와, ㉤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너무 얽혀 살고 있어서 서로의 길을 막고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는 모습과, ㉥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단식하는 행위와 상응한다. 이를 통해 제시문 (가)는 나의 영혼을 쓰다듬는 글을 쓸 것을, 제시문 (나)는 서로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제시문 (다)는 서로 간격을 두고 살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확보할 것을, 제시문 (라)는 시간의 공유를 통해 소통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주장한다.

□ 문항 3

문항 3 -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

전자매체가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정보 과잉이나 정보 격차, 프라이버시의 종말 등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기관이나 기업에 의한 정보 왜곡과 통제, 감시는 전자 판옵티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참혹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한 대중 조작과 감시의 일상화가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매체가 다원적·수평적 의사소통의 확대, 자율적 공론장과 온라인 공동체의 형성, 권력 분산 등 전자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시장과 국가의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감시와 여론조작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제시문 (가)는 오웰과 헉슬리의 관점을 제시하여 전자매체가 전체주의적 정보 통제와 진실 은폐, 대중문화를 통한 오락 추구와 문화의 저급화를 초래하여 대중 지배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TV가 여론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권력 집중과 중앙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제시문 (다) 또한 권력 기관에 의한 인터넷 댓글 조작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무력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문제의 초점은 오웰과 헉슬리가 제시한 미래상을 통해 전자매체가 정교한 방식으로 대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장 논리에 포섭되어 대중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한 전자매체의 특성과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3 - 출제 근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죽도록 즐기기	닐 포스트먼 (홍윤선 옮김)	굿인포메이션	2009	9-10 174-175	제시문(가)	○
생각 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저 (이현숙·이정태 옮김)	알키	2011	191-192	제시문(나)	
댓글부대	장강명	은행나무	2015	84-85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항 3 - 세부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3-1	제시문 (가)에서 오웰과 혁슬리의 관점을 각각 명확하게 파악했는지 여부	5
	제시문 (가)에서 오웰과 혁슬리의 관점을 제대로 비교했는지 여부	5
3-2	'빅 브라더'와 '하우디 두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여부	7
	㉠의 함의(含意)를 제대로 서술했는지 여부	8
3-3	제시문 (나)와 (다)를 오웰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정확하게 연결시켰는지 여부	6
	제시문 (나)와 (다)가 오웰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대로 서술했는지 여부	9

문항 3 - 예시답안

- 3-1. 미래사회에 대한 오웰과 혁슬리의 전망은 모두 부정적이다. 오웰이 외부의 압제에 의한 정보 통제와 진실 은폐를 두려워했다면, 혁슬리는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오락과 재미에 진실이 압도당하는 상황을 예견했다. 전체주의적 통제에 주목한 오웰과 달리, 혁슬리는 대중문화를 통한 지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자가 억압적인 통제 방식이라면, 후자는 대중의 비판적 안목의 상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 3-2. 빅 브라더가 전체주의적 지배를 의미한다면, 하우디 두디는 대중문화를 상징한다. 오웰은 감시도구를 통한 지배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혁슬리는 대중문화를 통한 지배력 확보에 주목한다. ㉠은 전자매체가 감시도구로 기능하기 보다는 대중문화의 오락성으로 인해 대중의 비판적 합리성을 마비시킨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하우디 두디는 상이한 방식으로 대중을 무력화시키는 오웰의 빅 브라더에 해당하는 셈이다.
- 3-3 제시문 (나)와 (다)는 모두 (가)의 오웰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 (나)가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의 지배를 강화하고, (다)는 댓글 테러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해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랜던'과 (다)의 '찻타캣'은 정보 통제와 여론 조장을 수행하는 인물들이며, (나)의 '랜던'이 정부나 특정기관을 위해 일하는 인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